

가람새울

2014 전국책축제 인문책쓰기 우수동아리 교육부장관상 수상

© 천호중학교 스토리텔링 동아리 장편소설 가람새-울



윤세영, 이연재, 차연우, 김연주
김민수, 김병철, 김신영, 김재희
김종훈, 김지민, 김지훈, 문수연
백승재, 손진표, 장대훈, 김준영
맹경도, 박준석, 이예린, 윤준희

지도교사 임홍수

발간에 부쳐

2015년 3월부터 스토리텔링 동아리에서 함께 스토리와 텔링, 그리고 ‘명품떡볶이’의 쿨피스와 차돌박이·통오징어·프라이드치킨떡볶이, 오리온초코파이, 마가레트와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질리게 먹었던 학생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2015 학생자치활동 모델학교와 좋은중학교 만들기 사업을 통해 우리 동아리에게 물심양면 지원해주신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동구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장편소설 [가람새-활]은 강(江)의 순우리말 ‘가람’과 동(東)의 순우리말 ‘새’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의 역사부터 알고 세계로 나아가자는 작지만 원대한 진로모색의 의미입니다. 활(活)은 무기 활(弓)이자 악기 활(絃)이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활기찬 삶의 다른 이름입니다.

최근 4, 5주 동안 서울형 자유학기제 수행평가 하라 장편소설 [가람새-활] 쓰라 수고한 동아리 학생들에게 중학교 1학년 과정의 값진 열매를 주고 싶어 무리하지 않았나 하는 미안함보다 동아리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장편소설책 한 권을 선사하는 보람을 더 많이 생각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책쓰기 공모에 선정되어 2014 전국 책 축제 인문책쓰기 부문 우수동아리 교육부장관상 수상의 영광을 재현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저만치서 따뜻한 시선, 정성 가득한 간식과 격려로 후원해주신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께 부족하지만 야무진 열매 하나 오롯이 드립니다. 맛있게 접수시고 좋은 말씀, 따끔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016년 1월 11일

천호중학교 스토리텔링 동아리 올림.

가람새 - 활

A. Prologue

Amateur _ 8

1. 영화 [암살]과 [미션임파서블5-로그네이션] _ 37
2. 연재가 들려주는 [도림과 바둑이야기] _ 50
3. 조각보1 _ 59
4. 연우가 쓰는 패러디소설 _ 92
5. 맹경도의 [이 시대의 진정한 이아호] _ 106
6. 학생자치법정1 _ 111
7. 김준영의 터닝포인트 _ 123
8. 정보통신윤리 글짓기, 이예린의 [전학생] _ 147

9. 조각보2 _ 159
10. 인사이드아웃, 시화전 & 시낭송회 _ 169
11. 학생자치법정2 _ 183
12. 윤세영의 [먼 나라 이웃나라] _ 198
13. 대한민국 초등학교 2학년 사람 만들기 _ 204
14. 이예린의 Never Ending Story _ 227
15. 응답하라 1988 합창대회 & 학년별 예술제 _ 241
16. 마당극 [독립군끼리]를 배우는 시간 _ 254

Ω. Epilogue

1. 북위 41도에서 온 남편의 편지 _ 274
2. Frontier _ 289

A. Prologue

가람새알



2014 전국학생제 인문체쓰기 우수동아리 교육부장관상 수상

◎ 천호중학교 스토리텔링 동아리 장편소설 가람새-알

Amateur

“어디야? 어디냐구, 이아호?”

종훈이는 거칠게 이아호를 찾고 있다.

“이아호는 누구셔?”

지훈이가 예의 재치 있는 말투로 [날아라 슈퍼보드]의 저팔계를 성대모사하고 있다.

“날마다 강동선사문화축제 공식가요 플래시몹에 빠져 살더니 현실과 노래가 구분이 안 가냐?”

뜰뜰이 스머프를 흉내 내는 준영이가 짓궂게, 하지만 진심어린 눈빛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승철, 아마츄어? 그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종훈이는 여전히 진지하게 데뷔 30주년, ‘소녀시대’의 가수 이승철을 언급했다.

“충분하지. 만화가 윤태호의 [미생] 알지. tvN에서 드라마로 만 들어서 더욱 유명해진, 김원석 연출에 정윤정 극본의 인턴 장그래의 이야기였지.”

준영이는 미리 조사라도 한 것처럼 ‘미생(未生)’을 언급했다.

“이아호?”

지훈이는 여전히 이아호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음표로 시간과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다. 마치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라도 될 것 같다는 믿음이 있더라도 한 듯이. 보자, 보자 하면 보자기라도 될 것처럼. 지훈이는 생각차를 마시면 생각을 해야 하고, 녹차를 마시면 녹초가 된다는 식의 재미없는 말장난, 언어유희를 했지만 적재적소에 절묘한 타이밍에 말을 해서 친구들을 웃기는 재주가 있었다. 태산같은 민수가 같은 표현을 했을 때의 소나기 비난이 일본 동북부를 몰아친 스나미처럼 슬프고, 아프게 다가오는 것과는 완전 대조적이었다.

“내가 아닌 내가 분명하지만 결코 내가 될 수 없지. 하지만, 그렇다고 나는 아닌 또 다른 나. 그게 이아호야.”

종훈이가 질문이 있는 교실에서 배운 대화의 기술을 활용해서 천천히 이아호를 설명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훈이는 현실감각이 없는 친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혼잣말처럼 물음표를 화살표처럼 쏘아댔다.

“종합생활기록부제 전형, 수시를 위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할까? 사실 그대로 써야할까? 아니면 침소봉대해서 약간의 허구를 가미하고, 개연성을 첨가한 진실 이상의 휴먼드라마를 만들어야 할까? 고민하지 말자. 어차피 대학교가 목표라면 가족의 아픔을 그럴싸하게 엮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수시에는 스토리텔링이 요구된대. 예를 들면 엄마가 갑상선이나 저혈압이라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엄마를 불치병에 가깝게 포장해서 드라마틱하게 만

드는 거지. 그리고 자신은 천하에 둘도 없이 착하고 인성 좋은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으로 만드는 게 정말 나쁜 일일까?”

준영이가 대신 답이라고 하는 듯이 조금 긴 호흡으로 지훈이의 이야기에 살을 붙여서 종합생활기록부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언급했다.

“위법은 아니지만 사기도 아니겠지만 양심에는 저촉되는…… 뭐, 그런 거 아닐까?”

듣고만 있던 예린이가 백과사전처럼 지나가는 말로 종합생활기록부 전형의 자기소개서를 정의내리고 있었다. 곁에서 연주는 어이 없다는 듯이 홀로 팔짱을 낀 채 시선을 회피하고 있다.

오전 11시에 시작된 강동선사문화축제 백일장과 그림그리기 대회는 비 소식에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다. 다행히 새벽에 비가 그쳤다. 하지만 10월의 아침은 가을비 한 번에 속옷 한 벌이라는 속담처럼 조금은 매서웠다. 교내백일장 1학년 금상에 빛나는 수연이의 글은 끝내 심사위원의 눈에 띄지 못했다. 기상이변이라는 뉴스와 함께 손가락 한 마디만한 우박이 내렸다. 학생들과 강동선사문화 백일장과 그림그리기 대회 주최측과 진행도우미들은 모두 강동암사선사유적 전시관 안으로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갔다. 같이 백일장에 참석했던 아이들이 의아해 했지만 선생님은 쿨하게 백일장은 객관적이지만,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로 실력도 중요하지만 심사위원들과의 코드를 무시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장편소설 한 권을 선물로 주면서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오랜만에 4호선을 타고 서울역을 지난다. 회현역, 명동역을 지났다. 충무로역에서 내렸다.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 8번 출구, 대한극장 맞은편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나는 오랜만에 그들과 술을 마시러 왔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아마도 수다를 떨러 왔을 것이다. 술을 좋아하는 세 사람과 술을 싫어하는 세 사람이 만났다. 남자는 수다를 떨지 말아야 한다는 쪽과 술은 대화를 단절한다는 쪽이 함께 하는 평행선상에서 그들은 국어라는 교집합으로 만났다. 중고등학교 국어 교사가 그들의 직업이다. 학교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거듭 약속하지만 이야기의 끝에는 항상 학교 이야기가 나오고 교육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모임이다.

아무튼 우리들은 이제 국어를 사랑하는 모임이 되어가고 있다. 술을 지극히 사랑했던 임춘과 이규보가 서로 다른 길을 갔듯이, 술자리를 사랑하는 세 사람과 수다를 사랑하는 세 사람이 만나서 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말이다. 우리들의 수다는 계속 된다. 점점 제 정신을 잃어가는 세 사람과 제 정신을 찾아가는 세 사람의 대화는 끝이 없다. 나는 내 글이 서울시장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비음주파의 박승민이 말했다.

참, 우리가 한 다리 건너서 알게 된 친구라서, 아직은 속내를 이야기하기가 어려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 작품이 ‘배수구 쓸던 노인’이었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서울시장상 받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입상조차 못한 경위를 자신이 알고 있다고 했다. 나는 궁금하기 보다는 언제나 있는 일이니까,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미 꺼낸 이야기니까, 이야기 해보라고 선심 쓰듯이 했다. 박승민은 안주를 먹고 주스를 한 잔 마시고는 계속 말을

이었다.

“행정안전부 최종심에서 논란이 있었다는 거야. 사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민방위 글짓기 부문은 수기였으니까, 씨의 그 글은 사실 소설에 가까웠다는 거였지. 소설이므로 수기가 아니다. 그러므로 입상작으로 할 수 없다고 했다는 거야. 물론 젊은 심사위원들이 이 작품이 왜 수기가 될 수 없느냐고 따졌더니 지나치게 화장을 한, 아니 분장을 한 것이 눈에 거슬린다고 하더라.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조목조목 따져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네.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인 원로 작가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린 모양이야. 서울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지방의 작품에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씨의 작품은 서울시에서 최우수상을 받고도 소설이라는, 작위적이라는 이유로 입상작으로도 선정되지 못했다는 거야. 심사위원이 결국 아마추어 작품에 프로의 잣대를 댄 거지!”

“그러면 씨의 작품이 결국은 그들로 인해 소설로 평가받은 거네. 축하해, 소설가 선상님.”

“그게 아니지, 소설로서 인정을 받은 게 아니라 작위적이기 때문에 낙선된 거라고 봐야해.”

“아무튼 제 고집을 안 꺾는 거야. 그렇다하더라도 쪽박을 깰 것까지야 없지 않나?”

“마, 그래도 서울시장상을 받은 게 어디야. 순수 아마추어를 부르짖는 내게 순수 프로의 길을 가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면 되지. 아무튼 감사할 뿐이다.”

이내 처음처럼 한 잔 들이키고 닭고기 한 점을 잘게 찢어 입에 넣는다.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배수구 쓸던 노인’이 내게 작가로

서의 이미지를 재고하게 하고, 동기부여를 하게 하다니 고마울 뿐이다. 그게 고맙다. 박승민의 친구라는 그 사람이 그저 감사할 뿐이다. 언제 한 번 그를 만나 술 한 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쓴 소주를 입에 들이 부었다.

비음주파 수다쟁이들도 이제 수다에 지쳤는지 하우스 맥주를 한 잔 시키고 말을 이어갔다. 이 친구들, 아예 술을 못하지는 않는다. 맥주 두 잔에서 세 잔이 치사량이다. 한두 잔은 음료수라고 생각하고 마신다. 그것도 거의 두세 시간에 걸쳐서 마신다. 우리 셋과는 차원이 다르다. 아무튼 이제부터 주당파 3인방과 비음주파 3인방의 수다는 무르익어 갈 것이다.

(중략)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하잖아? 내가 요즘 고민에 빠졌는데 표절과 패러디의 차이가 있기는 한 건가? 그리고 교정과 대필은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 걸까? 인용도 마찬가지로. 무단 전제 및 복제를 금한다고 하는데, 평론가들은 작품 구석구석을 인용하면서 이야기 구조를 완성해 가는데 이걸 문제가 안 되나?”

“마, 얼마 전에 장정일 씨의 장편소설 [구월의 이틀]을 읽었는데 류시화 시인의 시집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자]에 있는 동명의 시를 모티브로 진정한 보수주의자인 주인공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대. 그러면서 우연히 장정일 씨가 류시화 시인을 만나서 물었다. 제목으로 써도 되겠냐구? 그랬더니, 그게 내 건가? 반문하더라. 이해의 문제잖아!”

“하지만 이준익 감독의 [왕의 남자]가 공전의 히트를 쳤을 때 기억 나? 연극 [이(爾)]의 원작자가 자기 작품을 허락 없이 인용했다

고 상영 정지 가치분 소송 냈던 거?”

“그래, 그랬지. 나도 교지 만들다가 박광수 씨의 [광수 생각]을 인용하려고 출판사에 전화했더니, 박광수 사무실에 연락하라는 거야. 그래서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원래는 편당 500만원인데 비영리이고 학교인 걸 감안해서 200만원만 내라는 거야. 그때 교지 이전 권 내는데 예산이 삼백만원이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포기했어.”

“마, 아마 박광수 씨가 알았더라면 허락했을 거야. 그래서 저작권이 무서운 거야. 누군가의 소중한 밥벌이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히트를 치지만 않는다면 크게 문제 될 건 없다는 건가? 하지만 사람 사는 일이란 게 아무도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야. 소설에서만 잃어버린 동생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냐. 사람들 사이에 여섯 명 정도만 거치면 모두가 다 아는 사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모두들 놀랐던 게 언제야? 정보화시대의 장점이자 단점이야. 익명성(匿名性)이 받을 디딜 곳이 없다고.”

“익명서의 부재? 정보로부터 자유로운 듯하지만 정보에게 항상 구속될 수 있다는 거 아닐까?”

“사이월드의 일촌이라는 게 그런 익명성의 구속을 의미하잖아? 비공개, 일촌 공개, 전체 공개! 몇 사람만 거치면 모두가 공유되는 공개의 장. 도토리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밝히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공유해야하는 탈자유, 구속의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지.”

역시 술이 얼큰해진 좌요섭이 한 마디 거들면서 끼어들었다. 이제 서서히 주당파들이 술기운을 빌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이고

도, 날선 칼날을 달고 달리게 하고 있었다. 주당과 좌요섭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한 마디로 무서운 세상이구나.”

“마, 무서운 세상이지. 그런 면에서는 학생들은 아직은 순수한 것 같아.”

“어째서?”

“마, 씨들도 많이 겪었겠지만 백일장이라는 거 사실 주제는 뻔하잖아? 학교와 5월하면 생각나는 거 거의 매번 같은 주제라서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거 말이야. 미리 준비하는 건 좋은데 아예 거의 베끼기도 하잖아. 유명한 작품이야 지식 검색 몇 번이면 확인되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는 거, 속상하지? 문제는 대필한 경우인데, 대필한 녀석은 입상을 못하거나 하위권에 입상을 해요, 꼭. 그런데 대필을 받은 녀석이 대상이나 금상을 받는다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아이들 보는데서 자신 있게 물어봐요, 나름대로 익명성을 들이 대면서! 선생님, 대상 받은 애 작품이 누가 써 준 거면 어떻게 해요? 대답 대신, 영원히 침묵하라고 하지. 만약에 사실이 밝혀지면 입상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교칙에 의거해 둘 다 중벌을 면치 못할 거라고 하지.”

“그러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야? 여론 몰이라도 할 텐데?”

“마! 가만히 있지 못하게 조용히 특별실로 불러, 그 학생을. 그리고는 다 안다는 듯이 이야기 하지. 네가 대필해준 학생이 누군지도 안다. 왜냐하면 대상이라고 이야기 했으니까? 참 단순한 학생에 단순한 국어선생이지. 그리고는 이야기한다. 어떻게 할까? 조

용히 동상 받고 넘어갈까, 아니면 대상과 동상을 교칙에 의거해서 처벌하고 새로 심사할까?”

“그러면 학생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교실로 돌아가겠네.”

“마, 조용히 웃으면서 한 번 비수를 꽂는 일, 확실한 매조지를 잊어서는 안 되겠지? 무덤까지 가져가는 게 좋을 거야. 이 이야기는 우리 세 사람밖에 모르는 일이니까? 입단속 잘하셔! 하고 말 이야.”

“무섭다. 하지만 그런 일은 사실 수행평가 때 더 많이 발생하지 않나? 아무리 검색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교묘하게 빠져 나가는 머리 좋은 녀석들은 정말 알밋지.”

“마,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수행 평가를 예고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실시하잖아. 시간 차이가 발생하지만 미리 준비한 원고를 꺼내는 것은 철저히 통제하잖아.”

“그래도 학급 수가 많으니까 철저히 준비하는 녀석은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어. 그건 그들의 노작(勞作)으로 인정하는 수밖에.”

“맞아, 인터넷 혁명 덕에 정말 웃지 못 할 일도 많이 일어난다고. 표절이나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

“그래, 얼마 전에 선배 교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학생이 대통령상을 받았대. 당연히 학교에서는 경사가 났다며 현수막 걸고 과하게 홍보까지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 교장선생님이 교실에, 지역신문에, 여기저기에 홍보차원 차 신자고 하더라. 그래서 그 선배가 주최 측에 연락을 해서 원고를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 팩스로 받은 원고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대. 인터넷에 올라온

중2학생 글을 80%이상 퍼서 개작한 거야. 문맥이나 구성은 거의 90%이상 같아서 표절로밖에 볼 수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주최 측에 책자로 발간하느냐고 의뢰했더니 발간할 계획이 없다고 해서 그 선배가 하루 밤 새워서 완전히 다른 글로 다듬었다는 거야.”

“마, 어떤 내용인데? 그걸 그대로 퍼다 썼을까? 국가보훈처나 독립기념관, 아니면 전쟁기념관 주최라면 주제가 거의 비슷하잖아. 국립서울현충원도 마찬가지이겠고, 그랬으면 다분히 획일적인 글이 인터넷에 돌아다녔을 테고.”

“귀신이네. 맞아, 그 중 한 곳에서 주관한 행사였대. 그러니 미리 준비해서 가져갔겠지. 아무튼 그 노력에 박수를 치면서, 획일적인 잣대로 대회를 몰아갈 수 있는 분들에게는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안타까울 뿐이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한 마디로 창조성이 배제된 획일적인 글쓰기, 이제는 좀 멈췄으면 좋겠다.”

“밤 새웠다는 그 선배, 대단하다. 씨의 ‘배수구 쓸던 노인’도 그렇게 행정안전부로부터 배척당했으니 동병상련(同病相憐)이네.”

“백일장이야 즉석에서 글을 써야 하니까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지만 공모는 대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잖아. 내 자식 내가 챙긴다는 선의의 의도로 글을 거의 대필에 가깝게 고쳐주는 것도 죄 아닐까? 사실 나는 작문은 못 해서 그럴 수도 없지만 아까 언급했던 선배는 거의 프로 수준의 작문 실력이라 능력 있는 제자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소문이 자자해. 그래서 인지 그 선배가 담당하는 문예반 학생들 대부분이 전국 규모 글짓기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하고는 해. 그래서 문예반은 항상 만원이야. 아마도 작문 평가까지 해서 받을 정도래. 한 학년에 12명씩이 정원이

라니까, 경쟁률은 최소 10대 1 이상이래. 개중에는 작문보다 수시를 겨냥한 끈들도 있다고 하니까, 부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
(중략)

“매번 결심하면 뒤흔. 영화, 소설, 시, 뮤지컬에 연극까지,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야기로 주제를 몰아가도 결국 교육 문제로 귀결 되는 걸. 아마도 직업병이라고 봐.”

마지막까지 열심히 들어주는데 열중하던 비음주파 추재혁이 맥주잔을 들고 일어섰다.

“자, 술이나 마시고 그만 일어나자. 벌써 자정이 넘었어. 하루가 지나고 또 다른 하루가 왔다고.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어제였다잖아. 자, 우리의 죽어간 어제를 위해 진달래!”

“진달래!”

“진달래!”

“진달래!”

“진달래!”

“진달래!”

진실하고 달콤한 내일을 위하여! 우리들의 수다는 그렇게 새로운 오늘을 맞이하고 있었다. 오늘 그들은 무거운 걸음을 뒤로 하고 가벼운 걸음으로 다음 번 모임을 기대하면서 헤어질 것이다. 대나무 숲으로서의 그들의 수다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푸른 웃음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학교로 푸른 걸음을 옮길 것이다. 그들의 수다는 현재 진행형이다.

- 임홍수 장편소설 [아빠 술 먹어] 부분 인용.

사랑이란

(전략(前略))

사랑아! [어린왕자]에서 '사랑은 서로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주시하는 거야!'라는 장미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같아. 가족이라는 이름의 한 울타리 속에서 배려와 이해라는 한 곳을 볼 수 있는 여유와 진심 말이야. 어렵지? 언니도 정말 어려워.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 시나브로 느끼게 될 거야.

번개와 비를 피했던 선사유적 전시관에서 백일장을 마치고 원고를 제출하러 가는데…… 세상에 비와 함께 손가락 한 마디만한 우박이 내린 거야. 하지만 우박은 이내 사라지겠지, 흔적도 없이. 사랑이의 아픔도 이내 우박처럼 녹아 없어질 것을 언니는 믿어.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사랑이, 너를 주시하고 있는 것처럼.

연재 : 와, 대박. 백일장 심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내가 심사위원이라도 개관적 잣대와 주관적 감성 중에서 후자를 택할 것 같기는 하다.

연우 : 미투. 수연이의 '사랑이란'은 선생님과 우리들의 가슴 속에만 남았다는 선생님의 표현이 정확한 거 같아.

경도 : 하지만 내가 심사위원이라면 가능한 심사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할 거야. 백일장이나 공모에 참여한 사람들의 간절함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연주 : 그래 경도 말도 맞아. 하지만 인간은 지극히 주관적인 동

물이니까. 이해는 간다. 대박! 다음은 한글날이야.

2015년 10월 9일!

한글날 아침이다. 1443년 아무도 모르게, 느닷없이 [훈민정음(訓民正音)]의 반포는 조선(朝鮮) 조정을 발각 뒤집어 놓았겠다. 이후 집현전(集賢殿)의 소장파 학자들에 의해 훈민정음은 조선(朝鮮) 문자(文字)로 정립해가는 듯했다. 하지만 집현전의 대제학 최만리 등은 이두(吏讀)로 충분한 언어혁명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1446년 음력 9월 상달 훈민정음은 조선의 문자로 반포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누구도 진서(眞書)인 한문(漢文)을 두고 암클이요 반절(半切)인 언해(諺解)를 조선의 문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하였던 세종(世宗) 자신마저 믿지 못했다. 하지만 세종, 이도(李燾)는 알고 있었다. 이 문자의 전파력은 제도와 정치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총명한 사람은 한 식경이 못 되어 글의 이치를 알고 쓰게 되며, 보통사람은 반나절이 못 되어 익히고 쓸 수 있으며, 몽매(蒙昧)한 사람도 열흘이면 익혀 쓸 수 있다’는 훈민정음의 가치를 당대의 사대부(士大夫)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다. 21세기 정보화혁명과 스마트혁명의 시대에 세종 이도(李燾)의 문화혁명은 우리 대한민국을 디지털강자로 만들기에 충분한 양분이 되어주었다면 거짓은 아닐 것이다.

상상은 행복한 녀두리다. 이아호(二我呼, 異我呼)를 만난 것도 그런 상상에서 시작되었다. 연주와 함께 보고 널리 생각하고 깊이 이야기했던 영화 [인사이드 아웃]의 감정들도 그렇다. 가가멜과 아지

라엘에게 쫓기는 [개구쟁이 스머프]도 마찬가지다. [퇴계, 달중이를 만나다(김은미, 김영우 작)]에서 퇴계 이황 선생을 만났던 달중이도 그렇다. 상상력은 자신이 알게 든, 모르게 든 경험한 것들의 총합이라고 한다. 한국인에게 죽음은 [신과 함께(주호민 원작의 웹툰)]의 모습 그대로다. 사람들은 윤태호의 웹툰 [미생]에서 현실을 투영하고, [신과 함께]에서 저승을 반영한다. 그리고 착하게 살아가는 을의 입장에서 슈퍼갑조차 통렬하게 깨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영화 [베테랑]처럼! 만화와 소설, 드라마와 영화가 통렬하게 전개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철저히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에 나오는 ‘대나무숲’을 그려내는 것이다.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들의 현재를 다룬 편지 형식의 장편소설 [편파방송]의 한 부분을 통해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의미와 함께 가슴 아픈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문화대국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고함!

한 권의 소설을 읽었고 그에 대한 답을 하려다 시간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2010년 3월 26일, 대한민국의 천안함이 정체모를 타격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저 후손들의 일이기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을 겪고 보니 그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이렇게 그대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전서공난수의 후손인 임청수란 젊은이가 지은 [아빠 술 먹어]는 행정중심복합타운 세종시에 대한 나와 전서공의 대담이었는데 그 문체가 대담하기에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전서공 : 이도(세종대왕)께서는 이 도시의 이름이 세종시라고 한 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요?

세 종 : 허허, 나와는 무관한 일이 후세 사람들에 의해 이상하게 변질되는 것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마도 세종시보다는 전서시나 행복시가 어울릴 듯합니다. 다만 전서공 난수공과 부안 임씨 가문에는 나름의 배려가 아닌가 합니다만.

전서공 : 역시 군벌(軍閥) 이성계 장군의 손자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군요. 문제의 본질보다는 자신의 이름이 들고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그대로 묻어나시는군요.

세 종 : 아무튼 저야, 전서공의 충절을 기리고자 '임씨 가묘(林氏 家廟)'라는 액(額)을 내리고 불천지위(不遷之位)로 모시도록 명을 내린 죄 밖에는 없습니다만, 행정수도니 행정중심복합타운이니 하더니 뜬금없이 지역민의 정서를 위로한다면서 세종시라고 하지 않았는지요?

전서공 : 군벌 이성계 장군이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 왕조를 개창할 때도 수도를 옮기기는 옮겼지만 실제로는 눈 가리고 아웅한 꼴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개성에서 한양이야 지척이었으니 말입니다. 개성에서 한양으로의 천도, 수도 이전은 결국 고려 왕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죄를 지은 신하의 제 발 저린 일이겠지요. 수도 이전이라는 것은 쉽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요.

세 종 : 고구려의 광개토 대제의 아들 장수왕이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긴 것은 정복 국가에서 수성 국가로의 변신이였겠지만 사실은 고구려 왕조의 붕괴의 시작이었음은 자

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수도는 국가의 중심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수성과 공격이 쉬운 지형, 강을 두고 있고, 산을 등지고 있는 지형이야말로 최고의 입지가 아니겠는지요?

전서공 : 그렇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는 분명 한 쪽으로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남북한이 분단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수도보다는 통일 이후의 수도를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면 이번의 행복도시, 세종시 이전 문제는 전적으로 정치적으로 충청 지역의 민심에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 야합, 정치적 쇼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종 : 하지만 전서공께서는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후손들의 문제는 후손들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문제는 다만 우리들의 이름이 거명된다는데 있을 뿐이지요. 온고지신(溫故知新)을 적용하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그들, 후손들의 문제입니다. 엿질러진 물을 담으려고 최소한의 노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물을 닦아버리고 말 것이냐의 문제일 뿐이지요.

전서공 : 자업자득이라는 말씀이군요. 아무튼 이씨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한 걸음 물러서시는 모습은 보기에 썩 좋지는 않았습디만 문제를 직시하시고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만은 성군(聖君)다우십니다. 누가 이도를 대왕이라 칭하는가, 묻는다면 중용의 도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백(白)만 알고 흑(黑)을 모르는 저 같은 이야 대왕을 따라갈 수 없겠습니다.

전서공 임난수와 대왕 세종을 만났다. 하찮은 꿈이었다. 두 분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던 것 같다. 누구나 자신의 입장이 있으니까. 창작도 마찬가지로 지겠지? 누구나 온고지신(溫故知新)을 생각하지만 항상 과거에 집착하고 현재에 매몰되어 내일을 보지 못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전서공은 대왕 세종의 나이 열 살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서로 만날 일은 없었을 터이다. 말로만 들었던 지조 있는 충신에 대하여 세종은 참으로 집착이 대단하셨다 볼 수 있겠다. 아니, 조선 4대 임금 세종에게 죽은 전서공은 참으로 쓸모 있는 상대였겠다. 드넓은 영지를 줄만큼 쓸모 있는 신하, 하지만 부릴 수는 없는 신하였겠다.

처음 이 글을 대하고 조금은 상심하기도 했지만 정치적 논리로 고향을 잃은 ‘임청수’라는 민초의 이야기에서 나는 이 나라 위정자들의 흑백논리에 대해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강해져라. 강해지지 않으면 결국 어찌 되겠는가? 미국을 등에 진 대한민국이나 중국을 등에 진 북한이나 자주를 외칠 수 없지 않겠는가? 언젠가 [신기전(감독 김유진)]이란 영화를 보면서 정말 통쾌했다네. 명(明)나라의 그늘에서 숨죽이면서 조선력인 칠정산을 만들고, 조선의 시간을 갖고자 양부일귀와 혼천의를 만들었던 것은 우리에게 맞는 과학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힘은 결국 대, 중, 소 신기전과 귀선(龜船) 등을 만들어냈다. 여진을 정벌하여 잃었던 압록과 두만의 이북 지역을 찾을 수 있었다. 그 때는 명(明)도 감히 우리 조선에게 조공이니 무어니 하는 말을 사

용하지 못했던 때다. 이는 역사가 증명해 준다. 실제로 일제가 동청철도부설권과 간도 영유권을 청과 맞바꿈으로서 사라진 조선의 영역은 19세기말과 20세기 초의 천주교 조선 교구 강역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음을 인지하라.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과 북한이란 이름을 통합할 민족적 통합의 시점에 있다.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민족적 소통이다. 내가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한 것이 단순히 중국의 한자를 제대로 읽어서 중국어를 잘하게 함으로 해서 세계화하려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한인, 한웅, 단군 조선에서 우리 글자를 가지고 있었다. 한(漢)에게 400여년을 지배당함으로서 사라진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자를 살려내는데 자그마치 1,000여 년이 걸렸음을 인정하라. 내가 한글을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새롭고 편하고 과학적으로 만들었음을 인정한다. 이제 남북의 언어는 70년이 못 되어 많은 이질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나랏말씀을 가지고 있음으로 소통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고조선 이래 하나의 문화 코드로 존재했던 우리 한민족의 역량을 기대한다. 우리 문화의 핵심은 소통이었다. 혈연적 단일민족이 아니라 문화적 단일민족이었음을 직시하라. 최근에 등장한 다문화가정이라는 단어는 내 마음에 흡족하다. 혼혈(混血)이 아니라 혼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고려, 조선의 국호 속에는 이웃 민족을 정복하고 살육하는 대신 함께 문화를 공유하고, 아우르던 한민족의 세계주의가 있음을 알라. 그래서 나는 백범 김구를 사랑한다. 물론 우남 이승만도 사랑한다. 박정희, 전두환도 사랑한다. 김영삼도 사랑

하고 김대중도 사랑한다. 노무현도 사랑하고 이명박도 사랑한다. 하지만 그들 각자의 모두를 사랑하지는 않는다. 그들 모두의 초심을 사랑한다.

나는 다만 임금의 칼에 죽기는 싫었다. 나는 임금의 칼에 죽는 죽음의 무의미를 감당해 낼 수 없었다.

- 김훈 장편소설 [갈의 노래] 부분 인용.

나는 북방의 4군과 6진을 개척하면서 최윤덕과 김종서에게 전권을 맡겼다. 그들은 진정한 군인이게 하는 것은 지도자의 믿음이다. 장수의 두 손과 두 발을 묶어 두고 중언부언하는 것은 정치적 발상이다. 현재 우리 남북한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대리전을 하고 있다. 결국은 자주국방이라는 거대한 명제가 남는다. 울곡 이이의 ‘십만양병설’도 민족의 안위와 안녕이 저변에 깔려있어야 한다. 부국(富國)과 강병(強兵)을 떼고 생각할 수 없다. ‘울곡사업’으로 불리는 국방예산의 막대한 낭비와 횡령, 권력자 소수의 착복은 울곡을 모욕하는 것이다. 울곡은 정치적 목적이 없었다. 이번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다시 군비 확대를 운운하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 미봉책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지 마라.

소통의 기본은 솔직함이다. 국민에게 솔직해지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가진 이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기대한다. 가진 자들의 의무 이행이 부국강병의 시작임을 잊지 마라. 내 아버지 태종께서는 외척과 권신의 사명을 혁파하고 백성 앞에 정

정당당한 귀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내 치세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내 아내의 친절은 조선을 위해 피바다가 되었다. 하지만 내 아내는 그런 나를 도와 국익을 도모하였다. 그녀의 내조 덕에 나는 우리 민족의 문자,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소통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다시 내가 사랑하는 후손, 지도자들의 초심을 사랑하고 싶다. 그들의 초심은 아름답다. 하지만 그들이 지도자가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야기된다. 선거 과정에서 도와준 이들을 돕겠다는 일념과, 다음 선거에서 승리를 통해 자신의 퇴임 이후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그대들의 시대가 민주주의사회라면 더욱 그렇다. 절대 왕권 시대였던 조선에서도 여론, 민심은 천심이였다. 하물며 그대들의 시대는 더 말할 것이 없다. 초심을 지키고 담대하게 민심을, 여론을 받아들이라. 정치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지 말라. 그대는 진정 눈 먼, 봉사가 되고 싶은 것인가? 이두(吏讀)를 통해 국문(國文)을 만들자고 했던 최만리에게서 나는 많은 힘을 얻었다. 그도 명(明)의 문자인 한자로 우리의 생각과 문화를 표현하는데 무리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성삼문과 신숙주를 여러 나라에 보내 각 나라의 운서를 찾게 한 것도 결국 소통의 보편성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미 우리 글자, 한(漢) 이전에 우리가 수천 년 사용했던 문자를 사용하는데 명(明)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부국과 강병을 위해 과학기술의 진일보가 필요했다. 장영실과 박연처럼 태생적으로 미천했던 이들은 내게 큰 힘이자 짐이었다. 조선의 하늘과 조선의 시간, 그리고 조선의 바다가 모두 필요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어난 것이 조선의 꽃, 바로 조선 문자였다. 그것은 바로 훈민정음(訓民正音)이었다!

소통을 위해 자그마치 500년이 걸렸다. 중국 한족(漢族)의 문자에게서 벗어나는 데 그 만큼의 시간이 필요했다. 아니 2,000년이 걸렸네. 이제 2,500년 전 화려하게 대륙을 지배했던 우리 한인, 한웅, 단군 조선의 문화코드를 되살릴 의무가 그대들, 대한민국과 북한 국민들에게 주어졌다. 한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코드들을 인위적으로 세계화하려 하지 말라. 부국과 강병은 우리의 문화코드들을 세계화하게 할 것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지는 말라. 문화는 반드시 부국과 강병에서만 꽃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부국강병을 이루기 전에 문화대국, 평화통일이 된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사족 하나!

전서공 부안 임공 난수 공의 후손인 [아빠 술 먹어]의 저자 임청수와, 세종시 원주민 모두에게 대의를 위해 멸사봉공의 너그러운 용서와 포용을 부탁한다. 당신들의 할아버지 전서공처럼 그대들은 새로운 세상을 위해 넉넉하고 고집 있는,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것을 믿는다. 아울러 그대들의 희생은 우리 한민족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밑거름이 될 것을 믿는다. 고맙다.

나라말씀이 통하는 나라, 평화통일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뿌듯하다. 함박눈이 내린다. 벌레들이 많이들 얼어 죽겠다. 풍년 소식이 기다려지는 오늘이다. 질게 깔렸던 연기가 조금씩 걷히고 푸른 하늘이 우리 한민족에게 다가올 것을 믿는다.

2012년 2월 4일 입춘(立春)! 함박눈이 내리는 날, 대한민국 수도 서울 어딘가에서 조선 제4대 임금 세종 이도.

“편지로 파란만장한 삶을 소설로 써보는 방송, 편지로 만들어 가는 파란 꿈같은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나에게만 말해봐!’ 역사 속 인물에게 편지 쓰기! 임청수 선생님이 세종대왕에게 보내는 편지 잘 들어 보셨죠? 여러분들께서도 응모해주시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당신중학교 산타가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 문상을 드립니다. 많은 응모바랍니다. 아울러서 선정된 우수작에 대해서는 당신중학교 다음카페에 게재함과 동시에 교지에도 실을 예정입니다. 많은 투고 부탁드립니다. 편지로 파란만장한 삶을 소설로 써보는 방송, 편지로 만들어가는 파란 꿈같은 방송, 편파방송 지금까지 저희는 임청수, 정성만이었습니다.”

임청수는 사무실의 오래된 자료를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회갑 때 썼던 편지를 발견했다. 벌써 10년이 지난 편지는 색이 바래 있었다. 방금 전에 편파방송을 하면서 세종대왕과 증시조 전서공 임난수 공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역사와 만나는 방법을 소개한 후라서 같은 성(姓)을 쓴다는 것이 필연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중략)

사람들이 만든 것? 도구! 그 중에서 물질적 도구, 정신적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그것은 아마도 제사(祭祀)처럼 죽은 다음에 간절히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강요하는 것만큼 집착에 가까운 자기 합리화는 드문 것 같다. 대단히……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것들에게 발목을 잡혀 산다. 그건 명에다. 소의 모가지와 등줄기에 채워서, 코뚜레와 함께 작용하여 거구의 소를 지배하는 도구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도구들에 의해 굴종의 명에를 쓰고 산다.

한 사람이 큰길 한복판에서 허공을 바라본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세 사람이 모여 한 곳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자 사람들이 한두 명씩 관심을 보이면서 모여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모두 함께 세 사람이 보고 있던 한 곳을 바라본다. 이것을 동조현상(同調現狀)이라고 한다. 이것을 사회 현상에 대입을 해보면 재미있다. 앞서의 세 사람은 일반적인 세 사람으로 비유했지만 실체는 평판이 좋은 소수의 사람이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다수가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동조를 통해 축적되고 미화되어 전달된 정보,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보편적 열망의 증거이다. 이처럼 동조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해 이견을 내지 못하게 한다. 소외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교묘하게 작용한 것이다. 그들은 무리를 만든다. 당(黨), 파(派), 족(族), 별(閥). 친(親)과 불친(不親)의 경계를 만든다. 이러한 당파와 족벌을 놓고 경계하는 자가 바로 리더다. 밀고 당기기에 능한 자, 그가 지도자다. 그는 왕이고, 그는 무소불위(無所不爲), 황제인 것이다.

전쟁도 불사하지만 평화를 항상 내세운다. 경찰국가로서의 지위를 지니려고 한다. 그건 영향력이다. 정치만 그런 것은 아니다. 직

장을 포함한 소속 집단은 항상 명예를 씌워서 선택을 강요한다. 리더는 항상 선택을 강요한다. 리더가 원하는 선택에 반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리더는 선택의 순간에 찬반 두 가지를 내놓는다. 하지만 거기에 반대는 존재할 수 없다. 찬성이 있을 뿐이다. 그 찬성 안에 반대가 있다. 반대하지만 반대할 수 없음을 눈물로 감내하면서 찬성하는 척하는 방법밖에 없다. 반대는 퇴출이다. 반대는 쓰디 쓴 패배일 뿐이다.

허균의 호민론(豪民論)처럼 항민(恒民), 원민(怨民), 호민은 언제나 함께 살고 있다. 항민은 반대를 감수하면서 찬성하는 것처럼 살아간다. 대다수의 우리들이다. 여기에 원민은 비공식적으로만 불만을 가지고 있다. 언제나 혼잣말처럼 세상을 욕하고 비판한다. 어찌리까? 술이나 한 잔 하면서, 리더를 안주삼아 씹을 뿐이다. 사표를 던진다, 내일 아침까지만. 나에게는 그저 술기운에 리더를 욕하는 정도다. 호민(豪民)! 이들은 세상의 불만이 무르익기를 기다렸다가 이랑에 올라가 원민을 선동하는 선동가다. 역사 이래에 딱 두 명이 있었다고 한다. 견훤과 궁예! 하지만 오늘날에는 참으로 많은 이들이 자신을 호민이라고 자처한다. 정치를 하는 이들이다. 원민의 불만을 폭발시키고, 원민과 함께 민중 봉기를 불러일으키고 싶어 한다. 그리고 항민을 부추겨서 혁명을 일으키고 싶어 한다. 천우신조(天佑神助)의 기회라며 매 선거 때마다 원민과 항민을 부추기지만 결국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대부분 세 번 이내에서 그들의 정치 생명은 끝이 난다. 미디어의 힘도 결국은 한 번 이상의 정치 혁명을 불러내지 못한다.

김치를 담그고, 삼보일배(三步一拜)를 하면서 민생정치를 표방하

는 근래 정치인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다. 하지만 단 한 번뿐이다. 두 번 이상 호민을 자처하는 자들은 없다. 한 번 기득권을 갖게 되면 호민은 더 이상 호민이 아니다. 정치적 힘을 가진 원민일 뿐이다. 오늘은 월요일이다. 수업을 마치면 집보다는 몇 사람 직장 동료 붙잡아 술자리를 하고 싶다. 하지만 엄처시하(嚴妻侍下)로 돌아가야 한다. 10년 전 편지를 읽고 있는 시간에 엄마는 아버지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 환기되었다. 엄마는 호민이었을까? 아니면 원민이었을까? 이도 저도 아니면 혁명의 날에 동참한 항민이었겠다. 혁명을 꿈꾸는 호민은 결국 혁명의 날을 위해 오늘은 깊은 숲속에서 잠을 자거나 자숙하고 있어야 한다. 나는 오늘 집으로 간다, 아름다운 혁명을 꿈꾸며!

- 임홍수 장편소설 [편파방송] 부분 인용.

가수 이승철, 그의 노래 [Amateur]를 듣는다.

“내세울 것 없는 실수투성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잖아.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 위에 모두 다 같은 Amateur야.”

[소녀시대]의 가수 이승철!

만화가 윤태호 원작 드라마 [미생]의 OST로 널리 알려진 [우린 해낼 수 있다]를 듣는다.

“저 넓은 세상이 항상 두려웠지 우리 아무것도 모른 채 철없이 지냈지 아마 우연히 저 하늘 위에 수많은 별들을 보다 세상 더 살다 보니 알게 된 건 지금과 달라질 우리의 내일…… 우린 해낼 수 있다.”

1986년 그룹 ‘부활’의 객원 싱어로 데뷔한 1980년대 오빠 부대의 원조 가수 이승철! 데뷔 30년 가왕으로 소외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독도와 새터민을 통해 역사를 이야기하는 가수!

2014년 8월 15일 광복절에 독도에서 최초로 통일송 ‘그날에’를 탈북 청소년 합창단 ‘위드 유’와 함께 통일 대한민국을 노래하다가 일본공연을 거부당한 가수, 이승철! 누군가는 말해주길 기다렸던, 누군가는 말했어야 했던 금기(禁忌).

탈북민들과 온전한 독립, 통일. 슈퍼스타 K5 출신의 정원보 작사, 작곡, ‘Frontier’로 인정받는 세계적인 음악가, 재일교포 양방언의 화려한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탄생한 ‘그날에’는 8월 29일 오후 4시 미국 메사추세츠 캠브리지 시에 위치한 하버드 대학교 메모리얼 처치(Memorial Church)에서 ‘그날에’를 위드 유와 함께 자선공연을 펼쳤다.

이어서 미국 뉴욕에 위치한 UN 본부에서 열린 세계 최대 NGO 행사에서 우리 민요 ‘아리랑’을 불렀다. 세계인들, 특히 미국인들은 낯설지만 점점 익숙해지는 대한민국의 노래 ‘아리랑’에 기립 박수를 보내 주었다. 탈북 청소년 합창단 위드 유와 함께 ‘그날에’를 불러 침묵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 세계인들의 감성에 호소했다. 실존하고 있는 탈북 청소년 합창단 위드 유와 가수 이승철은 음악의 힘을 빌어 북한의 인권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실질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내는 위력을 보여주었다.

내겐 꿈이 있어 빛바랜 사진처럼 간직한
먼 훗날 너를 만날 때 들려 줄 내 노래 힘을
(중략)

오랫동안 기다려온 너를 보며 힘들었느냐고
위로해 줄게 우리만의 그 날이 곧 다가 올 거야
힘을 내 그날에 우리 다시 마주보게 될 날에
약속해 서로를 향해 웃어주기로 해 기도해

(중략)

그날 위해 우리만의
그날에 I pray for the day.

하지만 언제나 자신을 Amateur라 낮추는 진정한 Professional,
가왕 이승철의 목소리가 완생(完生)을 꿈꾸는 미생(未生), 우리 청
소년들에게 꿈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다.

준희 : 그러니까 Professional은 한 식경이 못 되어 글의 이치를 알
고 쓰게 되며, 보통사람은 반나절이 못 되어 익히고 쓸 수 있
으며, Amateur는 열흘이면 익혀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닐
까? 히히히!

연주 : 어휴, 그게 그 뜻이냐? 그런데 세종대왕, 세종특별자치시,
호민론, 가수 이승철, 만화가 윤태호! 이 사람들과 이아호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정말 뜬 구름 잡는 것 같아서. 내가
아직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가, 아니면 독서가 부족한 걸까?
예린 : 글썄, 준희가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괜찮은 비유같기도 해.
나만 그런가?

연주 : 그래? ‘Professional은 한 식경이 못 되어 글의 이치를 알고
쓰게 되며, 보통사람은 반나절이 못 되어 익히고 쓸 수 있으

며, Amateur는 열흘이면 익혀 쓸 수 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도 같다. 오, 준희! 요즘 책을 끼고 살더니 정말 생각이 깊어졌나 보다.

준희 : 고마워! 다시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내 생각엔 세종대왕, 세종특별자치시, 호민론, 가수 이승철, 만화가 윤태호! 이 사람들과 이아호 공통점은 누구나 처음엔 Amateur였다는 거징!

연주 : 그럼 호민론은 또 뭐야?

예린 : 요즘 광고에 보면 부장이 자꾸만 스트레스를 주니까, 상의 주머니에서 사직서를 꺼내려는 듯 하잖아. 결국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사직서 대신에 영화 [건축학 개론]의 납득이, 조정석 씨가 정관장 홍삼 에브리타임을 내던지잖아. 완벽하게 처리해 놓겠다고 하면서. 피로회복제로서의 상황반전!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광고에서 하듯이 영화나 드라마, 웹툰을 통해 웃음으로, 때로는 눈물로-카타르시스를 느껴보자는 거 아닐까?

준희 :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화(淨化), 그게 카타르시스징! 나 정말 요즘 독서 많이 했다. 티 많이 나지!

연주 : 그래, 벌써 연타석 홈런은 친 것 같다. 좀 더 생각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해산하자. 나, 영어학원 특강 있어. 안녕!

예린 : 그래, 안녕! 난 지식누리 가서 세종대왕, 세종특별자치시, 호민론, 가수 이승철, 만화가 윤태호에 대해 정보 좀 더 찾아봐야겠다. 잘가!

준희 : 나는 어디로 가나? 나도 지식누리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See you again!

연주 : 아참! 준희야. 지식누리 가면 김진명 장편소설 [글자전쟁] 좀 빌려다 주라. 선생님이 말씀하신 활(弓)과 관련된 추리소설 한번 읽어보게!

준희 : 나도 좀 읽어보기는 했는데 넘 어려워. 중국인들이 한자(漢字)를 한족인 창힐이 만든,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弔)를 사용하던 사람들에게 이 글자를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한다. 근데 중국 한족(漢族)의 수전(水田)을 동이(東夷)족을 포함한 다른 민족들은 답(畓)으로 만들어 쓴다. 고로 한자(漢字)는 중국만의 글자가 아니다, 뭐 이런 논리인데. 정말 어려워! 본족의 죽이 한자라잖아! 그래서 우리가 쓰는 장편소설의 제목이 [가람새-활]이라잖아. 꼭 빌려다 줄게. 짜이찌엔(再見)! 아니, 다시 보자! 한글 사랑, 나라 사랑!

1. 영화 [암살]과 [미션임파서블5-로그네이션]

가람새알



2014 전국학생제 인문체쓰기 우수동아리 교육부장관상 수상

◎ 천호중학교 스토리텔링 동아리 장편소설 가람새-알

강동구청(구청장 이해식)과 함께 2015 좋은중학교만들기 사업 및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정정옥) 선정 2015학생자치활동모델학교 사업을 진행중인 천호중학교(교장 김영숙, 교감 이수형) 방과후학교 2기 스토리텔링 동아리(반장 윤세영, 지도교사 임홍수)는 2015년 7월 24일 금요일 굽은다리역 근처 홈플러스 강동점에 위치한 cgvt천호점에서 1933년 친일파와 가와구치 마모루 대장 암살사건을 다룬 수작을 감상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최근대사를 가볍게, 하지만 무겁고 통렬한 극의 전개에 몰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액션 르와르와 로맨스, 역사와 현대의 조우가 돋보였고 단순해 보이지만 권선징악적 결말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계기교육과 역사교육, 문학과 스마트 융합교육의 모범이 되었다.

이번 천호중학교 2기 스토리텔링반의 영화감상은 그들이 기획한 옴니버스식 장편소설 [가람새-활]을 집필하기 위한 한 단계로서 학생들에게 역사의 행간을 읽고 이를 현대의 디지털 테크닉과 스마트한 가설을 다양한 앱을 활용할 수 있는 열린 창의력의 시발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영화 감상후활동은 주말 포함한 나흘간의 자체 방학동안 학생들은 역사와의 소통을 위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독서와 체험을 마치고 7월 29일 수요일에 모여 영화 [암살]을 재구성, 재편집 등 마인드맵과 짧은 비평의 시간을 가졌다. 총8페이지의 학습지는 영화 [암살]에 대한 만평, '암울했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 등으로 재구성하기와 영화 포스터 보고 멘트 작문 해보기, 두 개의 체험

활동 사진 비교해서 다른 그림 찾기, 영화 선정 이유 유추하기 등의 감상후활동을 하였다.

다음 날인 내일은 영화의 결말에 대한 자기 논리를 1,500자 내외로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스토리텔링이 가지는 무궁무진한 창의력은 사소한 재구성에서 시작한다는 사제동행의 믿음과 실천, 그 아름다운 동행이 살갑다.

암울했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유감. 영화 [암살] 감상후 활동 학생 작품 속에서 천호중학교 방과후학교 제2기 스토리텔링반의 센스 있고 푹푹한 촌철살인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이라서 서툴지만 그래서 오히려 어른들과 선배들이 볼 수 없는 부분을 참신한 눈으로 바라본다. 해서 의미 있다. 하여 그 앞날이 기대된다.

암살(暗殺), 암울했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



암살(暗殺), _____!

1. 영화 [암살(暗殺)]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숨은 그림 찾기 : 가와 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



나.



3. 영화 **[암살(暗殺)]**의 결말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1500자 내외)

4. 메인 포스터 속 인물들의 멘트 패러디 해보기!



5. 영화 속 인물들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광복에 대한 생각 서술해 보기!

영화 **암살**(暗殺), 내 마음대로 다행시 쓰기

암살(暗殺), _____

대
한
민
국



톰 크루즈 주연 영화 [미션임파서블—로그네이션]을 감상하기 위한 감상전환동이 시작되었다. 세대를 관통할 수 있을까? 우려보다 기대가 앞선다.

천호중학교 방과후학교 2기 스토리텔링반의 영화로 읽는 이야기 세상2 [미션임파서블5-로그네이션]. 영화를 통해 스토리를 구성하여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그 이야기를 다양하고 생동감있게 텔링하는 기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세상이라는 현실을 익혀가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이 수업의 포인트다. 하나의 영화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리즈 형식으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간, 땀과 인내, 선택과 집중에 이어서 시행착오를 아깝게 여기지 않은 과정을 배우고 결과를 분석하는 지루하고 힘겨운 시간을 배워보자는 것이 핵심이다.

1996년 35세 톰 크루즈의 [미션임파서블1]으로 첩보영화의 새로운 장르를 구가했다. 그로부터 햇수로 20년 54세의 톰 크루즈는 2, 3, 4편의 신기술을 넘어 신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수식어를 매 편마다 들고 나왔고, 관객과 평단은 우려의 눈길을 보내왔지만 그때마다 톰크루즈는 잘생긴 오빠, 창조적 형에서 진화해 술개처럼 발톱과 부리를 부수어버리고 재생의 고통의 시간을 극복하고 우리 곁에 오고는 했지만 이제 60세를 바라보는 그의 미션임파서블5는 설마로 시작했다.

‘미국정부로부터 해체 통보를 받게 된 최첨단 첩보기관 IMF(Impossible Mission Force)’, ‘에단 헌트(톰 크루즈)’를 포함한 팀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정체불명의 테러조직 ‘신디케이트’는 IMF 전멸 작전을 펼친다. 신디케이트에게 납치당한

‘에단 헌트’는 의문의 여인 ‘일사(레베카 퍼거슨)’의 도움을 받아 극적 탈출에 성공하고 다시 팀원들을 불러 모은다. 리더 ‘에단 헌트’부터 전략 분석요원 ‘브랜트(제레미 레너)’, IT 전문요원 ‘벤지(사이먼 페그)’, 해킹 전문요원 ‘루터(빙 라메스)’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일사’까지. 다시 모인 그들은 역대 가장 위협적인 적 신디케이트에 맞서는 불가능한 미션을 펼친다!’는 영화 소개 줄거리다. 하지만 왜 이 영화가 미션임파서블이 아닌 im possible이 되는가는 직접 보고 이야기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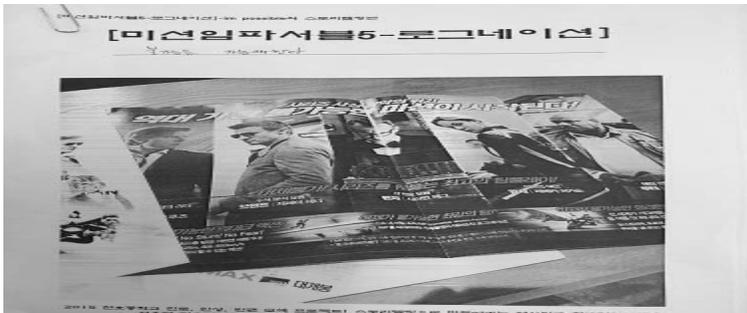
영화가 끝나고 스토리텔링반 학생들에게 미션을 부여한다. 8월10일 월요일에 다시 만날 때는 이제는 고전이 된 [미션임파서블]을 감상하고 오라고, 가볍게. 우리 천호중학교 스토리텔링반 학생들의 짧지만 알찬 10일간의 사색의 시간을 기대하는 흐뭇한 불금 오전이다.

Impossible is nothing!

우리 학생들에게 불가능, 그건 아무 것도 아니다.

I'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54세 톰 크루즈를 보는 어른들의 풋풋하고 활기찬 도전이 기대되는 이유다.



미션형과제물-포그네이션-in possible 스토리텔링

2. 좋은 그림 찾기 : 차와 나의 사이집은 무엇일까요?
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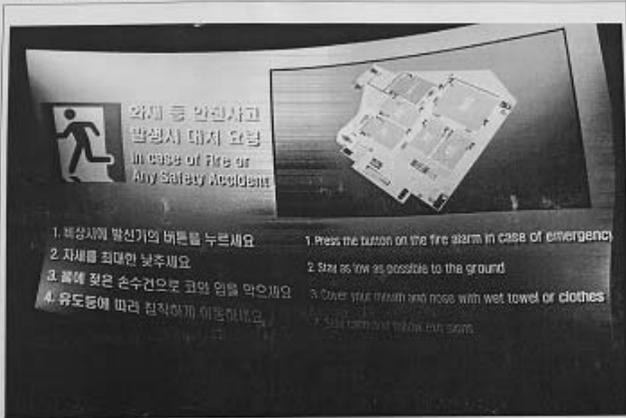


생방송의 포그 (나쁜 뉴스 생방송)	시간의 발기.	⑤가 가장 빠른 눈과 가장 느린 눈이다.
비 포그 (비가 내릴 땐)	임상환의 (나쁜 뉴스 생방송)	⑥의 포그.
임상환의 포그 (나쁜 뉴스 생방송)	①의 시간.	⑥의 시간
백운의 포그 (나쁜 뉴스 생방송)	②의 포그.	①의 키
현모감.	③의 포그	⑤의 포그

2015 한호중학교 진흥, 인성, 인건 교육 목표에 따라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가는 전시인과 현대인의 이야기
4. 서울형 자유학기제는 미래수업과 고개 좋은 우리교육 만들어가는 진보중학교

[미션실마서툰5-보그네이션-1-in possible! 스토리텔링방안

4. 다음은 'CGV'의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가정하여, 미래 사건의 문구를 채워달라 하러 대처방법을 기술하십시오.



<힘들고 지칠때 대처 표정>

1. 힘이 들고 지칠때에는 잠깐 쉬어주세요.
2. 생각을 바꾸고 바쁜 삶에서는 쉬었던 취미생활을 즐겨주세요.
3.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4. 친구 또는 가족, 주변사람들에게 고민상담을 요청하세요.
5. 소리를 지면서 스트레스를 날려주세요.

2015 전호주학교 진로, 인성, 인력 교육 프로젝트!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가는 신사인과 현대인의 대화!
서울형 자유학기제로 1학년수업과 함께 두는 정학교과를 만들어가는 전호주학교

안전! I'm possible!

2. 연재가 들려주는 [도림과 바둑이야기]

가람새알



2014 전국학생제 인문체쓰기 우수동아리 교육부장관상 수상

◎ 천호중학교 스토리텔링 동아리 장편소설 가람새-알

나는 이아호야. 이름은 도경수. 그냥 디오라고 부르기도 해. 나는 도림의 지혜로 고구려가 백제를 넘어 남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도림이 언제부터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인식이 생겼는지. 하지만 그건 모두 거짓말이야.

아마 도림이 고구려가 백제군을 물리치게 하는 것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가 생긴 것 같아. 하지만 그 실상을 달랐어. 도림은 사람들의 생각보다 영악했거든. 그러니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지혜롭고 슬기로운 도림의 얘기에는 반전이 숨어 있다는 거야. 진짜 이야기는 도림의 어렸을 적 친구와 함께 시작되었지.

도림은 동자스님이었어. 그리고, 도림의 친구였던 혜승이 있었지. 혜승 역시 동자스님이었어. 혜승이는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손놀림으로 아기동자 사이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를 주름잡는 알까기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 그런 혜승을 따라서 도림도 알까기를 자주 했었고, 실력도 중간 이상이었어. 하지만, 혜승을 따라오기에는 역부족이었지. 혜승의 알까기 실력을 잘 보여줄 에피소드를 말해줄게.

처음 혜승과 도림이 알까기를 하였을 때, 도림이 자꾸만 패하게 되니 기분이 나빠 혜승과 알까기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었어. 그렇게 도림이 혜승에게 파업을 했지만 혜승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 혜승 역시 이변 없이 계속되는 승리에 슬슬 지루해지던 참이었거든. 또한 도림이 일주일정도 뒤면 다시 혜승을 찾아와 다시 대결을 하자고 할 것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기 때문이야. 오! 혜승의 예상은 틀림없이 맞았었어. 정확히 일주일이지난 뒤 이틀이 되는 날

도림이 혜승을 찾아왔거든. 다시 알까기를 하자는 도림의 말에 혜승은 잠시의 기다림도 없이 수락했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도림이 혜승을 이기는 아주 놀라운 결과가 생겼어. 도림은 얼마나 신났는지 그 자리에서 별떡 일어나 방방 뛰었어. 도림은 9일 동안 방안에서 알까기만 했었거든.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기분에 도림은 달 끝까지 달려갈 기분이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림의 승리는 혜승이 만들어준 것이었지. 혜승이 나빠 보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도림이 혜승에게 할 행동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과라고! 혜승은 그 지나쁜 친구는 아닌 것 같아 생각하여 도림과 우정을 잇기 위해 한 행동이었을 뿐이야. 아무튼 혜승은 승패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알까기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

아무튼 이 에피소드 이후로 도림과 혜승은 같은 절에 같이 지내면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없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 그렇게 도림과 혜승은 할 일을 끝내고 시간이 남을 때면 알까기를 즐겨 했어. 그러던 중 혜승은 알까기대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혜승은 고구려를 휩쓸며 초등알까기대회, 중등알까기대회, 고등알까기대회, 절에서 기획한 알까기대회의 9회부터 12회까지 씩씩이를 하면서 프로알까기 선수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어. 프로알까기 선수가 되려면 알까기 자격증 초급, 중급, 상급 그리고 프로까지 모두 따야해. 하지만 혜승은 이미 시간이 늦어서 최고기록을 세워서 가산점을 받아서 프로알까기 선수가 되려고 해. 최고기록의 기준은 1시간 동안 알까기를 해서 넓은 판에 있는 바둑알을 모두 없애고 바둑알의 개수를 적게 써서 판에 있는 바둑알을 없앨수록 가산점을

받게 되는 내용이야. 이 최고기록은 한번 도전하면 6년 동안 참가를 못해. 자격증 초급, 중급, 상급 그리고 프로를 따는 시간과 맞먹지. 이때 방해꾼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아. 하지만 도림이 방해할 안 할 리가 없지. 혜승이 대회를 싹쓸이 할 동안 계속 2등 또는 3등만 계속하던 도림은 최고기록을 세울 대회에서 방해할 하기로 결심해. 도림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최고기록 세우는 관계 회사인 '암넷'에 돈을 주고 경기를 방해할 하려해. '암넷'은 예전부터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회사로 유명했기에 도림에게 돈을 받고 혜승이 기록을 못 세우도록 해.

드디어 결전의 날! 도림이 수를 써놓은 것도 모르고 의기양양하게 시험을 치러 갔었어. 암넷은 미리 도림이 준비한 돈으로 바둑판이 조금씩 돌아가게 한다든지, 바둑알을 많이 준비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최고기록 세우는 것을 막았어. 불쌍한 혜승은 이런 줄도 모르고 최고기록을 세우는 것에 실패하고 좌절하게 돼. 그래서 결국에 프로알까지 선수가 되기 위해 6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 그동안 도림은 암넷과 조작을 해서 도림은 프로알까지 선수가 되었어. 그래도 혜승은 도림을 시기질투하지 않고 응원을 해주지. 그렇게 도림은 조작을 통해서 유명한 프로알까지 선수가 되고 혜승은 조금은 늦지만 프로알까지 선수가 되기 위해 엄청 노력을 하지.

그러던 어느 날에 도림이 암넷에 돈을 주고 조작을 한 것을 아는 '엠네'라는 회사가 찾아와. 도림은 할 수 없이 '엠네'의 입을 막기 위해 돈을 쥐. 그러자 또 다른 회사에서 연락이 오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락이 오자, 도림은 정신이 없었어. 이렇게 도림이 정

신없는 사이에 혜승은 프로알까기 선수를 준비하면서 나랏일을 조금 알게 돼. 고구려가 남쪽으로 가는데 백제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이야. 혜승은 백제에 개로왕의 소문난 알까기 사랑을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을 생각하며 장수왕에게 편지를 써.

장수태왕 폐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로알까기 선수가 되기 위해 초급, 중급, 상급 자격증을 가지고 프로 자격증에 도전하는 혜승이라고 합니다. 요즘 장수왕께서 남쪽으로 가려 하시는데 백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듯합니다. 백제의 개로왕은 한 가지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는지요? 그것은 바로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지요, 놀이 중에서도 알까기를 제일 좋아하는데 알까기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다른 일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백제에 들어가서 바둑으로 개로왕의 신임을 얻어 목적을 달성하는데 돕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알까기에 뛰어난 재주가 있었습니다. 초등알까기 대회, 중등알까기 대회, 고등알까기 대회, 절에서 주최한 알까기 대회 9회부터 12회까지 모두 휩쓸었습니다. 저를 충분히 믿어도 될 것 입니다. 부디 제가 개로왕의 신임을 얻어 고구려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 혜승 올림

그러나 혜승은 알까기 기숙 학원을 등록해서 나올 수가 없는 상

황이었어. 그래서 이 편지를 도림한테 부탁하기로 결심해. 자신이 프로알까지 선수가 되지 못하게 한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야. 이 편지를 전해 받은 도림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혜승이 쓴 편지를 토대로 다시 편지를 쓰고 당장 장수왕에게 전달하러 가. 혜승의 편지는 구석에 쑤셔놓고 말이야. 도림이 보낸 편지를 받은 장수왕은 당장 도림을 백제로 보내. 혹여나 혜승이 알게 될까봐 혜승의 알까지 기숙 학원에 가서 "혜승아! 나는 오랫동안 여행을 갈 것 같아. 편지는 잘 전해 드렸고, 혹시 내가 여행을 간 동안 답이 올까봐 여기 기숙 학원으로 답을 보내 달라고 전해드렸어. 근데 장수왕이 조금 바빠서 빨리 답 못 받을 수도 있을 거 같아. 그럼 나는 여행 갔다가 올께." 라며 혜승을 안심시켜. 정말 치밀하지 않나? 그렇게 도림은 백제로 향한 여정을 출발해.

도림은 고구려에서 죄를 지어 백제로 도망쳐 온 것같이 연기를 해. 그래서 백제 사람들은 도림이 알까지를 너무 좋아해서 알까지 사업을 하려고 나라에 돈을 빌렸다가 그 돈을 갚지 못해 도망쳐 온 도망자로 알고 있어. 그 얘기가 개로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는데 개로왕은 놀이라면, 알까지라면 사족을 못 쓰는 것 알고 있지? 개로왕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도림을 궁으로 초대해. 도림과 개로왕은 이런 저런 얘기도 하면서 알까지를 하게 돼. 아무리 도림이 조장으로 프로알까지 선수가 되었다지만 실력은 좋았던 것 알고 있지? 도림은 개로왕과 저주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면서 개로왕을 쥐락펴락했어. 그렇게 개로왕과 도림은 거~의 소울메이트급으로 친해졌지. 이제 슬슬 도림도 백제에 온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했지. 도림은 개로왕에게 토목공사를 권유했어.

"백제는 산과 강,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이웃 나라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는 하늘도 대왕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대왕의 위엄이 더욱 빛나도록 성곽을 높이 세우고, 화려한 궁궐도 지으시고 선왕의 무덤을 새로 만들어 위엄이 과거에서 미래까지 영원하도록 하옵소서."

라고 말했다. 감언이설이라고 개로왕도 도림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백제를 칭송하니 공사를하기로 결심해. 하지만 잘못된 방향의 토목공사는 자칫 국가 전체의 위협으로 내몰 수 있어. 특히 국방이니 백성의 삶에 큰 상관이 없는 왕궁의 확장이나, 선왕묘의 대대적인 확장 개보수, 한반도에서 가장 큰 강인 한강에의 제방 쌓기와 같은 토목공사는 백제 왕권의 힘을 급속히 소진시키는 일이지. 하지만 알짜기에 눈 먼 개로왕은 도림을 너무 신임한 나머지 도림의 말을 전부 믿고 말았어. 개로왕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백제의 국력을 총동원하여 대대적인 공사를 시작했어.

계속되는 공사와 무리한 세금으로 백성들은 나날이 궁핍해지고 군사력은 허술해지기 시작하였어. 하지만 개로왕에게 이런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은 들리지 않았었어. 나머지 신하들은 무엇을 했냐고? 안타깝게도 개로왕의 곁에는 아첨하는 신하들로 가득했어. 아첨하는 신하들이 옆에서 개로왕의 귀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들을 수 없었어. 도림은 자신의 임무가 거의 완수되었다고 생각하고 고구려로 도망쳐 백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장수왕에게 보고했어. 소식을 들은 장수왕은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백제로 쳐들어갔어. 갑작스런 고구려의 대규모 공격에 놀란 개로왕은 급히 군사들을 소집하였지만 성을 쌓느라 지친 백성들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지.

개로왕은 자신의 아들인 문주왕을 피신시키고 고구려 군대와 맞서 싸웠지만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어. 결국 개로왕은 고구려 군대에 생포되어 비참하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도림은 장수왕의 무한한 신임을 얻게 되었어. 그런데 누군가 잊은 것 같지 않니? 혜승은 어떻게 되었을까? 혜승은 도림이 백제를 간 뒤 한참이 지나서야 프로알까기 선수가 되어 알까기 기숙 학원을 나올 수 있었어. 혜승이 알까기 기숙 학원을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무엇일까? 바로 장수왕에게 보냈던 편지야. 혜승은 왕궁에 가서 자신이 보낸 편지의 답장을 찾아. 하지만 혜승이 보낸 편지의 답장은 나올 리가 없지. 처음부터 도림이 전달을 안 해주었는데 어떻게 답장이 나오겠어. 모든 것을 알게 된 혜승은 당장 장수왕에게 편지를 쓰려고 돌아가.

장수태왕 폐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로알까기 선수가 되어 초급, 중급, 상급 그리고 프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혜승이라고 합니다. 전에 도림이라는 자가 보낸 편지를 보셨을 겁니다. 아마 개로왕의 신임을 얻어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적었을 것입니다. 아니 적혀 있을 겁니다. 그 편지는 도림이라는 자가 아닌 제가 쓴 편지입니다. 도림이 언제 백제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도림 대신 제가 가서 개로왕을 쫓아내겠습니다.

- 혜승 올림

하지만, 이미 도림이 개로왕의 신임을 얻은 뒤였어. 백제의 백성들이 힘들게 공사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 그래서 혜승이 이 편지를 장수왕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을 때에는 모두 끝난 뒤였어. 한마디로 도림이랑 혜승이랑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지. 가엾은 혜승은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이 감정을 누구에게 호소하겠니.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등짝을 퍽퍽 때리시고, “그래서 부모님 말씀대로 알까기를 멈춰야지! 프로알까기 선수가 되어서 나라를 빛내? 어이구!” 하시면서 혜승을 구박하실텐데. 불쌍한 혜승. 이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나. 하고 고민에 빠졌어. 그래서 혜승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도 잘 몰라. 화병으로 쓰러졌을지도 모르지ㅋㅋ

그렇게 도림은 고구려를 빛낸 슬기롭고 지혜로운 스님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어. 사실은 한 사람의 일생을 날아가게 한 못된 스님인걸. 아쉽지만 이 이야기는 역사 속 어느 곳에도 없어. 오직 나! 도경수만 알고 있지. 하지만 내가 알려줬으니깐 [가람 새-활]을 읽은 친구들은 모두 알겠지? 모두 퍼뜨려줘. 도림은 조각쟁이야! 하고 말이야.

3. 조각보1

가람새알



2014 전국학생제 인문체쓰기 우수동아리 교육부장관상 수상

◎ 천호중학교 스토리텔링 동아리 장편소설 가람새-알

3-0-1. 장대훈의 전생(前生)

2015년 말은 살피고 하늘은 높아만 가는, 시원한 가을날에 1학년 3반 학생들이 한참 역사 공부를 하고 있었다.

말썹꾸러기 민수가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투덜거리며 말했다.

“선생님 놀기 좋은 계절 가을인데 운동장에서 놀아요.”

그러자 반 아이들이 “밖에서 놀아요!”, “공부하기 싫어요!” 등 여러 말로 불평했다.

그러자 그 반의 담임인 김동성 선생님이 말하였다.

“그럼 선생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까?”

그러자 아이들은 ‘네’ 라고 한 아이들도 있었고, ‘싫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선생님은 반 분위기를 바로잡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에 스님인 도림과 백재의 왕인 동성왕이 있었는데…….”

동성왕과 고구려의 스파이 도림이 장기를 두고 있었다.

동성왕 : 도림, 그대는 장기를 매우 잘 두는구려.

도림 :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동성왕 : 음…… 도림, 장군이요.

도림 : 하…… 하……. 전하, 명군입니다.

동성왕 : 호……. 또다시 장군이요.

도림 : 이것, 보라……. 항복입니다.

동성왕 : 매우 재미있었소. 한 판 더하지 않겠소?

도림 : 그럼 한 판 더 두시지요.

동성왕과 도림이 한창 장기를 두고 있을 때 왕이 술을 마시고는,

동성왕 : 도림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길 하나해줄까요?

도림 : 재미있는 이야기라 한 번 들어보죠.

동성왕 : 우리 백제가 고구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동성왕은 도림에게 고구려를 막을 군사작전을 말한다.

동성왕 : …… 이런데 그대의 생각은 어떻게?

도림 : 재미있군요. 하지만 이곳에는…….

도림이 고구려에게 이득이 되도록 군사작전을 계획한다.

도림 : 고구려는 이렇게 막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동성왕 : ‘음…… 생각보다 득이 되는 전략은 아닌 것 같으나 고구려에 대해 알 수 없으니 괜찮은 전략이라 보이는군!’ 여봐라 김장군을 부르거라.

김장군 : 전하, 어인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동성왕 : 김장군, 군사를 이렇게 배치하시오.(김장군이 반박하려 하자) 토는 달지 말고, 어명이오!

김장군은 한 마디도 못하고 왕에게 예를 표하고 돌아갔다.

도림과 동성왕은 한창 장기를 두고 있다가……

도림 : 허, 허, 허! 전하, 장군이옵니다.

동성왕 : 음…… 이보게 도림 한 수만 물려줄 수 없나?

도림 : 그건 안 되지요. 저도 승부에선 물려설 수 없습니다.

동성왕 : 음…… 이것 보게! 어떤 것을 원하길 그러는 것이냐?

도림 : 또 재미있는 이야기나 하나 해주시지요.

동성왕 : 자네는 중이면서 군에 관심이 많구려.

도림 : 한 나라의 안부인 것을 이 보잘 것 없는 중이 도움이 된다
면 조금이라도 보태야하지 않겠습니까?

동성왕 : 음…… 여봐라, 술상을 대령하라.

시녀가 술을 가져오고 동성왕이 그것을 마신 후.

동성왕 : ㄷㄷ…… 술이 어찌하여 이런 맛이 나느냐!!! 이 술을 보
관한 자의 목을 당장 치거라!

도림 : ‘동성왕은 적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군. 백성의 원망이 심
히 크겠어.’

도림 : 전하! 이 증은 그만 가보겠습니다.

동성왕 : 그래, 어서 가보시오.

도림이 성을 떠난 후 고구려로 가 내용을 들려주고 그 다음날 고
구려는 백제를 공격했다. 그 후에 동명왕은 큰 실수를 한 것을 알고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야기가 끝이 나자 아이들 중 몇 명은 자고 있었고 몇 명은 친구
들과 장난 치고 있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웃으면서 숙제 하날
내주었다.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은 간단한 소설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적어 오세요. 분량은 A4용지 1페이지 이상으로 수
행평가이니까, 친구 베끼지 말고. 베끼면 보여준 사람과 본사람
모두 빵점 처리 할 거예요. 축구부랑 육상부들은 힘들다고 안하
면 안 돼요!”

이 말이 끝나자 축구부와 육상부 아이들은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선생님은 단호하게 ‘안돼!’ 라고 하셨다. 그날 집으로 가던 준영이
와 윤서는 숙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우리반 쌤, 너무하네!! 뭘 놈의 소설가도 아닌데 소설을 쓰래!!! 안 들었는데 망했다.”

그러자 윤서가 말했다.

“지랄하네. 니가 수업시간에 처자면서 뭘 기대하냐? 니가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수업시간에 졸린 거야!! 작작 좀 먹어!!”

그러자 상처받은 준영이는 짜증을 내며 말했다.

“나는 키에 비하면 정상이라고!”

그러자 윤서는 배를 잡고 웃으며

“그래 그렇지, 뭐~~ 뭐, 그럴 수도 있지. ㅋㅋㅋㅋ”

“뭐????? 야! 너 일로 와봐!! 이 자식이 죽으려고!!”

“ㅋㅋㅋ 그럼 잡아보시던가~~”

윤서랑 준영이에게 ‘도망자’ 영화를 재구성하다가 집으로 갔다. 땀을 흠뻑 흘린 준영이는 곧바로 목욕을 하고나서 잠자리에 들었다. 준영이는 바로 잠이 들고 나서 꿈을 꾸었다.

그 꿈은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와 많이 닮았다.

준영이는 꿈에서 자신을 보니 스님 복장이었다.

누군가 : 도림, 그대의 임무는 잘 알아들었지?

준영 : 그랬사옵니다, 염려 마시지요.

준영이는 자신이 생각하지도 않은 촌스런 사극 말투가 나와 어리둥절했다. 준영이는 그 후에 그 꿈 내용을 숙제에 옮겨 썼다.

준영이는 숙제를 선생님에게 낸 후 자리로 돌아왔다.

선생님은 준영이가 제출한 숙제를 보더니 아이들을 집중시키고는.

“제목이 ‘도림의 마지막 대화’인 친구는 누구 인가요?”

준영이는 자신이 제출한 것과 제목이 똑같아서 일어났다.

“음…… 준영이구나 쉬는 시간에 잠깐 따라오겠니?”

준영이는 어리둥절하였지만 선생님 말씀이라 따라 가기로 했다. 쉬는 시간에 준영이는 선생님을 따라갔다. 하지만 그곳은 학교에 있을법한 장소가 아니었다. 준영이는 당황하며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다.

“선…… 선생님! 이…… 이곳은 어디 인가요? 학……학교가 아닌 것 같아요. 꼭 사…… 사람이 죽은 곳같이 무서워요.”

그러자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럼 이곳은 사람이 죽은 곳이란단다. 아니 곧, 사람이 죽을 곳인가?”

선생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자 준영이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선생님은 더 빠르게 다가 왔다.

“이런, 이런 도망가면 안 되지……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려 왔는데!”

준영이는 무서워서 더 빠르게 뒤로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얼마 안가 그것도 못하게 되었다. 뒤에 있는 벽은 생각보다 단단하지 않았지만 벽을 부수려면 선생님이 눈치 챌 수밖에 없었다.

“왜 나를 죽이려 하는 거죠??”

“왜냐고?? 하… 하… 하… 나는 백재 동성왕이야. 어때 기억 없나? 도림?”

도림? 동성왕? 준영이는 필사적으로 생각해 내고 있었다. 그때 준영이의 뇌리에는 선생님의 이야기가 생각났다.

“동성왕은 백재의 왕이고 도림은 고구려의 스파이! 선생님 설마?

아니, 당신은 동성왕이야?”

“동성왕.... 그래 지금 기억이 나나? 너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나 난 죽었어!! 내가 오늘 널 내손으로 죽이고 말 거야. 흐흐흐, 하 하하하. 내가 널 죽이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죽일까? 음 역시 내 손으로 직접 죽이는 게 최고지..... 자, 어서 이리 오렴??”

“당신은 날 못 죽여. 절대로!”

그 소리와 함께 벽이 무너졌다. 준영이는 다치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선생님은 준영이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때마침 경비가 달려왔다

“이봐! 당신, 지금 뭐하는 거야!”

“이런 쟁쟁할..... 넌 운이 아주 좋은 녀석이구나?”

달려오던 경비가 동성왕을 앞에서 막아서며,

“이봐! 당신, 지금 학생에게 뭐하는 짓이야!!”

“도림, 나중에는 기회가 없을 것이야.”

선생님은 그 말과 함께 경비에게 잡혀 갔다.

대훈이는 자신의 글에 상당히 만족한 듯했다. 비문과 비문법적인 부분은 차치하고, 고구려의 공격을 쿠데타로 바꾸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부족한 글은 소설도 아니었지만 도전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대훈이가 환타지와 다양한 글들을 읽고 있기에 현재의 문장력은 점점 나아지리라는 기대로 세심한 첨삭보다는 장점을 부각시켜주기로 했다. 미약한 시작이었지만 장대한 끝을 향한 작은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

3-1-1. 김재희의 [병자호란]

지금 우리 백성들은 모두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청나라가 베푼 은혜를 저버리고, 영창대군 사살과 인목대비폐위, 갑금을 이유로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광해군이 군으로 강등된 채 쫓겨났다는 이유로 청나라가 조선에 쳐들어 왔다. 조선 백성들이 이번 병자호란 때문에 청나라 군사들에게 잡혀가고 있고, 나는 지금 세자와 함께 남한산성에 피신을 와있고, 신하들은 강화도에 피신과 있다고 했다. 청나라 군사들을 막고 있지만 식량과 무기가 많이 부족해서 힘들어 하고 지쳐 있는 도중에 완전히 포위되고 있다고 한다.

점점 시간이 오래되자 청나라의 군사들이 강화도와 남한산성에서 포위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한산성에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안개가 끼더니 하늘에서 ‘이아호’ 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곳에서는 조선의 왕, 인조와 그의 아들 소현세자가 청나라 군사들을 피해서 있었다. 그런데 이아호가 인조에게 점점 청나라가 포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인조와 소현세자를 이끌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 그곳에는 청나라 군사들을 막고 있던 관찰사, 신하들이 다 모여 있었다. 하지만 조선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았다.

인조는 이아호와 상의를 해서 모두 다 같이 백성들을 구하기로 하였다. 다치거나 아픈 신하나 관찰사 등이 성을 지키고 이아호와 인조, 조정의 신하들과 관찰사들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다.

하루 정도를 걷다보니 물과 식량이 부족해서 많이 지치고 힘들어

하였다. 모두 같이 힘을 내고 격려를 해서 한 신하가 청나라 군사들이 백성들을 끌고 간 장소를 알아냈다고 해서 그 장소를 향해 다시 힘을 내서 갔다. 출발한 지 이틀째에 늦은 저녁시간에야 그곳에 도착을 했다. 해가 뜨기 전에 백성들을 구하러 이아호와 인조는 그 비밀장소를 쳐들어가기로 했다. 비밀장소에 쳐들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백성들을 살펴보았는데 거의 물도 못 마시고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자포자기하고 정말 힘들어 하고 여러 가지 백성들의 표정을 보았다.

청나라에 쳐들어가게 되었다. 들어가기 전에 청나라 군사들이 문을 지키고 있었지만 많이 힘들고 지쳤는지 꾸벅 꾸벅 졸고 있었다. 그 틈을 타서 이아호와 군사들은 청나라의 비밀 장소로 들어갔다. 백성들은 기지 밖에서 자고 있었고 청나라 군사들은 기지를 지키고 있었다. 이아호는 청나라 군사들을 물리치고 백성들은 신하들과 관찰사들이 같이 가기로 했지만 많은 군사력 때문에 조선이 많이 밀리고 있었는데 식량이 부족 했는지 모두 힘이 없어서 더욱더 힘들어 했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도와주었는데 점점 하나둘씩 죽어가더니 마지막까지 이아호가 살아있었는데 칼에 맞아서 죽고 말았다.

이아호가 죽자마자 하늘에서 처음에 이아호가 내려왔듯이 하늘이 천둥이 치는 듯이 우르르쿵쿵 하고 거대한 소리와 뿌옇게 안개가 끼어서 앞을 보지 못했다. 안개가 없어지고 나니 이아호는 없어지고 백성들과 죽은 신하들 밖에 없었다. 살아있는 백성들과 성에 들어가 있었는데 청나라 군사들이 조선의 성을 포위하고 점점 포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청나라가 점점, 점점 더 포위해가서 나중에는 청나라가 조선의

성 앞까지 오게 되었다. 인조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 준 후 청나라 왕에게 세 번 절을 하고 머리를 땅에 아홉 번 짚어서 머리에 피가 솟구쳤다고 한다.

재희의 글은 [임진록(壬辰錄)]과 [박씨전(朴氏傳)]의 형식과 내용을 부분적으로 재구성하기는 했지만 결말은 결국 당대의 역사적 현실로 돌아와 있었다. 임진왜란(壬辰倭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이라는 현실적인 패배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양난(兩難)에서 사명당과 박씨 등의 비현실적인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 대리만족과 함께 아픈 현실의 극복을 갈구했던 이야기들을 수용한 것만 해도 중학교 1학년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경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다. 재희가 만들어갈 마당극동아리의 탄탄한 구성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3-1-2 백승재의 [3.1운동]

으아아악!!!

어디선가 내 살이 타는 냄새가 났다.

잔인한 고문이 끝나고 나는 어둡고 차가운 독방에 갇히게 되었다.

나에게는 죄가 없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끝없이 계속되는 고문과 차가운 독방에서의 며칠은 내가 그 이유를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겨울의 추위가 다 가지지 않은 어느 토요일이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밖이 시끄러웠는데,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서 있었다. 난 너무 놀라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 순사들에게 들키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그러자 한 여자가 말했다.

“당신은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모르나요? 오늘은 저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의 독립의지를 보여주는 날입니다. 당신도 태극기를 들고 참여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난 너무 놀라서 걱정되는 마음에 말했다.

“잡혀가면 어떡해하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런 걸,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당돌함 앞에 할 말이 없었다.

난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하루하루가 먹고살기 힘들었고 독립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공부조차 제대로 한 적이 없었기에 왕이 누가 되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나라를 뺏기든 상관 없었다. 난, 나만 잘 먹고 살 수만 있다면 그걸로 족한 가난한 촌놈이었다. 그러다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났다. 내가 이런 독립운동을 해서 잡혀가면 가난하고 연세 많은 부모님은 홀로 남겨지실 것이다. 그래서 난 빨리 도망가려고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은 탓에 빠져 나가기 힘들었다.

갑자기 어디선가 어떤 사람이 연설 같은 것을 하는가 싶더니 ‘대한 독립 만세!’ 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것이 점점 커졌다. 난 조금

두려워졌고 어떻게든 빠져 나가려고 노력했다. 그 순간 앞쪽에서 총소리가 들리고 비명소리와 함께 함성 소리도 같이 커졌다. 사람들이 점점 뒤로 밀렸고, 난 계속 뒤로 도망쳤다. 경찰들이 코앞에 있었고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몸을 뒤로 돌리는 순간, 곤봉이 내 머리를 내리쳤다. 그러고는 정신이 아득해 졌다.

나의 그 다음 기억은 어두컴컴한 방에서 시작된다.

어떤 목소리들이 나에게 “왜 독립운동에 참여 했나?”

라고 묻는다. 나는 담담히 말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왔습니다!”

라고 울부짖었다 나는 무섭고 정말로 아무 것도 몰랐다.

어쩔 수 없군. 그래 주동자가 누군지 알려준다면, 내가 거“웃기지 마라,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 왔다니 말이 되냐? 진실을 말한다면 순순히 풀어줄 테니 빨리 말해!”

“전 아무 것도 모릅니다. 전 그 광장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갈 수 가 없었습니다. 전 정말 결백합니다.”

“끝까지 발뺌한다니 거짓말 한 것까지 다 없던 일로 하고, 널 풀어주는 것은 물론 많은 양의 돈, 명예 그리고 일본 본토에서 살 기회를 주겠다.”

“이 일이 그렇게 큰일입니까?”

“전국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이제 잡담은 그만하고 어때, 이 조건을 받아들이겠나?”

“죄송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요. 제발 절 풀어주시면 안 되세요?”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자 이자를 고문실로 데리고 가!”

난 정말 억울했다. 난 아무것도 모른 채로 사람들 틈에서 밀려다니다가 잡혀왔다.

감방에 갇힌 채 좀 시간이 흘렀을까, 내 옆방에서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청년분 다시 만나게 되네요. 여기에 있다는 것은 만세운동에 참여하셨다는 거겠죠?”

나는 화가 났다.

“아니 당신 때문에 내가 죄도 없이 그 운동인가 뭔가에 끌려가서 이렇게 감옥에서 고문 받다가 죽게 됐소. 이제 어떻게 할 거요?”

“그래서 당신은 그게 부끄럽다는 건가요? 당신은 겁쟁이군요! 당신은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나요? 한 나라의 시민으로써 자신의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대대손손 이야기로 만들어서 들려줘도 될 만큼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겠소.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말ियो. 이름을 물어봐도 괜찮소?”

“제 이름은 유관순이에요.”

“유관순이라 그 이름 잘 새겨 두도록 하겠소.”

“목소리가 많이 어린 사람 같은데 나이가 몇이요?”

“전 18세입니다.”

“18세? 그 나이밖에 안 됐는데 목숨을 걸고 조국을 위해 힘을 쓰단 말ियो?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조국을 위해 힘쓰는 것은 자랑스러운 거죠. 당신도 당신이 조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신다면 언젠가

우리의 후손에게 대대손손 자랑거리로 남겨줄 수 있을 거예요.”
열여덟 살짜리 처자도 저렇게 목숨을 걸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데 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 너무 부끄러웠고,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며칠 후 나는 3.1운동 당시에 한 일이 없었기에 감형을 받았다. 나는 출소일이 되자 감옥을 나갈 때 혼자 독방에 갇혀 있던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중 한 명이라는 옥파 이종일이라는 사람에게 두루마리 종이를 주면서 부탁했다.

“당신이 할 일이 있소. 만약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된다면 김좌진 장군에게 이 종이를 전해 주시오. 아주 중요한 문서이니 절대로 분실하지 마시오. 또한 그 누구에게도 보여줘선 안 되고 당신도 보면 안 되오. 오직 김좌진 장군에게만 보여주시오.”

“알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난 풀려나자마자 김좌진 장군에 대해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날 유관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난 그녀에 대한 명복을 빌며 그 하루는 일을 쉬었다. 그리고 그런 나이에 어린 처자가 목숨을 바쳤는데 그녀가 목숨을 바칠 동안 겁에 질려 숨죽인 채 살 궁리만 하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 날부터 나는 더욱 열심히 김좌진 장군을 찾아다녔다. 그렇게 내가 감옥에서 출소한지 한 달 만에 김좌진 장군이 있는 곳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일본군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난 그가 전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내 모든 재산을 가지고 그를 도우러 가고 있다.

승재의 글은 역사적 사실에 바탕 해서 1919년 3.1운동과 1920년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전투를 연관시키려고 하고 있었다. 대화체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도중에 유관순 의사와의 만남을 대화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전개하는 솜씨에서 과학고를 준비하는 자연계 학생다운 침착함과 사실에 바탕 한 상상력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유관순 의사의 죽음에 대한 심리적인 묘사가 좀더 깊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처녀작치고는 상당한 발전가능성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3-1-3. 손진표의 스토리텔링 [3.1운동]

2015년 11월 14일 홍수라는 아이가 있었다. 이 홍수라는 아이는 어린 나이에 얼굴도 무디고 까무잡잡하고 머리숱도 별로 없었다. 홍수는 공부를 정말 못하지만 역사만은 잘하고, 역사책도 되게 좋아해서 학교에서는 역사 박사로 불렸다. 어느 날 홍수는 집에 가다가 몹시 귀여운 고양이를 보았고 홍수도 모르게 고양이를 따라갔다.

“고양아, 기다려!”

홍수는 고양이를 따라가다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와서 이제 돌아가야지 마음먹고 뒤를 돌아봤지만 자신이 뛰어온 길이 온 데 간 데 없는 낭떠러지가 되어있었다. 홍수는 당황해서 앞을 봤더니 아까 봤던 골목에는 엄청 큰 도서관이 딱하니 서있었다. 그래서 홍수는 힘들게 발걸음을 땀다. 홍수는 무서웠지만 참고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도서관은 불도 꺼져 있고 개미 한 마리도 없었다. 홍수는 일단 도서관의 꼭대기 층까지 올라갔다.

꼭대기 층에는 역사책들이 즐비해 있었다. 홍수는 아무 책이나

하나 골랐다. 제목은 [유관순의 고비]라는 책이었다. 홍수는 책의 중간 부분을 펼쳐 보았고 책에서는 빛이 나더니 갑자기 홍수를 빨아 들였다.

홍수는 정신을 잃고 눈을 떠보니 자기 앞에는 차가운 쇠창살과 불빛이라고는 하나 없는 어두컴컴한 감옥(서대문 형무소) 안에 있던 것이다.

홍수는 당황했고 무서웠다. 홍수는 쇠창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홍수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입고 있던 청바지와 후드티가 아닌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홍수가 입고 있었던 것이었고, 얼굴도 자신의 얼굴이 아니었다. 홍수는 필시 짐작했다

“아까 책에 빨려 들어왔을 때 내가 유관순이 된 거구나.”

아까 책의 제목이었던 ‘유관순의 고비’는 홍수 자신이 이제부터 유관순의 고비를 대신 겪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홍수는 두렵고 무서웠다. 온몸의 근육이 긴장되면서 소름이 들고 몸이 떨렸다. 홍수는 유관순이 얼마나 대단한지 문득 생각이 들기도 한다.

홍수는 밤에 머리카락을 잡힌 채 끌려가서 온갖 고문을 당했다. 물고문, 전기고문, 갖갖 고문을 당했다. 홍수는 자신이 유관순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홍수의 앞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런 말이 나왔다.

“나, 유관순! 이 몸이 부서진다고 하여도 너희네 일본 따위에는 무릎 굽히지 않는다!”

홍수는 자신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이 나왔다. 홍수는 다시 생각했다.

“흐음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하는 말은 모두 이 책에서 하는 유관순

의 행동과 대사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유관순이 되어서 이 책의 결말을 다시 재구성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평소에 역사에 강한 홍수라서 유관순이 무엇을 하고 언제쯤 죽었으며, 언제 태어난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홍수는 자신이 받을 고문과 협박이 무서웠다. 그래도 홍수는 참아냈다.

홍수는 다음 날 법정으로 끌려갔다. 홍수는 복심법원 재판에서 3년형을 받았다. 그렇게 많은 날들이 지나고 감옥에서 점점 지쳐가는 홍수였지만 형기 3년이 거의 끝나고 이 책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았다. 그런데 홍수는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다.

“헉! 그런데, 유관순은 마지막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지 않나? 으악! 나, 어떡하지. 나 여기서 죽어야 하는 걸까? 아 제발 집에 돌아가고 싶다. 흐흐흐.”

홍수는 몰래 흐느껴 울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다시 자신의 몸과 자신이 목이 자유자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홍수는 자신도 모르게 옥중 만세 시위를 하였고, 그 이후 옥중 만세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맞고 밤에 밥도 못 먹었다. 그렇게 홍수는 점점 지치면서 몸에 힘이 빠졌다. 그렇게 홍수는 잠이 들었고 다시 깨어 보니 자신은 감옥이 아닌 도서관 안에 있었다. 홍수 옆에는 책 한 권이 있었는데 그 책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씌어져 있었다.

“그렇게 유관순 차디찬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다.”

홍수는 자신이 책 속에서 죽었고 이 책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다. 그렇게 더 우리나라 위인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우리들의 위인에 대한 존경심과 위대함을 잊지 못하는 홍수였다.

진표의 3.1운동은 미완성작이 되었다. 가공의 인물 홍수가 유관순 의사에 빙의해서 작품 속의 내용을 바꾸면 그녀를 살릴 수 있다는 상상에 그쳤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 그대로 결말을 맺었다. 유관순 의사는 죽었지만 그녀의 조국애와 강한 저항정신은 존경심과 위대함으로 남았다. 작은 족적을 보면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도 글이냐고 웃거나 비난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시작하였으므로 습관이 된다면 치열한 모방의 반복과 현실적인 독서에 바탕 한 피드백은 온전한 작가 진표로 거듭나게 할 것을 믿는다.

3-1-4. 엄혜빈의 전래동화 리믹스, [홍을 더하는 국어] 도전기

1. 오프닝

(포미닛 - 이름이 뭐예요)

야: 안녕? 나는 이번에 사회를 맡게 된 ‘야’야. 만나서 반가워! 오늘 나 맡고도 사회를 볼 애가 있어. 나도 오늘 처음이라 좀 떨리는데, 한 번 볼까?

무대 뒤에서 ‘똥’가 나온다.

야: 우리 만난 것도 인연인데 통성명이나 할까?

똥: 그래. 난 이름이 좀 특이해. 이름이..... ‘똥!’

야: 이름이 ‘똥’?

똥: 응 ‘똥’.

야: 그래? 나도 좀 특이한데. 내 이름은 ‘야’.

똥: 이름이 ‘야’?

야: 응. ‘야’

똥 : 야!

야 : 똥!

같이 웃는다. 불이 꺼진다.

2. 흥부와 놀부

흥부 부인 : 여보! 좀 일이나 하러 가요!! 아기도 태어났는데, 계속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놀기만 하지 말고 어서 나가요!

흥부 : 에잇, 저 놈의 마누라 나한테 계속 뭐라고 하기만 하는데 확 집 나가버려? 휴, (도끼를 집어 들며) 이 도끼로 나무나 하러 가야겠다!

[소등] & [점등]

흥부 : 헉헉! 이 나무까지만 베고, 집에 내려가야겠다. 그 뒤엔 시장에 가서……

사슴 : 나무꾼님, 나무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잡으려고 쫓아와요.

흥부 : 니가 그 은혜를 갚는다면 생각해보지.

사슴 : 아…… 알겠습니다. 꼭 갚을게요!

흥부 : 그래, 알았다. 저 뒤에 숨어!

사슴 : 네! 감사합니다! (풀 숲 뒤에 숨는다)

사냥꾼 : 이봐 당신! 이 근처에서 사슴 하나 보지 못했나?

흥부 : 아, 그 사슴요? 그 사슴은 아까 저~기로 도망쳤습니다. 사냥꾼 : 고맙네! (무대 뒤쪽으로 뛰어간다.)

홍부 : 이제 나와도 된다.

사슴 : (폴숲에서 나오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혹시 결혼하셨나요?

홍부 : 뭐?

사슴 : 혹시 안 하셨으면, (어딘가를 가리키며) 이쪽으로 가보세요! 그곳에는 자주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하고 간대요. 아마 선녀 옷 중 하나를 숨기면, 그 선녀와 결혼할 수 있어요. 꼭 가보세요! 그럼 이만! (무대 뒤로 나간다.)

홍부 : 흠, 한 번 가볼까?

3. 선녀와의 만남

홍부 : 으음,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엇! 선녀들이다! (황급히 몸을 뒤로 숨긴다) 이게 선녀옷인가? 뭐, 진짜 같지도 않은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되겠지. (선녀옷 하나를 숨긴다.)

선녀들 : 아, 잘 씻었다! 이제 나갈까?

선녀 : 어? 언니들! 내 옷만 없어! 좀만 기다려 줘! 언니들!

선녀 빼고 다 무대 뒤로 나간다.

선녀 : 아이씨! 어떡하지?

홍부 : (선녀 앞에 나타나며) 이 옷이 당신 옷이요?

선녀 : 어? 그런데요? 그런데 그 쪽이 왜 제 옷을 가지고 있죠?

홍부 : 내가 훔쳤소!

선녀 : 뭐라구요?! 당장 내놔요!

흥부 : 당신이 나와 결혼한다면 생각해보지! 나는 당신에게 첫 눈에 반했소!

선녀 : 뭐, 뭐라구요? 정말요? 사실 저도 그래요! 우리 결혼해요!

둘이 팔짱 끼고 웃으면서 나가고, ‘야’와 ‘똥’가 무대로 나온다.

야 : 아이고 쫓쫓. 부부싸움 좀 한 번 했다고 저렇게 부인을 배신하다니!

똥 : 야! 그래도 저런 놈이랑 얼른 이혼했으니, 흥부 부인한테 좋은 거 아니야?

야 : 뭐가 좋냐! 자기 딸은 흥부한테 뺏겼는데!

똥 : 난 좋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 딸 이름이 뭐였지?

야 : 콩쥐!

4. 콩쥐팍쥐

선녀 : 애, 콩쥐! 너 빨리빨리 일 안 할래?! 너 때문에 우리 굶어죽게 생겼잖아!

팍쥐 : 배고파, 배고파! 빨리 일해!

콩쥐 : 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렇게 넓은 밭을 저 혼자서만 맡는 건 무린데요.

선녀 : 무슨 소리야, 다 바쁜 거 안 보이니?!

콩쥐 : 팍쥐는 맨날 먹고 놀기만 하는데……

팔쥐 :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엄마를 잘 도와주는데!

선녀 : 어머어머, 너 지금, 팔쥐가 일 잘 한다고 시샘하는 거니?

콩쥐 : 아, 아니에요. 얼른 하면 되잖아요.

선녀 : 네 아빠는 바빠서 내일 정도에 올 거고, 나랑 팔쥐는 마을 잔치에 갈 거라서 너 못 도와줘! 우리 갔다 올 때까지 저 독에 물을 다 채워놓고, 저기 저 자갈밭을 다 매 놔라!

콩쥐 : 네. 근데 혹시, 저도 일 다 하면 마을잔치 가도 되나요?

선녀 : 흥! 그러든가. 그치만 아마 못 올 걸?

선녀랑 팔쥐는 콧노래를 부르며 나간다.

콩쥐 : 아이씨, 이걸 언제 다 해! 나도 마을잔치에 가고 싶은데, 빨리 해야겠다! 일단 물 채우는 것부터. 어? 항아리가 다 깨졌잖아! 어떡하지?!

무대 뒤에서 거북이가 나타난다.

거북이 : 저기요, 혹시 토끼가 무엇인지 아나요?

콩쥐 : 응? 알긴 아는데…… 그것보다, 너면 딱 좋겠다.

거북이 : 네?

콩쥐 : 여기에 네가 들어가면, 물이 딱 채워질 것 같은데, 나 좀 도와줄래?

거북이 : 안 돼요. 전 토끼의 간을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혹시 토끼의 간을 준다면, 도와줄게요.

콩쥐 : 토끼의 간 말이지? 그런 걸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나? 여

기. (주머니에서 간을 꺼내 준다.)

거북이 : 오오, 이것이 바로 그 간이군요! 좋아요. 도와줄게요. (항아리 아래 웅크리고 앉는다.)

콩쥐 : 좋아. 이걸 해결 됐고. 그런데 저건 언제 하지? 뭐야, 나무호미야! 게다가 이걸 다 망가진 호미잖아. 어? 저건 뭐야!

무대 뒤에서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걸어온다.

호랑이 :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콩쥐 : 떡? 그럼 떡을 주면 날 좀 도와줄래?

호랑이 : 떡을 많이 주면 말이야.

콩쥐 : 무슨 떡으로 줄까? 시루떡? 인절미? 백설기? 꿀떡? 아니다, 그냥 다 먹어라! (주머니에서 여러 떡을 꺼내준다.)

호랑이 : 오!! 좋아, 좋아, 널 도와줄게. (밭으로 가서 밭을 맨다.)

콩쥐 : 좋아, 이제 마을잔치에 가야겠다! 그런데 웃은 대충 그렇다치고, 이렇게 험 짚신을 신고 갈 수는 없는데! 에휴, 할 수 없지. 그냥 가야겠다.

5. 금꽃신 은꽃신

콩쥐 : 아, 이 폭포를 지나야지만 마을잔치에 갈 수 있지? 아, 그런데 난 꼭 여기만 오면 신을 잃어버렸는데. 악!! (넘어지면서 신발 두 짝이 다 물에 빠진다.)

콩쥐 : 어떡해! 그 신발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난 망했어. (바닥에

주저앉아서 운다.)

평 소리와 함께 산신령이 나타난다.

콩쥐 : 뭐. 뭐지?!

산신령 : 이 금꽃신이 네 신이냐, 아니면 이 은꽃신이 네 신이냐?

콩쥐 : 네? 그건 제 것이 아니에요! 저는 헨 짚신 빠트렸는데요.

산신령 : 흠, 그렇다면 이 유리꽃신이 네 신이냐?

콩쥐 : 아니요! 제 신은 헨 짚신입니다!

산신령 : 음! 거짓말을 하지 않다니, 넌 참 착한 아이로구나! 좋다.

너의 헨 짚신과 함께 이 금꽃신, 은꽃신, 그리고 이 유리꽃신을 주겠다. 또 이 옷도 주겠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12시가 되면 그 옷이 사라지니 조심하거라!

평 소리와 함께 산신령이 사라진다.

콩쥐 : 아싸! 이제 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어! 이 금꽃신과 은꽃신은 정말 화려하니까, 이 유리꽃신을 신고 가야겠다. (유리꽃신을 신어보며) 내 발에 딱 맞네!

6. 변사포와 마을잔치

(클럽노래) 콩쥐가 춤을 추고 있다.

변사또 : 저기요! 혼자 왔어요?

콩쥐 : 네, 그런데요?! 왜요?

변사또 : 저, 전화번호 좀 줄래요?

콩쥐 : 아, 죄송한데 저 그런 거 안 키워요!

변사또 : 아, 그러시지 좀 마시고 한 번만.

춘향 : 어머, 사또님! 안나세요! 처음 배요, 성춘향이라고 해요~!

콩쥐 : 그 쪽 사또였어요?

변사또 : 아 뭐, 그렇습니다. (웃는다)

콩쥐 : 잘 사는 집안 아들이 왜 여기 와서 이리고 있어요?

춘향 : 어머, 그쪽은 무슨 상관? 좀 놀러 오면 안돼요? 사또님, 저런 애랑 놀지 마시고 저희 테이블로 오셔서 수다 좀 떨어요.

변사또 : 좀 저리가요! 그리고 그쪽! 이름 좀 알려줘요! 이름 좀.

시계에서 땡 소리가 12번 울린다.

콩쥐 : 헉! 벌써 12시가 다 되었잖아! 얼른 가야겠다! (유리꽃신 한 짝을 흘리고 나간다.)

변사또 : (유리꽃신을 줍는다.) 꼭 그녀를 찾고 말겠어!

7. 춘향의 계략

춘향 : 팔쥐야~ 거기 있니?

팔쥐 : 네~ 누구세요. 언니!! 완전 오랜만이다!! 웬일이야?

춘향 : 아 그게. 너네 집에 콩쥐라는 애 있지?

팔쥐 : 응! 고 기집애 알미워 죽겠어 정말! 어제는 몰래 마을잔치까지 왔다갔다지 뭐야. 우리끼리만 가려고 일도 시켰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하고 왔대?

춘향 :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 기집애, 골탕 먹이고 싶진 않니?

팔쥐 : 골탕 먹이고 싶어 죽겠지! 그런데 딱히, 내 머리론 그런 거 생각하기가 좀 그래서.

춘향 : 그래서 이 언니가 왔잖아! 이 언니랑 같이, 고 기집애 골탕 좀 먹일까?

팔쥐 : 좋아 언니!! 역시 언니가 짱이야~!

춘향 : 혹시, 그 애 약점 같은 거 아니? 아니면 비밀이라던가...

팔쥐 : (생각하다가) 아! 하나 있다! 고 기집애 말이야. (둘이 속닥속닥 거린다.)

8. 결말

선녀 : 애! 너 잠깐 창고에 가서 쟁기 좀 가져와라!

콩쥐 : 네? 쟁기는 여기에도 있는데요?

흥부 : 엄마가 가져오려면 가져올 것이지 말이 많아! 얼른 가서 새 걸로다가 가져와!

콩쥐 : 알겠습니다. (콩쥐가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간다.)

콩쥐 : 으으! 깜깜해. 불 좀 켜야겠다. (콩쥐 부싯돌을 이용해 불을

친다.)

콩쥐 : 어어? 팔쥐? 네가 왜 여기. 어? 그쪽은 저번에 마을잔치에서 봤던!

춘향 :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의외로 앙큼한 구석이 있더라?

콩쥐 : 무슨 소리세요? 그리고, 그 쪽. 절 언제 봤다고 벌써부터 반말을.

덜컹 소리와 함께 팔쥐가 문을 잠근다.

콩쥐 : 뭐, 뭐야?! 왜 갑자기 문을!

춘향 : 너 엄마가 따로 있다며?

콩쥐 : 뭐라구요?

춘향 : 팔쥐가 그러던데? 너 엄마가 지금 엄마가 아니고, 원래 다른 엄마였다면서? 그런데도 이렇게 감쪽같이 숨어있다니. 염치도 없니?

콩쥐 : 그런데, 이 말을 저한테 하는 이유는 뭐죠?

춘향 : 지금, 변사또님이 너를 찾겠다고 안달이야. 네가 저번에 마을잔치에 흘리고 간 유리꽃신, 그걸 단서로 널 찾고 계신다고. 지금 마을의 모든 소녀들에게 유리꽃신을 신기고 있는데, 너만 안 나타나면 돼. 쉽지?

콩쥐 : 제가 만약 나타나면요? 어떻게 할 건데요?

춘향 : 마을 사람들에게 네가 염치도 모르고 빌붙어서 사는 남의 집 자식이라고 소문을 퍼뜨릴 거야.

콩쥐 : 그런 말도 안 되는……

춘향 :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알았어? 변사또님은 나랑 있을 거니까!

팔쥐 : (덜컹덜컹덜컹 소리가 들린다.) 가, 갑자기 뭐야?

누군가 ‘문 열어!’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

춘향 : 내 할 말은 다 끝냈으니까 일단 문 열어! 그리고 이 짓은 내가 아니고 팔쥐 니가 한 거다!!

팔쥐 : 네? (곧바로 문이 열린다.)

(아내의 유혹 OST)

홍부 부인 : (점을 찍고 나타난다.) 동작 그만!!

콩쥐 : 누, 누구?

홍부 : 누구시오? 썩 나가지 못하오! 지금 남의 집에 들어와서 무슨 추태요!

홍부 부인 : (홍부를 보며) 흥! 뭐라는 거야!

홍부 : (손에 들고 있던 호미를 떨어뜨리면서) 당신은 누구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선녀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우실 줄이야!

홍부 부인 : 뭐라고? 당신, 저번에도 이런 짓으로 저 여자와 결혼한 거야? (얼굴의 점을 지우며) 나, 당신 전 부인이야!! 이래도 몰라봐?

홍부 : 뭐, 뭐라고?! 아니 이런!

선녀 : 어머, 지금 당신 뭐라 그랬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그건 나잖아! 하, 됐어! 이제 끝이야! (선녀 옷을 입고 날아간다.)

팔쥐 : 엄마!

홍부 부인 : 안돼! (다시 홍부 부인을 보며) 당신, 당신은 날 버리지 않을 거지?

홍부 부인 : 당신이 한 짓은 당신이 더 잘 알텐데!!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관아에 고발해 버릴 거야!!

홍부 : 진심이야!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약속할게! (울면서)

홍부 부인 : 좋아, 일단 진심인 것 같으니 더 이상은 추궁하지 않을게.

홍부 : 고마워 여보, 흑흑.

춘향 : 어후! 이게 뭐 일이라?

팔쥐 : 그래! 당신이 우리 엄마를 하늘로 보낸 거지? 그렇지?!

춘향 : 아주 눈물겨워서 못 보겠어!

팔쥐 : 흥! 이제 콩쥐 니가 유리꽃신을 신어보든 안 신어보든, 난 말할 거야! 소문 낼 거라구!

홍부 부인 : 이게 뭐지 아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낸다.)

춘향 : 그게 뭐든 내가 알 일인가?

홍부 부인 : 알 일일걸? 녹음기거든. 너희가 아까한 모든 말들이 여기 기록되어있지.

춘향, 팔쥐 : 뭐라고?

홍부 부인이 녹음기의 버튼을 누른다.

춘향 : (치직 소리와 함께) 지금, 변사또님이 너를 찾겠다고 안달이야. 네가 저번에 마을잔치에 흘리고 간 유리꽃신, 그걸 단서로

널 찾고 계신다고. 지금 마을의 모든 소녀들에게 유리꽃신을 신기고 있는데, 너만 안 나타나면 돼. 쉽지? 마을 사람들에게 네가 염치도 모르고 빌붙어서 사는 남의 집 자식이라고 소문을 퍼뜨릴 거야.

콩쥐 : 그런 말도 안 되는!

춘향 :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알았어?! 변사또님은 나랑 있을 거.

(정지 버튼을 누른다.)

홍부 부인 : 이제 우리 콩쥐한테 협박할 생각은 하지마!

춘향 : 쳇!

똑똑똑 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들어온다.

포졸1 : 관아에서 나왔습니다~! 이 집에 소녀가 있나요?

홍부 : 네, 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포졸2 : 이 3명에게 신기면 되겠네요.

포졸1 : 거기 아가씨! (팔쥐를 가리키며) 이리로 와서 이것 좀 신어 보쇼.

팔쥐 : (목소리만) 들어가라, 들어가라!

포졸2 : 에이, 아가씨는 발이 너무 큰데요?

포졸1 : 자, 아가씨는 비키시고, 이번엔 그쪽! (춘향을 가리킨다.)

춘향 : (목소리만) 내가 이 신을 콩쥐 저 애가 신는 걸 눈 뜨고 지켜 볼 수만은 없지. 어차피 내 발에도 안 들어갈 거, 없애버리면 돼! (춘향, 실수하는 척하면서 유리꽃신을 깨버린다.)

포졸2 : 아니! 아가씨 지금 뭐하는 거요? 이걸로 빨리 이 신의 주인

을 찾아야 한단 말이오! 이것이 그 유일한 단서였는데, 아가씨가 깨뜨려버렸으니, 이제 어떡할 거요?!

춘향 : 걱정 마세요! 제가 그 주인이니깐요.

포졸1 : 뭐라고?

춘향 : 제가 그 신의 주인이에요. 저번에 마을잔치에 갔다가, 12시가 되자마자 사라져버린 그 아이가 맞다구요.

포졸2 : 오오! 정확하게 아는구만! 이 얘기는 그 아가씨밖에 모를 얘기 아닌가요?

포졸1 : 호오, 그런가? 아가씨, 정말로 이 신의 주인이 맞소?

춘향 : 그렇다니까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이 걸 다 알겠어요?

포졸2 : 좋소! 우리와 함께 갑시다!

콩쥐 : 잠깐만요! 그 사람은 그 신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 신의 주인은 나라구요!

포졸1, 2 : 뭐라고?

춘향 : 하, 나 참. 증거가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껄이지 말고 어서 가!

콩쥐 : 이게 바로 그 증거예요! (나머지 한 짝의 유리꽃신을 보여준다.)

포졸1 : 오오! 아가씨가 바로 그 아가씨군!

포졸2 : 그럼, 이 아가씨는.

춘향 : 예잇! (도망치려한다.)

이때 변사또가 나타나 춘향을 막아선다.

춘향 : 아니, 당신이 어떻게?

변사또 : (춘향을 일으켜 세워주며)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춘향 : (목소리만) 휴, 다행히 그 날은 어두워서 내 얼굴은 잘 못 봤나 보다.

콩쥐 : 사또님! 그 사람은 춘향이에요! 저번에 변사또님에게 들리블던 그 사람이라고요!

변사또 : 아니, 뭐라고?!

포졸1 : 게다가 유리꽃신의 주인인 척했습니다!

변사또 : 이 사람을 당장 잡아라!

홍부 부인 : 저 앙큼한 계집애를 부디 그냥 보내시지 마세요!

홍부 : 우리 딸 콩쥐를 모함하고 궁지에 빠뜨리려했던 애입니다!

변사또 : 당장 이 애를 감옥에 쳐 넣어라!! 감히 남을 모함하다니, 그리고 콩쥐!

콩쥐 : 네?

변사또 : 나와 결혼해주오!

콩쥐 : 어머…… 좋아요!

(이승기, '결혼해줄래' OST)

야 : 크~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봤나!

뫼 : 완전 감동적!! 그런데 춘향이는 어떻게 된 거야?

야 : 글썄~ 뫼, 변사또가 있는 관아에 암행어사로 온 이몽룡한테 첫 눈에 반했다나?

뫼 :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야 : 자세한 건 나도 잘 몰라! 아무튼 이제 우린 여기서 마무리 짓

자!

똥 : 그래, 야!

야 : 자! 그럼 우린 이만!

야, 똥 : 안녕~!

(이승철, '아마추어' OST)

서울형 자유학기제 2학기 선택학습프로그램 목요일 수업, '흥을 더하는 국어' 시간은 1학년 5반에서 1학년 8반까지 열정적인 학생들 24명이 주인공이 되었다. 마당극 시나리오 [하늘이야기]를 대신해서 연출과 음악 엄혜빈이 두 개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출의 [가위]와 엄혜빈의 [전래동화 리믹스]를 놓고 2015년 10월 15일 [학급선거프로그램2.1]을 사용하여 투표를 할 만큼 치열했다. PPT를 활용했다. 15대 10!

연출의 [가위]가 선택학습프로그램 [흥을 더하는 국어] 목요일의 대본이 되었다. 그리고 엄혜빈은 음악감독으로서의 역할에 만족해야 했다. 둘의 열정에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선생님은 엄혜빈의 [전래동화 리믹스]를 스토리텔링 동아리의 장편소설 [가람새-활]에 객원(客員)으로 실어주기로 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 조각보1에 '3-1-4. 엄혜빈의 전래동화 리믹스, [흥을 더하는 국어] 도전기'는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4. 연우가 쓰는 패러디소설

가람새알



2014 전국학생제 인문체쓰기 우수동아리 교육부장관상 수상

◎ 천호중학교 스토리텔링 동아리 장편소설 가람새-알

서울시 강동구 천호1동 24시 명품떡볶이집에는 아침부터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테이블이라고는 겨우 5개밖에 안되던 조그만 떡볶이 가게에서 새로 ‘청년다방’이라는 체인점으로 바꾸어 테이블이 11개로 늘어난 이곳 청년다방은 부부가 함께 운영하며 떡볶이, 튀김, 각종 식사류, 커피 등을 팔고 있는 곳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호가 바뀌어서 인지 사람들이 도통 많이 찾아오지 않았는데 최근 TV에 나온 후로 사람들이 물밀려오듯 찾아오고 있었다. 거기다가 사람들의 입소문까지 타고 청년다방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었다.

젊은 사람들은 알바생들이 입고 있는 재치 번득이는 유니폼에 즐거워했고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TV외양은 사람들의 향수를 불러 일으켰으며, 무엇보다도 차돌박이와 오징어를 위에 올려 먹는 떡볶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한 번 정도는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에 충분했다.

청년다방으로서는 처음으로 보내는 연말이기에 가족들을 모두 불러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청년다방에서 송년모임을 하려고 준비하는데 유리문에 붙어있는 종에서 소리가 나고 오십대의 엄마가 이십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을 데리고 고개를 가로퓌터리며 청년다방으로 들어섰다. 주인 부부는 금세 그들이 누군지 알 수 있었다.

20년 전, 그러니까 1995년 즈음이었다. 부부가 조그마한 동네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 부부는 막 서른이 좀 넘었으므로 활기 넘치게 장사를 하고 있었다.

손님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조그만 가게라도 얻었다는 기쁨

에 가족들끼리라도 모여서 한 해를 마무리하려던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고 있었다.

이십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엄마가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듯한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을 데리고 명품떡볶이집에 들어섰다. 겨울 날씨에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카디건을 겹쳐 입은 엄마와 유행이 지난 갈색 잠바와 파랑색 잠바를 입은 딸과 아들은 떡볶이 일인분을 주문했다. 보기에 배가 무척 고파보이는 아이들을 위해 주인아주머니는 주문을 도왔다.

“지금 저희가 남은 떡볶이가 많아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남은 떡볶이도 다 드셔주시겠어요? 아! 튀김도 어차피 내일되면 못 먹는데, 그것도요. 돈은 안 받을 게요, 오늘은 음식이지만 내일 지나면 버리게 되니까요.”

“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아이들 먹을 건데 많이 맵나요?”

“아. 아니요! 많이 안 매워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주인아주머니와 주인아저씨는 손님들 모르게 새로 떡볶이를 맛있게 만들었다. 어린이 손님들을 위해서 맵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주인부부는 떡볶이는 일인분보다 더 많게, 튀김은 일인분보다 많게, 그리고 순대는 일인분 정도를 담아내었다.

“여기 맛있는 떡볶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순대도 남았더라고요, 이것도 부탁드려요.”

맛있게 만들어진 분식들이 1번 테이블에 세팅되었다. 엄마는 아들과 딸을 위해 떡볶이를 조그맣게 잘라주었고, 물도 따라주었다.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릇에 순대와 떡볶이를 담아 엄마

께 드렸다. 너무 많이 담은 탓인지 떡볶이 떡 하나가 바닥으로 흘러 내렸다. 엄마는 미안한 듯이 아까운 떡볶이를 서둘러 입으로 가져갔다. 순간 세 사람은 웃었다. 아울러 떡볶이, 순대, 그리고 튀김을 엄마 먼저, 자식 먼저! 아들 먼저, 딸 먼저! 하면서 11시가 넘어서야 조출한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구석자리에서 이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떡볶이집에 모인 주인부부의 아들딸들은 배고프다는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손님 가족을 쳐다보고 있었다. 손님들이 식사를 끝내고 나가자 주인 부부는 서로에게 말을 걸었다.

“아니, 줄 거면 순대도 일인분 더 주고 어묵꼬치랑 국물도 주지 왜 그건 안 줍니까? 인색한 양반 같으니라고.”

“너무 많이 주면 다음에 또 오기가 거북할까 봐 어묵은 안 줬지. 그리고 당신도 봤겠지만 떡볶이랑 순대는 수북이 담아줬다고. 뭘 알고 따지셔.”

부부는 서로의 마음 씩씩이에 짓궂게 장난으로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얼굴은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주인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부의 아들도 웃고, 딸도 웃었다. 다들 그렇게 웃으면서 엄마 아빠의 선행에 감동받은 듯 했다.

다음 해에도 젊은 엄마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주인 부부의 가족 송년회 시간을 준비하는 밤 열시가 넘어서야 문을 두드렸다.

“떡볶이 일인분 주문할게요. 오늘은 떡볶이 남는 거 없는 것 같았는데 떡볶이만 주시면 돼요.”

“네? 잘못 보셨나봐요. 오늘도 남은 떡볶이 많은데, 남은 거 오늘도 부탁드려요!”

주인아저씨는 떡볶이는 이인분보다 더 많게, 튀김은 일인분보다

많게, 그리고 순대는 일인분 정도를 만들어 담아내었다. 이번에는 어묵꼬치 두 개도 함께 담아내었다. 떡볶이는 역시 텀 맵게 요리했다.

맛있게 요리된 음식들이 1번 테이블에 세팅되었고, 엄마는 어김없이 아들, 딸을 위해 떡볶이를 잘라 주었다.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엄마에게 떡볶이와 튀김, 어묵꼬치를 건넸고, 엄마는 푹푹 흐르는 국물이 아까웠는지 얼른 국물을 받아먹었다. 순간 세 사람은 웃었다. 그리고는 정말 천천히 떡볶이, 튀김, 순대 그리고 어묵꼬치를 서로 양보하며 맛있게 먹었다. 오늘도 역시 밤 11시가 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섰다. 1번 자리에서 그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떡볶이집 구석에 있던 부부의 아이들은 의식하지 않는 듯 하면서도, 그들 가족의 무사 안녕을 빌어주고 있었다. 1번 테이블이 비자 주인 부부는 서로에게 말을 걸었다.

“잘 했어. 오늘은 어묵꼬치 두 개도 같이 담았는데, 잘했지?”

“잘 했어요. 엄마는 작년에 입었던 그 카디건을 안과 밖을 바꾸어서 입었더라고요, 딸은 아들이 입었던 갈색 잠바를 입었고, 아들은 낡았지만 세련된 초록 점퍼를 입었더라고요. 가난해 보였지만 아이들이 참 엄마를 위하는 모습이 정말 눈물이 나서 감추느라 혼이 났어요.”

해마다 청년다방은 영업이 잘 되어서 가게를 확장하고 인테리어도 바꾸게 되었지만 1번 테이블은 항상 12월 31일에는 예약석 팻말을 습관처럼 올려놓게 되었다. 그 테이블 만든 바꾸고 싶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가족에게 부담이 될까봐 고민 끝에 바꾸게 되었다. 하지만 위치는 바꾸지 않기로 했다.

오빠는 이제 교복을 입고 남색 점퍼를 입고 왔고, 동생은 오빠에

게서 물려받은 초록색 점퍼를 입고 왔다. 그들은 당연한 듯이 1번 테이블에 앉아 주문을 했다.

“떡볶이 이인분에 순대 일인분 주문할게요. 그런데 순대 일인분이 얼마죠?”

“이천오백 원입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남아있는 떡볶이도 조금 더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주인부부는 오늘도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다.

떡볶이 이인분, 순대 이인분, 튀김 일인분, 어묵꼬치 한 개가 1번 테이블에 세팅되었다.

엄마는 어김없이 아이들을 위해 떡볶이를 잘라 주었고,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엄마에게 떡볶이와 튀김, 어묵꼬치를 건넸다. 하지만 엄마의 앞 접시가 넘쳐나지 않았다. 주인아주머니가 더 큰 앞 접시를 준비했기 때문이었다. 엄마는 미안한 듯, 감사한 듯 떡볶이를 서둘러 입으로 가져갔다. 순간 세 사람은 웃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떡볶이 이인분, 순대 이인분, 튀김 일인분, 어묵꼬치 한 개를 천천히 맛있게 먹었다.

오늘도 11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부부의 가족들은 바로 옆, 2번 테이블에서 떡볶이와 어묵, 튀김을 먹고 있었다. 1번 테이블이 비었고, 주인부부는 그제야 가격표를 원래대로 바꾸고 있었다. 떡볶이 천오백 원에서 이천 원으로, 순대는 이천 원에서 이천오백 원으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다.

2005년, 그 가족이 명품떡볶이집에 12월 31일마다 방문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하지만 웬일인지 그들은 명품떡볶이집을 방문하

지 않았다. 내리 삼 년째 일이었다. 올림픽의 뜨거운 열기가 채 가시지 않았지만, 명품떡볶이집에 모인 부부 가족들 모두는 후끈 달아오른 얼굴로 그들을 걱정하고 있었다.

10시가 넘고 11시가 이제 20분이 남은 시간, 갑자기 가게 문이 열렸다. 그리고 카디건 대신 핑크색 패딩 점퍼를 입은 엄마가 짧은 머리의 군인, 그리고 검은색 점퍼를 입은 여학생과 함께 명품떡볶이집으로 들어섰다. 순간 주인부부네 가족들은 그들이 누군지 알게 되었다. 1번 예약 석에 앉은 그들에게 향하는 주인아주머니의 발걸음은 분명 긴장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떡볶이 이인분에 순대 이인분, 튀김 일인분에, 어묵꼬치 세 개 주세요. 혹시 남은 게 있더라도 안 주셔도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떡볶이 이인분에 순대 이인분, 튀김 일인분에, 어묵꼬치 세 개!”

주인아주머니의 목소리에 주인부부네 가족의 마음도 환하게 울렸다. 이내 주인아저씨는 떡볶이 이인분에 순대 이인분, 튀김 일인분에, 어묵꼬치 세 개를 평소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 양도 양이지만 맛있는 육수와 고추장을 더 넣고, 아주 맛있게 준비했다. 맛있는 음식들이 1번 테이블에 세팅되었다.

“너희 둘이 엄마를 도와준 덕분에 빚보증을 잘못 서서 우리 집, 땅도 잃은 아버지가 지었던 빚을 삼 개월 전에 다 갚을 수 있었다. 3,000만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갚다니, 정말 다행이다. 비록 아버지는 미안함과 자책감에 의한 화병으로 돌아가셨지만, 너희

둘이 엄마를 정말 잘 도와주어서 정말 고맙다.”

“오빠가 저를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단기하사로 입대할 덕에 올해 제가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무슨 소리야. 가족이란 게 원래 그런 존재인거야. 서로를 위해 돕고, 양보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오빠는 네가 직장을 다니시느라 힘드신 엄마 대신에 집안일을 잘 해주고, 돈을 벌려고 과외까지 한 네 덕분에 서울대 의대에 들어 간 거야. 정말 고마워!”

오빠가 단기 하사로 입대하자 가족은 잠시 12월 31일의 행복함, 사소한 가족 회식을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오빠가 잠시 휴가를 나온 날, 가족은 사소한, 아니 아주 특별한 가족 회식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인 부부는 주방에서 하염없이 울었다. 함께 이야기를 어렵풋하게 듣고 있던 부부의 아이들도 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2015년 12월 31일. 떡볶이집은 이제 회갑을 넘긴 부부가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이어진 국가 전체의 경기부진과 이로 인한 경영난 속에서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돌파구를 찾아서 체인점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청년다방이라는 요즘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떡볶이 프랜차이즈는, 부부가 평생을 바친 역작이자 두 자녀와의 공감 속에서, 떡볶이 위에 오징어튀김과 차돌박이를 올려 먹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12월 31일, 부부네 가족들이 함께 하는 송년회는 여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막 밤 11시가 넘어서던 그 시간, 청년다방의 문이 열렸다. 세련된

양장을 입은 중년의 여인과 남색 정장을 입은 청년, 예쁜 드레스를 입은 아가씨가 식당으로 들어섰다. 음식 준비에 바쁜 주인 부부 대신 부부의 아이들이 먼저 그들을 알아보았다. 1번 자리의 주인, 그 가족이었다. 아이들 모두가 부모님을 불렀다. 주인 부부도 그들을 알아보았다.

“떡볶이 삼인분, 순대 삼인분, 튀김 일인분, 어묵 두 개 가능한가요? 옛날 그 맛으로요.”

엄마를 대신해서 큰아들로 보이는 청년이 주문을 했다.

“아니, 지금은 떡볶이가 달라져서 옛날 그 맛은 힘들 텐데……”

주인 부부네 큰아들이 입을 열자 주인아저씨가 입을 막았다.

“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손님, 1번 테이블의 예약 손님께서 오셨으니 당연히 준비할게요. 10년 내내 하던 건데 못 할게 뭐있나요.”

주인아저씨는 주방으로 들어가 옛날 그 맛의 떡볶이를 열심히 만들었다. 청년다방은 음식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다. 이내 주인아저씨는 떡볶이 삼인분, 순대 삼인분, 튀김 일인분, 어묵 두 개를 양보다 조금 많게 준비했다. 양도 양이지만 좋은 재료 중에서도 더 좋은 재료로, 항상 음식에 넣던 정성도 몇 배로 더 넣어서 만들었다. 맛있는 음식들이 1번 테이블에 세팅되었다.

“잘 먹겠습니다. 사실 우리 애들이 떡볶이라면 사족을 못 썼거든요. 그것도 항상 둘이서 삼사인분을 먹고는 했습니다. 원래도 넉넉하지 않던 살림에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랑 정말 친한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저희 남편이 너무 착한 탓에 친구가 빚보증을 서달라는 걸 거절하지

못하고 의심 없이 보증을 서주었어요. 정말 돌도 없는 친구였는데…… 3,000만원을 이기진 못했나 봐요. 돈을 갚을 사정이 되질 않자 그 친구는 그대로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 3,000만원은 그대로 저희 남편이 갚게 되었고 남편은 날마다 술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지병이 악화돼서 저 세상으로 갔어요. 그리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농장에서 일하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두 아이들이 신문 배달에, 우유배달, 과외,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해주었어요. 특히 작은애는 항상 늦게 귀가하는 저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청소, 빨래, 요리까지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요. 큰애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휴학을 하고 하사관으로 입대하면서 동생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했죠. 동생은 오빠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올해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해서 로펌에 취직했어요. 물론 큰애는 단기 하사를 마치고 대학으로 돌아가서 올해 레지던트로 들어갔답니다.”

엄마는 말을 하다 말고 떡볶이를 맛있게 먹고 있었다. 튀김과 순대도 맛있게 먹었다. 아이들도 식성이 참 좋았다. 떡볶이 삼인분, 순대 삼인분, 튀김 일인분, 어묵 두 개를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이 푹푹 해치웠다. 주인 내외가 서비스로 해준 볶음밥도 정말 맛있게 먹었다.

“사실 20년 전에 떡볶이집에 들어설 때 돈이 오천 원밖에 없었어요. 좀 더 있었지만 그 이상 지출한다는 건 그때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은 정말 먹깨비처럼 식성이 대단한데 제게 양보했던 거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주인부부께서 항상 남았다면서 음식

을 더 챙겨주셔서 죄송한 줄 알고서도 이런 분들이라면 우리가 부담을 드러도 되겠다고 감히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덕분에 빗 때문에 생긴 돈도 다 갚았습니다. 한 동안 제가 좀 몸이 아파서 떡볶이집에 올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딸이 로펌에 취직하면서 꼭 떡볶이집에 가서 주인 어르신네 가족께 한턱 쏘자! 하고 제가 오늘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여기서 밥을 먹는 게 주인 어르신들께는 딱히 좋을 게 없는 것 같네요. 나중에 제가 한턱 쏠테니 기대해주세요.”

그러자 주인아저씨가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날을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되죠, 우리 의사선생님 노래 한 번 들읍시다.”

“하하…… 아직 레지던트일 뿐인데요. 우리 예쁜 변호사님 노래 어떠세요? 하하하”

“아, 그러지 말고 엄청난 어머니 노래 한 번 들어보시는 게 어떠세요? 어머니가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시는데요. 거기다 자식 훈육은 정말 최고 아니신가요.”

“그러게요. 아들은 의사로, 딸은 변호사로! 정말 대단하신 어머니네요. 어머니 노래 좋은데요?”

주인아주머니가 말씀하셨다.

“네, 그럼 제가 먼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사람 사랑을 몸소 가르쳐주시고 또 실천해주신 주인아저씨의 사람 냄새나는 노래부터 들겠습니다. 다들 어떠세요?”

두 가족이 모두 좋다고 박수를 쳤다.

“참고로 이번에 강동구 문학상 공모에서 저희 오빠가 대상을 받았는데요, 제목이 [떡볶이 한 접시] 랍니다. 주인아저씨, 주인아주머니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수필, 아니 소설을 저희 오빠가 써서 장원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금은 오늘 우리 떡볶이집 주인아저씨와 아주머니께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동생의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오빠를 대신해서 어머니가 주인 부부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주인부부는 돈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그 가족의 진심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주인부부는 곰곰이 생각한 결과, 판단을 내렸다.

주인아저씨가 말했다.

“이 돈을 저희에게 주신 건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 인데요. 이 돈은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돈은 한부모 가정을 위한 기부자금으로 바로 옆에 있는 천호중학교에 기부하는 건 어떨까요? 그 돈으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주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역시 대단하세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부부네 가족과 1번 예약석의 주인 가족은 모두들 너무 행복해서 웃는지 우는지 몰랐다.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모두의 눈에서는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흐르고 있었다. 청년다방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떡볶이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다. 이웃사촌끼리 서로 사랑으로 가득 뭉친 이들과 함께 2015년이 지나가고 있었다.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며 밝은 해가 밝아오고 있었다. 그와 함께

새로운 2016년 병신년이 시작되고 있었다.

“어때요, 선생님?”

연주와 함께 창의인성부에 들어선 연우가 재근하듯이 물었다. 구리 료혜이의 [우동 한 그릇]을 패러디한 작품이었다. 선생님은 대답 대신 웃었다.

“괜찮아요? 제대로 변형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어려워요.”

“좋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처음 치고는 정말 좋은 습작입니다. [우동 한 그릇]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은 패러디한 줄조차 모를 정도다.”

“선생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한 번 시작했는데 잘 되었나 물어보고 싶었어요.”

“물어보면 아픈데.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되지. 전반적으로 기존의 [우동 한 그릇]을 뼈대로 같은 듯 다르게 살을 참 잘 붙였어. 물론 빗보증을 잘못 선 아버지의 사망이 다소 건조하게 처리된 게 아쉽고, 빗보증 3,000만원은 조금 적게 느껴져. 3억 원 정도는 되어야 지병에 화병으로 세상을 떠다는 게 설득력을 얻지 않을까? 리얼리티가 담보되려면 이 부분을 좀 더 현실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 강동구문학상 상금을 진짜루 주인부부에게 모두 주는 것은 현실성이 좀 부족해. 하지만 그 상금을 받은 주인부부가 천호중학교 한부모가정 학생들에게 기부한다는 설정으로 현실성을 담보한 게 좋았어. 다만 아쉬운 점은 남은 떡볶이랑 어묵 등을 남아서 준다는 건 좋은데, 좀더 마음을 써서 정중하게 의사를 묻는다거나, 불친절한 알바생을 통해 갈등을 유발했으면 어

떨까 하는 아쉬움, 뭐 그 정도! 아무튼 좋은 글 생유. 이렇게 계속 습작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 문리(文理)가 트이는 거야. 기대할 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에도 한 번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와. 아니면 감이랑 사과 사오시던가?”

“감, 사! 네, 그럴 게요. 암튼 말장난의 대가답습니다.”

“샘 고향 동네는 원래가 경마장이야. 말장난을 생활화하고 살아. 언어유희 어렵지 않아. 개그콘서트의 ‘껌기도’가 우리 고향 스타 일이거든.”

“네, 잘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마당극 정말 기대되는데 저도 들어가면 안돼요?”

“어렵지 않지만 문제는 시간이야. 다들 점점 바빠질 테니까. 점심 시간에 모여 연습하면 되는데 방과후에 다들 바쁘니까 어렵고, 대부분의 자율동아리 활동도 점심시간에 바쁘게 이루어지니까 토요일에 몇 번 모여야 하는데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힘들고, 이런 문제 감수할 수 있으면 연주랑 같이 들어와, 연재는 감수하고 들어온대! 연주야, 너도 연우랑 같이 마당극동아리 들어와라.”

5. 맹경도의 [이 시대의 진정한 이야기]

가람새알



2014 전국학생 인문체쓰기 우수동아리 교육부장관상 수상

◎ 천호중학교 스토리텔링 동아리 장편소설 가람새-알

10408 맹경도!

2015년 3월 2일 강동구 천호중학교..

입학식 이후 다음날부터 나는 매일,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왜냐하면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낯선 곳이기도 하거니와 이사를 해서, 같은 초등학교에서 배정받은 친구가 극소수인데다 같은 반에선 내가 알지도, 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서이다.

chapter1. 그와의 만남

1 교시 음악은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라 부담이 없이 지나갔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다른 공립학교에 비해 시설이 나쁘지 않았고, 수업 진행을 빨리빨리 하셔서 급한 성격이 나와 맞는 것 같은 선생님이었다.

2 교시 수업 시작종이 울리고 2분 후 문이 “드르르륵” 열렸다.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마어마한 덩치에다가 더 당황스럽게 만든 것은 체육복점퍼차림의 범상치 않은 외모.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 분의 성함은 바로 임, 흥, 수! 예상을 깨는 반전의 국어시간이다.

chapter2. 임자 팔로우미 ~

첫인상부터 그는 강렬했다.

칠판에 그가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갔다.

임

흥

수

아니, 뒤에 무언가가 더 적혀 있었다.

임자, 이리 오시오.

홍분 되어여.

수수밭으로 뛰어 갑시다, 휘다다.

이것은 다름 아닌 삼행시였고, 반 아이들은 멍(?)한 상상을 하며 웃음을 뺨 터뜨렸다. 우리 반 교실창문은 다른 학급과 마찬가지로 위아래 두 칸으로 나뉘어 있는데 중간에 가로막이 있고 스크린(블라인드)이 설치되어 있다.

“야! 이 블라인드 말야~ 이 가로줄보다 살짝 올려놔.”

“왜요?”

“더 섹시하잖아! 다 보여주지 않고 조금만 보여주는 게, 더 섹시하잖아!”

또다시 반 아이들은 사물조차 멍하게 만드시는 선생님을 향해 웃음을 뺨 터뜨렸다.

chapter3. 다중인격자

거의 누구나 그렇지만 각자의 기준과, 상식과, 촉각을 세워서 매 시간 바뀌는 새로운 과목 선생님들의 특성과 가르치시는 스타일을 파악하기가 심심치 않은 기대와 긴장을 준다.

국어선생님인지라 어록이 풍부하다.

“영구쌤, 나이? 으흠…… 스물아홉! 나보다 더 어리네.”

“애들아, 놀자!”

“에이, 지루한데 잠이나 자자!”

“야! 김재연! 이 상황 좀 재연해봐!”

“박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박석~“

“야! 왜 앞문으로 들어와?”

“뒷문이 안 열려요.”

“열렸는데, 뒤로 들어와!”

(뒷문으로 들어오는 친구)

“아니, 뒤로 들어오라고 뒤로! 그냥 제 자리서 뒤돌아 걸어오면 될 걸. 애는 빙 돌아서 오네. 문워크 몰라? 마이클 잭슨의 춤사위!”

그러나 항상 예외는 있는 법, 늘 유머만 있진 않으시다.

“야! 뒤로 나가! 수업 시간에 왜 장난 쳐?”

chapter4. 특별한 점

학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니, ‘잠자는 교실의 공주’ 고정 멤버가 생겨났다. 임흥수 선생님은, 예전에는 분필로만 수업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노트북을 활용해서 수업하신다. 나는 이 수업방식이 정말 좋다. 다른 시간보다 자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 더욱 특이한 것은 ‘잠자는 교실의 공주’ 멤버들에게 크게 뭐라 하지 않으신다.

나는 이분께 특별한 두 가지를 배웠다.

1. 학생들이 느끼기에 수업이 재미있으면 거의 즐지 않는다.
2. ‘잠자는 교실의 공주’ 멤버들이 책이라도 읽는다면 굳이 안 깨워도 상관없다.

아무리 이상하다 하더라도 수업이 재미있으면 아이들은 즐지 않는다. 내가 음악교수가 되면 학생들이 모두 흥미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다가 써 먹어야겠다.

epilogue. 이야기를 마치며

내가 지금까지 만난 분 중에 진정한 이아호를 뽑으라면 도덕과 강영구 선생님, 국어과 임흥수 선생님이다. 거기에서 한 분을 뽑자면, 단연 임흥수 선생님이다. 임흥수 선생님이야말로 진정한 이시대의 이아호가 아닌가 싶다. 스토리텔링반을 하면서, 이 이아호가 황당함은 줄 수 있지만, 이 시대의 이아호가 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 이아호가 되는 분에게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감사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6. 학생자치법정1

가람새알



2014 전국학생제 인문체쓰기 우수동아리 교육부장관상 수상

◎ 천호중학교 스토리텔링 동아리 장편소설 가람새-알

판사3 : 학생자치법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인, 검사, 배심원단에 대한 역할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검사들을 바라보며 말을 한다.) 검사는 학생자치법정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규정상의 긍정적 지도를 요청하는 일을 맡습니다. 이 때 사실을 확인하고, 긍정적 지도를 신고하는 기준은 본교의 교칙에 의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판결을 내릴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엄정한 판결이 나올 것을 요청하고, 규정의 중요성과 규정 위반에 따른 긍정적 지도의 필요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검사가 신문을 할 때에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사2 : 다음, 변호인은 현행 교칙 및 학교 규정 중에서 학생들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거나 학생자치활동에 제한되어지는 상벌점 제도 및 학생제제 사안에 대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변론 중에 증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1 : (배심원단을 바라보며 말을 한다.) 그리고, 배심원단은 각 학년에서 제기한 학생인권과 관련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찬반양론을 경청하여, 합당한 의견에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기권은 가급적 지양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생자치법정의 취지가 토론을 통해 학생자치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인지하고 자존감을 향상시켜서 행복한 학교생활,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는 것이 목적인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고 신중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는 매너모드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1 : 지금부터 첫 번째 안건인 0교시, 자율학습에 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 저는 선생님들이 0교시, 자율학습을 강제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판사1 : 네, 검사측 계속 발언해주세요.

검사 : 밤늦게 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테고, 0교시에 다른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강제 요구하는 것은 학부형들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대한중학교를 취재한 문수연 기자의 동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동영상 시청)

■ 자율학습, 0교시 반대 동영상

카메라 교실 문 열고 들어서며 학생들을 쭉 스캔한다.

몇몇 학생들은 엎드려서 졸고 있다. 책상과 의자를 사물함 쪽으로 두고 두 학생이 앉아서 조용히 장난을 치고 있다.

리포터 : 지금 대한중학교 학생들이 자율학습, 0교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한 학생을 만나 보겠습니다.

리포터 : 학생, 0교시에 자율학습을 해보니까 어때요?

학생 : 아니, 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불려서 자율학습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짜증을 내면서 말한다.) 졸려죽겠네 진짜!

인터뷰하는 학생 뒤에 두 학생 장난 끼 있는 얼굴로 웃으며 손가락 둘을 펴 보이며 브이 자를 그리고 있다.

리포터 : 네, 학생을 만나봤는데요. 학생은 자율학습, 0교시 수업에 대해 불만이 많아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즐기고 있는, 비정상적인 자율학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은 자율학습, 0교시를 시행하거나 말거나 인 것 같습니다. CMS 뉴스 문수연입니다.

변호사1 : (머리에 염색을 했고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다.)다 학생들에게 좋으라고 그러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희들도 준비했습니다. 만세중학교를 취재한 문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함께 보시죠! (동영상 시청)

■ 자율학습, 0교시 찬성 동영상

카메라, 교실 문 열고 들어서며 학생들을 쭉 스캔한다.
학생들 자신의 자리에 앉아 진지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리포터: 지금 만세중학교 학생들이 자율학습, 0교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한 학생을 만나 보겠습니다.

리포터 : 학생! 0교시에 자율학습을 해보니까 어때요?

학생 : 집에서 하는 것과 달리 집중도 잘 되고 자기주도적인 공부습관을 들일 수 있어서 좋아요. 자율학습, 0교시 짱이에요!

리포터 : 네, 학생을 만나봤는데요. 학생 말대로 자기주도적인 공부

습관을 들일 수 있어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집중해서 공부하는데요! 활기차고 믿음직한 0교시 수업현장 정말 흐뭇한 장면입니다. CMS 뉴스 문수연입니다.

검사1 : 왜, 학생들에게 좋을 거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단점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머리상태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판사1 : 검사, 지금 이 사안과 상관없는 말은 삼가 하십시오.

검사1 : 네, 알겠습니다.

판사1 : 자, 계속 하세요.

변호사1 : 학생들에게는 0교시, 자율학습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덜 수 있고요.

판사1 : 네,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배심원의 의견은 15인 중에서 8대 7로 반대쪽이 많았었습니다. 오늘 검사와 변호사의 최종변론을 듣고 어떤 심적 변화가 있었는지 배심원단은 이제 결론을 내려주세요. 배심원의 신변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학급투표프로그램2.1]을 사용하여 바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진행하세요!

배심원, 모두 일어나서 기표소에 들어가 [학급투표프로그램2.1]

을 통해 찬성하면 1, 반대하면 2 자판을 누른다.

판사1 :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스크린을 통해 현장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세요! (스크린을 통해 결과가 공개된다.)

판사1 : 첫 번째 안건인 0교시, 자율학습에 관한 판결은 배심원 6 대9로 변호사 측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이로써 0교시, 자율학습에 관한 판결내용은 학칙 개정 시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학생인권강화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2 : 이어서 학생의 휴대폰 및 전자기기 소지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쪽에서 먼저 발언하시겠습니다.

검사2 : 저는 학생의 휴대폰 및 전자기기 소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학교에 공부하러 오는 곳인데 학교에서 휴대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하게 되면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 됩니다. 또한 휴대폰 및 전자기기를 분실하면 개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학생의 휴대폰 및 전자기기 소지에 반대합니다.

판사2 :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 쪽에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변호사2 : 저는 휴대폰 및 전자기기 소지에 대해 찬성하는 바입니다. 만약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서 휴대폰을 통해 급박한 소식을 알리지 못하면 큰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검사2 : 하지만, 학교에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급한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급한 상황에서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변호사2 : 그래도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판사2 : 두 분 모두 진정하시고 변호사 쪽에서 계속 발언하시겠습니까.

변호사2 : 학생들은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학생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제한다면 학생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에만 휴대폰을 쓰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수업중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한다면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사2 : 의사 진행 발언이 양측에서 사전에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소지 여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반영한 비보이 댄스 팀, 2학년 실용댄스동아리 남학생 팀과 1학년 여학생 팀의 노래와 랩, 춤을 보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스크린을 통해 2학년 실용댄스동아리 남학생 팀과 1학년 여학생 팀의 준비된 동영상 이 방영된다.)

판사2 : 양측의 말씀과 동영상 퍼포먼스를 잘 듣고 보았습니다. 이제 배심원들이 투표하겠습니다. 배심원의 신변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급투표프로그램2.1]을 사용하여 바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진행 하세요.

배심원단, 모두 일어나서 기표소에 들어가 [학급투표프로그램 2.1]을 통해 찬성하면 1, 반대하면 2 자판을 누른다.

판사2 :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스크린을 통해 현장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세요! (스크린을 통해 결과가 공개된다.)

판사2 : 두 번째 안건인 학생의 휴대폰 및 전자기기 소지에 관한 판결은 배심원 9:6으로 검사 측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이로써 학생의 휴대폰 및 전자기기 소지에 관한 판결내용은 학칙 개정 시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학생인권강화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3 : 마지막으로 학생의 두발 및 복장 규정의 자율성 여부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하여 법정 내에서는 잡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일으킬 시에는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측 먼저 발언해주십시오.

검사3 : 네, 본 검사는 교내 학생의 두발 및 복장에 대해 기존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두발자유화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따릅니다. 학생들은 외모에 치중하느라 학업 집중도와 이에 따른 성적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빈곤층 아이들의 경우 다른 아이들의 옷차림을 자신과 비교함으로써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명 브랜드의 옷이나 신발 등을 과시하기 위해 무리하게 경제적 부담을 짊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2012년에는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의 패딩이 ‘국민 교복’이라 불릴 만큼 유행했는데, 일명 ‘노스페이스 계급’이 생길 정도로 문제가 심했습니다. (‘노스페이스 계급도’를 화면에 띄운다.) 이 화면을 보면 낮게는 20만원 대의 옷을 입은 학생을 ‘찌질이’, 높게는 70만원 대의 옷을 입은 학생을 ‘대장’이라 부르는 것으로 학생들이 사람이 아닌 옷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3 : 판사님! 저에게 발언권을 주시겠습니까?

판사3 : 네, 변호사 측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변호사3 : 네, 검사 측 입장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학업 집중도 저하와 같은 문제들을 그냥 넘어가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학생들의 두발을 자유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학생들에 관한 사안인만큼 학생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아야겠다는 판단 하에 두발 자유화를 촉구하는 학생들의 대표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학생대표 : 저는 천호중학교 학생 대표인 3학년 김근영 학생입니다. 저는 두발자유화를 원하는 학생을 대변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어왔습니다. 자유분방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대체 왜 막는 거죠? 물론 검사 측의 말엔 일리가 있으나, 학업 집중도 저하 등의 문제는 상의 하에 과도한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

가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복장을 포함하여 두발에 대한 규정을 철폐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과거의 보수적인 입장과 달리 학생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상영해도 될까요?

변호사3 : 판사님! 학생들의 의견을 모은 동영상을 상영해도 될까요?

판사3 : 네, 그렇게 하시죠!

변호사3 : 이상입니다. 학생대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판사3 : 지금까지 두발 및 복장 규정이 필요하다는 검사 측, 그리고 두발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변호사 측과 이를 대변한 학생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자리에 계신 배심원들께서는 [학교투표프로그램2_1]을 통해 원하시는 주장에 투표해주시면 됩니다. 비밀 투표가 보장되오니 투표를 부담없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투표한 결과는 화면을 통해 공개적으로 공개하므로 투표 후, 다시 자리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심원단, 모두 일어나서 기표소에 들어가 [학급투표프로그램2_1]을 통해 찬성하면 1, 반대하면 2 자판을 누른다.

판사3 :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스크린을 통해 현장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세요! (스크린을 통해 결과가 공개된다.)

판사3 : 세 번째 안건인 학생의 두발 및 복장 규정의 자율성 여부에 관한 판결은 배심원 8:7로 검사측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이로써 학생의 두발 및 복장 규정의 자율성 여부에 관한 판결내용

은 학칙 개정 시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학생인권강화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학생자치법정을 방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인권보호에 대한 소중한 자산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학생자치법정을 준비한 학생회, 각 학년 대표자 회의, 인권모색동아리, 실용댄스동아리, 방송동아리, 그리고 각 학년 배심원단과 선도부 등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간식과 격려로 뜨거운 관심 가져주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창의인성부와 생활지도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좋은중학교와 학생자치활동모델학교로 선정하고 도와주신 강동구청,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학생자치법정을 마치겠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시청각실에서 학생인권모색동아리의 학생자치법정은 끝이 났다. 학생회회의실에서 간단한 평가회를 마치고 명품떡볶이에서 간단한 뒤풀이를 한다. 3학년부터 1학년까지 20명 남짓한 동아리 회원 중에서 14명이 모였다. 우리들의 왁자지껄한 이야기가 천호일보(千戶日報)에 이렇게 정리되었다.

“처음에 학생회와 학년 대표들을 중심으로 인권모색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10계명(학생의 표현)이 인쇄된 가정통신문을 손에 들고 선생님께서 각 학년별로 하나씩 주제를 정하고, 배심원 제도를 활용해서 학생자치법정을 해보자고 했을 때 다들 앞이 캄캄했어요. 그런데

학년별 카톡방을 열고 우리들이 제안을 하면 선생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자유로운 방안을 제시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각 학년 작가들이 작성하면 함께 카톡방과 학생회 회의실, 창의인성부 등에 모여서 시나리오를 수정, 보완하고 열정적인 ○○○(3-○)은 검사3역을 방송부장 ○○○(3-○)에게 맡기고 학생대표역을 자처하여, 설문지를 만들고 이를 각 학년 샘플 학급과 제3회 대의원회의 때에 시청각실에 모인 학생회와 학급 회장 및 부회장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설문을 받고 이를 분석하는 노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2학년 부학생회장과 2학년 부장, 차장이 2년 실용댄스동아리를 섭외하고, 댄스동아리가 가수를 섭외, 개사하고, 3학년 부장이자 학생인권모색동아리 반장인 ○○○(3-○○)가 PPT와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각자 자신의 재능과 친구들의 재능을 활용하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놀라면서도 행복했어요! 긍정의 선순환이자 행복바이러스가 돌고 돌아 우리들의 진로와 인권을 모색하는 행복한 두 달 여의 파티는 그렇게 아름답게 끝이 났어요. 2학기에도 하자는 선생님의 제안에 1학년 재회가 웃으면서 텅기기는 했지만 다들 싫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7. 김준영의 터닝포인트

가람새알



2014 전국특종제 인문체쓰기 우수동아리 교육부장관상 수상

◎ 천호중학교 스토리텔링 동아리 장편소설 가람새-알

• 입학식

초등학교에서의 6년을 마치고 친구들과 같은 학교를 가고 싶었던 나는 4학년 때 이쪽으로 이사를 왔고 ‘천호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6년만의 입학이라…… 조금 어색했지만 잘 적응하려고 신나는 마음으로 졸업식이 끝나자마자 예비소집에 갔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조용히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던 찰나, 교회를 같이 다녀서 친한 대진이가 갑자기 들어왔다. 하지만 대진이는 예비소집일부터 지각을 해서 선생님께 단단히 찍힌 것 같았다.

선생님의 첫인상도 나쁘진 않았다. 단지 하나만 고르자면 뭔가 되게 사소한 일들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는 약간의 찝찝함 빼고는 예비소집일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드디어 엄마와 함께 처음 가는 교복 매장! 내 체형이 너무 작았는지 교복매장 직원은 나를 보고 의아해했다. 그리고 “아, 이 아이예요??”라는 말도 함께 한다.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직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나의 표정과 엄마의 인상을 보고는 이제야 분위기를 눈치 챘는지, 어디 중학교인지 물어본다. 그렇게 교복을 맞추고 집에 가서 입어봤더니 엄마, 아빠, 누나들이 다 웃었다. 하긴, 내가 봐도 교복을 입은 내 모습이 아빠의 양복을 뺏어 입은 4살짜리 꼬마 아이 같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그래도 처음 입어보는 교복은 내 마음에 들었고 설레기 까지 했다.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복도를 서성이며 얘기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잠이 오지 않았고 늦게 자기 까지 했지만, 정말 설레는지 평소엔 8시에 일어나던 내가 한 시간이나 일찍 일어났다. 막상 일찍 일어나니 할 게 없었지만, 한 번 더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니 정말 기분이 좋았다. 또 시간이 훌쩍 가버렸다. 엄마가 해주신

토스트를 맛있게 먹고 출발~

예비소집 때부터 보았지만, 이 학교는 정말 크고 좋은 학교인 것 같다. 나는 대진이와 맨 뒷자리에 앉았다. 나는 1학년 4반이었는데 갑자기 우리 반에서 누가 나갔다. 그러고는 뭐라 말했는데 뒷자리여서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나중에 들어보니 대명초 전교회장이었다고 하고 이름은 '최도연'이라고 했다. 이렇게 입학식도 끝이 났다.

• 점심시간의 댄스타임~!

우리는 입학식을 한 다음 날, 2학년과 3학년들과 학생상견례를 하였다. 그때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도 떠들었다. 대진이랑 딱밤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도연이라는 아이가 뒤돌아보면서 “나랑 할래?”라고 말하였다. 자신이 보통 세지 않고는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도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나는 안 한다고 했지만 대진이가 수락을 하였고 1분 뒤, 대진이의 이마가 빨개지자, 우리 셋은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다. 그 뒤에는 엄청 잘생긴 아이와, 싸움을 정말 잘 할 것 같아 무서운 아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키 큰 아이가 있었다. 셋이 같은 무리인가 하고 엄청 무서워했는데 알고 보니 대진이와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애들이었고, 잘생긴 한 명은 명일 초등학교에서 왔는데 잘생겨서 금방 친구가 생긴 것 같았다. 점심시간, 특이하게 노래를 틀어주었다. 한창 EXID의 ‘위아래’가 유행이었던 때, 역시나 그 노래가 나왔고 나는 도연이와 춤을 췄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른 반 아이들은 물론, 2학년 누나들, 선생님들까지 우리의 춤을 보았고 우리 둘 다 무대 체질이었는지 그런 분위기를 즐겼다. 2학년 누나들은 우리한테 먹을 것도 주었다.

국어 교과 선생님이신 임홍수 선생님께서 우리의 춤을 찍으셨다. 너무 사람이 우리 반에 몰려서 복도에서의 통행이 불편해지자 급기야 담임선생님께서 도연이와 나를 따로 불러서 이제 춤을 추지 말라고 하셨다. 나의 끼를 방출하지 못하던 통제에 답답했고, 그렇다고 넓은 2학년 동에 가서 추기엔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우리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우리의 댄스타임도 멀어져 갔다.

• 봉사활동

이건 사실 그렇게 내 중딩 생활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긴 좀 어려운데, 애들이랑 추억도 많이 쌓고 재미있던 날이었다. 이 날은 잘 기억이 안 난다. 하나 빼고, 그 하나가 바로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다는 것이다. 우리 반에는 엄청 잘생긴 애가 한 두 명이 아니다. 그래서 여자애들이 사진을 많이 찍은 것 같다. 이 날은 우리 반의 추억을 많이 쌓았던 날이 되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ㅎㅎㅎ

• 1학년 체육대회

2, 3학년들이 수련회를 가서 우리는 할 게 없었다. 그래서 한 게 바로!! 1학년만의 특별한 체육대회이다. 솔직히 체육대회라 하긴 좀 작은 행사였다. 거의 육상 종목만 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만큼 다른 시간이 많았고 아이들도 즐길 수 있었다. 마지막 운동회의 꽃! 계주 순서였다. 내가 마지막이었다. 우리 반이 첫 번째엔 1등이었다가 중간쯤에서 뒤쳐졌다. 결정적으로! 내 차례 때 나는 전교생에게 웃음을 주었다. 넘어진 것이다. 맨 앞의 일한이가 휘청했는데 그 발에 2등 태준이가 걸렸다. 그 바람에 태준이가 휘청했는데 그 발에

내가 걸린 것이다. 하지만 4등이었던 3반은 내가 넘어질 때 출발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렸다. 내가 넘어진 것이다. 그래도 난 달렸고 결국 순위변동은 없었다. 다행이었다. 하지만 난 심하게 다쳤고 그 아픔보다 승부욕, 반 아이들에게 미안함 때문인지 눈시울이 붉어졌고 반 아이들은 일제히 나를 향해 “괜찮아!”라고 말해주었다. 감동이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원래 난 한 번 눈물이 나면 엄청 쏟는다. 특히 억울한 일이 있으면 더더욱 그런다. 이번 사건은 내게 너무나 억울했다. 그래도 승부는 이미 결정이 난 걸 어찌겠는가. 괜히 또 억울하다고 호소하면 내게 고의는 아니었지만 다리를 건 2반이 탈락해야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은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그냥 눈물만 흘리며 애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결국 6반이 제주 우승을 했다. 이렇게 체육대회가 끝이 났다.

• 스토리텔링반 참가

드디어! 하고 싶었던 방과 후 수업 ‘스토리텔링’반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첫 날부터 빠졌다. ㅋㅋㅋㅋ 왜냐면 나는 방학 중에도 6반이 토요일에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평일 9시에 하는 거였고 10시 30분에 끝나서 난 바로 멘토링에 가야했다. 처음에는 이 분위기에 적응도 못했고 뭘 하는지도 몰랐지만 영화를 보고나니 뭘 하는지 알게 되었고 여기 친구들과 친해지기도 했다. 영화를 보니 쓸게 많아졌고 점점 재밌어졌다. 그래서 3분기 까지 신청해버렸다. ㅎㅎ 아니 어찌면 홍수 쌤의 매력에 빠져 신청했을지도 모른다. 한 가지 분명한건 이곳이 좋다는 것이다. 여기 와서 배운 게 참 많은 것 같다. 단지 글을 쓰는 방법이 아닌 글을 쓰기 위한 과정에서 많은 것

을 느꼈다. 글을 쓰기 전의 과정에서 어떤 느낌으로, 어느 주제로, 써야 하는지 깨달았다. 스토리텔링반은 1학년에 있었던 일들 중 중요한 일Top3 에 들 것 같다.

• 기말고사

드디어 시험기간이다. 이 날을 정말, 정말 기대했다. 난 ‘이번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하면 스마트폰을 사주겠다.’라는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암기과목에 취약한 탓인지 암기과목은 죄다 80점대였다. 결국 평균 90.4. 그래서 꼴 좋게 23등을 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엄마와의 약속을 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내가 보기엔 정말 못했는데 애들을 잘했단다. 친구들이 나보고 재수가 없다고 했다. 근데 우리 반에 전교 1,2,5등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반의 반 이상이 100등 안쪽이었고, 우리 반은 1학년 반들 중 가장 평균이 높은 반이 되었다. 원래 기말고사에 대한 내용은 쓰기 싫었지만 애들이 써보라 해서 쪽팔림을 감당하고 쓰게 되었다. 그래도 기말고사는 이 책에 쓸 만한, 나에겐 아주 큰 사건이었다.

• 상담복지부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 어느 날 나와 동현이에게 상담복지부에서 오라고 했다. 그래서 갔는데 엄청 이쁜 쌤이 있었다. 지역 사회전문가 민수진 쌤이셨고 먹을 것을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시다. 민수진 쌤은 정말 착하시다. 나랑 병철이가 봉사활동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몰라서 심심하니까 상담복지부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바로

상담복지부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넣어주셨다. 6시간이나 주셨다. 심심할 때 그 쌤에게 가고 싶은데 2학년 누나들 중에 상담복지부에 맨날 있는 누나들이 있다. 그 누나들이 상담복지부에 있으면 우리는 선생님에게 말을 걸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쌤이 그 누나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민수진 쌤은 진짜, 진짜, 진짜 먹을 것을 많이 주신다. 상담복지부에 가면 그 누구라고 민수진 선생님의 식량에 놀랄 것 이다. 솔직히 민수진 쌤이 먹을 것을 많이 주셔서 좋은 것도 있지만, 착하셔서 좋다. 내가 2학년이 되면 그 누나들도 안 오겠지? 그랬으면 좋을 것 같다.

• 악기

나는 중학교에 들어와서 정말 많은 것을 해본 것 같다. 그 중에 하나는 악기인데, 예전에는 기껏 해봤자, 단소, 리코더 정도였지만, 지금은 통기타, 드럼, 피아노, 클래식 기타 등 제법 많은 악기를 다룰 수 있다. 특히 난 학교 음악 시간에 배우는 통기타시간이 제일 좋다. 기타를 치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다. 그렇게 잘 치진 않지만, 어떻게 칠 줄은 아니까 더 연습해보고 싶다. 근데 악기가 내 공부에 방해가 될 까봐 걱정하시는 아버지이시다. 그에 비해 어머니께서는 많은 걸 체험 해봐야한다고 하신다. 더 많은 악기를 체험해보고 싶고 잘 치고 싶기도 하다. 난 드럼을 좀 더 연습해서 훌륭한 드러머가 되고 싶지만, 외교관이 더 좋다. 악기는 둘째 치고 공부에 매진해서 꼭 외국어고등학교를 갈 것이다. 외교관이 되면 다시 악기를 시작하고 싶다.

• 마당극 합류

(과거) 요즘 따라 국어시간에 애들이 많이 잔다. 하지만 우리의 불굴의 의지를 가지신 홍수 쌤은 그대로 수업을 계속 하셨고, 요즘엔 거의 나랑 눈을 마주치시면서 수업을 하시는 것 같았다. 하긴 내 자리 주위에 모범생들이 많긴 많으니 그 시선을 내게 주시는 거라고 상상할 수 있다. 아니, 그럴 것 같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홍수 쌤께서 나에게 마당극에 참여해보라고 하셨다. 설레는 마음으로 점심시간에 3반에 가보니 여자애들뿐이었다.

(현재) 그때는 정말 뭘 하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있는 대본도 다 외우고 무대세팅도 해보고 직접 무대에서 해보고 대박이다. 이렇게 재밌는 것 인줄 알았으면 홍수 쌤이 나한테 시키기 전에 신청했을 것이다. 현재 1학년 마당극 팀은 3팀이다. 하나는 내가 속해있는 점심시간 마당극. 그리고 나머지는 화요일과 목요일 5, 6교시에 실시하는 선택 프로그램 ‘흥을 더하는 국어’ 프로그램이다. 점심시간 마당극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았다. 우리 팀은 ‘웃찾사’의 ‘남자끼리’와 ‘역사 속 그날’을 영화 ‘암살’과 패러디해서 만들었다. 나는 극중에서 하정우 역이다. 나는 2부 ‘역사 속 그날’에만 출연한다. 만약 이 마당극을 다른 선생님과 함께 했다면 이렇게 재밌진 않았을 것이다. 홍수 쌤은 먹을 것도 많이 사주시지만 평소에 진짜 재밌으시다. 중학교 남은 2년 동안 꼭 홍수 쌤이 담임인 반이 되고 싶다. 내년에도 마당극을 한다면 다른 애들에게 꼭 추천을 하고 싶다. 2년 연속 내가 하면 지겨울 것 같기 때문이다.

• 괴물

Chapter1. 드디어 마지막 주제이다. 그것은 바로…… 괴물이다!

Chapter2. 첫인상부터 그는 흡사 네이버 웹툰 ‘웃지 않는 개그 반’의 담임네이더 같았다. 그는 오자마자 칠판에 무엇을 적었다. 무슨 시 같았다. 그의 이름을 주제로 한 삼행시였다!

임자 이리 오시오,
홍분 되어요,
수수밭으로 갑시다, 휘닥닥~

이 삼행시를 선생님께서 쓰시자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몇몇 남자애들은 지들끼리 킁킁 웃어댔다.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제자가 지어준 삼행시라고 하셨다.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 삼행시라고 생각했다.

Chapter3. 홍수 쌤께서 독서를 정말 많이 하셔서 알고 계신 것이 진짜 많으시다. 그래서 수업 중간에 다른 이야기로 빠지기 일쑤이다. 하지만 난 그런 수업방식이 좋다. 진짜 수업보다 그런 이야기에서 깨닫고 알아가는 게 더 많기 때문이다. 어느 날 홍수 쌤께서 자신이 운영하시는 방과 후 수업 ‘스토리텔링’반을 소개해주셨다. 나는 관심이 있어서 동현이에게 하자고 했더니 안 한다고 했다. 근데 거기 가면 친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안 했다. 근데 막상 방과후 학교 1기가 지나 갈 동안 병철이와 친해지고 보니 하고 싶은 욕구가

더 생겼다. 그래서 결국은 신청했다.

Chapter4. 홍수 쌤은 나에게 선생님의 혁명이자 1학년 생활이 더더욱 재밌어진 계기가 되었다. 만약 내가 홍수 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끔찍하다. 그냥 평소 생활일 텐데 지금이 너무 재밌다보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다. 홍수 쌤은 진짜 괴물이다. 그렇게 하루에 말 안 듣는 애들도 돌봐줘야 되고 학생들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집에 가시면 피곤하실 텐데 다음날 바로 기력이 충전되시나보다. 내 롤 모델은 모든 면에서 홍수 쌤이다. 나는 홍수 쌤이 제일 좋다. 지금 예비 1학년들도 내년엔 홍수 쌤의 매력에 빠질 거라 확신하고 확신한다.

P.S. 홍수 쌤, 수진 쌤과 친해지세용……

• 김준영, 단편소설 [모범생의 최후]

“헐 이번에도 1등이야? 대단하다, 진짜”

“와~ 대박! 진짜 잘해 ㅎㄷㄷ”

점심시간, 학생들이 휴게실 게시판 앞에 몰려 있다.

“자! 이제 교실로 흩어지도록!”

생활지도부 쌤이 오셨다.

“어쩐 그렇게 잘하니? 넌 정말 우리 학교의 자랑이다.”

하얀 피부, 눈 보다 몇 배는 큰 안경, 얼굴도 이쁜 수빈이 휴게실에 들어섰다.

애들이 다 가고 혼자 남은 수빈에게 생활지도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번에도 전국 모의고사 1등이야. 널 이뻐 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구나.”

“감사합니다.”

휴게실에 들리신 선생님들에게 폭풍칭찬을 받는 수빈이다.

“수빈아, 이따가 도서관 같이 가자, 자리 예약 해놨어.”

전국 모의고사 5등이자 전교2등인 엄친아 딸 미나다.

“미안, 집에 가봐야 해서.”

단칼에 거절하는 수빈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은 미나는 그래도 계속 조른다.

항상 1등을 하는 수빈의 공부비법이 궁금했던 것 이다.

“안 된다고 했잖아, 넌 항상 왜 그러니?”

“아니, 너랑 같이 가고 싶어서 그렇지. 자리도 끊어놨는데...”

“어쨌든 난 절대 같이 못 가, 아니, 안가! 니가 그렇게 항상 쫓아 다니는 은진이랑 같이 가.”

“야 너 좀 말이 심하다? 그게 친구한테 할 말이야?”

“친구? 웃기지마, 내가 너랑 왜 친군데, 언제부터!”

짜!!

재수가 없어도 너무 없었던 수빈이의 뺨을 갈기는 미나다.

“니가 사람이야? 너 같은 건 인간도 아니야! &^*%야!!!”

미나에게 뺨도 맞고 심한 욕설까지 들은 수빈은 언제나 그랬듯이 특유의 침착한 표정으로 집에 간다.

“엄마, 나 왔어.”

“.....”

“엄마? 안계시나 보네.....”

식탁엔 밥 나가서 먹으라는 엄마의 쪽지와 10만원이 있다.

“앗싸!”

샤워를 하고 화장을 하고 아찔한 옷에 하이힐을 신은 수빈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전국1등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아 씨…… 추워”

라는 말을 하며 자연스럽게 담배 하나를 입에 문다.

부릉 부릉.

꽤나 오토바이를 잘 모는 수빈. 오래 몰아 본 듯하다.

엄청 큰 건물 앞에서 시동을 끄는 수빈. 양복을 갖춰입은 어떤 남자에게 키를 던지고 자연스럽게 건물로 들어간다.

“오셨습니까, 누님.”

“어, 몇 번 방이야.”

“9층 VIP룸입니다.”

“고마워.”

띵~

9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양옆으로 줄을 서있는 조폭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일제히 수빈에게 경례를 한다.

“안녕하십니까!!”

“올 때 마다 이러는 거 귀찮지 않냐? 나도 불편하고.. 흠흠..”

“아닙니다!!!!”

“OK, 알겠어, 형준이?”

“저기계십니다.”

“알겠어, 고마워.”

“저, 근데..”

“왜?”

“도련님 기분이 많이 안좋으십니다...”

“왜?”

“학교에서 무슨 일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음.. 알겠어.”

도도한 발걸음으로 문 앞에 가서 살짝 문을 열고 안을 드러다 보는 수빈이다.

그러고는 흠칫 놀란 표정으로,

“야, 뭐야 아무도 없잖아!!”

“네?? 그럴 리가...”

그러고는 그 무리의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도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무전을 한다.

한편 그 시간, 낯선 여자와 어디를 가는 형준.

“어디가는거야ㅋㅋ?”

“내가 너 오늘 꼭 나한테 넘어오게 할 거야.”

“어디 한번 해보던지ㅋㅋㅋ”

“아 맞다, 니 이름 뭐였냐?”

“알아서 뭐하게?”

“안 알려 줄 거야?”

“유아린”

“유아르..”

광!!!

뒤에서 무언가가 아주 세게 부딪힌 듯하다.

자신의 호텔 앞에서 사고가 난 줄 알고 당황한 표정을 짓는 호텔 주

인. 그리고 차를 뒤에서 박은 차주 수빈을 여유롭게 바라보는 형준.

“야 이 쓰놈아!!”

라는 말을 하며 형준의 뺨을 때리는 수빈이다.

“ㅎㅎ알겠어. 미안 자기.”

“뭐? 자기? 뭐야, 너. 여친 있었던 거야?”

수빈의 기에 놀리지 않는 아린이다.

두 여자를 사이에 놓고 난감한 형준이다.

“아니, 수빈아,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앞에 있는 돌맹이를 찼는데 애가 맞은 거야. 근데 갑자기 손해배상 달라면서 날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거야.”

“거짓말하지 마!”

“진짜라니까, 수빈아.”

“룸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돌맹이를 차고 여자를 맞추지?”

논리적인 수빈의 반박에 당황한 형준.

“이럴 때 보면 진짜 전국1등은 맞는 것 같아.. 양아치여도..”

“뭐? 허, 그게 지금 할 말 이야?”

형준이 답답한지 담배를 입에 무는 수빈.. 능숙한 손놀림으로 재를 던다.

갑자기 담배를 뺏어 자기 입에 무는 형준. 그런 모습에 조금은 당황한 듯한 수빈.

“어이쿠, 담배가 없어서.”

“하..”

그리고는 한 개를 더 꺼내는 수빈이다.

그 담배를 또 뺏는 형준이다.

“아, 뭘데!”

“담배 피우지 말라고. 몸에 안 좋아”

“허, 언제부터 그렇게 날 생각해 줬다고?”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죽을 때까지는 맹세할 수 있어.”

이럴 때만 똑똑한 형준의 멘트에 녹아버리겠지만 참고 특유의 침착함의 표정을 유지하는 수빈이다.

“꼴에 전국 1등이라고.”

“뭐? 뭐라 했어—— 이씨.”

금세 사이가 좋아진 둘 사이에 끼기 싫었던 아린. 금세 호텔 주인과 얘기하더니 사라졌다.

“도련님, 이제 그만 가시죠.”

“어딜?”

“오늘 유토피아 프로젝트 관해서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 회사 사장님께서 도련님 꼭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셔서.”

“안 가?”

단칼에 잘라버리는 형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널 버리고 어딜 가”

“하, 씨. 이런 거 하지 마——”

“싫은데? 더 할 건데?”

“아! 도련님! 가셔야 합니다! 도련님 안 가시면 계약 파기될지도 모.”

“닥쳐! 내 사생활을 방해하지 마!”

“하, 도련님.”

철없는 도련님이 답답하기만 한 조 비서.

“수빈아, 우리 데이트나 할까?”

“안 돼, 오늘 마포대교 밑에서 한양공고랑 맞장 있어서, 지금 가야돼.”

“야, 너 그렇게 싸오”

“올 거면 오고 말 거면 마.”

싸움이라면 이 바닥에서 유명한 형준. 하지만 수빈에게는 못 당한다.

퍽, 퍽 퍽 악!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싸움 소리가 들린다.

마치 개그프로를 보는 듯 흐뭇하게 보고 있는 수빈.

언제라도 뛰어나가 같이 싸울 듯하다.

그럴 때를 대비해 형준은 수빈을 뒤에서 끌어안고 있다.

“너 다치면 재네 다 죽일지도 몰라. 그래도 할 거야?”

“뭐 어때, 내가 다치기 전에 재네 다 죽을 텐데. 안 그래?”

“쩍. 그렇긴 하네.”

“알았으면 이거 빨리 놔”

“안돼. 그럼 나도 같이 가.”

“아 그건 안돼—— 빨리 놔——”

“싫은데 에베베베벵!”

유치한 형준이 귀여운 수빈. 갑자기 미안하다는 말을 던지고는 발뒤꿈치를 위로 든다. 아랫배를 잡고 쓰러지는 형준. 하이힐에 제대로 맞은 듯하다.

“자기^^ 미안해^^”

“야, 너 진짜..”

형준의 중요한 곳을 차고 싸우러 가는 수빈.

탕!

총소리가 나자 얼른 일어나는 형준.

형준의 시야엔 수빈이 보이지 않는다.

멍해진 형준.

달려가 보니 수빈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다.

아랑곳하지 않고 싸우는 양아치들. 칼 소리도 들리는 것 같다.

푹!

형준의 옆구리가 아파온다.

형준이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자!

형준의 옆구리엔 칼이 꽂혀 있었고 칼을 꽂은 사람은 다름 아닌 수빈이었다!!

“야, 너 이거 뭐야..”

소름끼치는 미소로 형준을 맞이하는 수빈.

“뭐해. 얼른 일어나. 장난감 칼이야.”

수빈의 손엔 누르면 들어가는 장난감용 칼이 들려있다.

“야 너 총 맞은 거 아니야? 괜찮아?”

“아~ 이거?”

자신의 피를 대수롭지 않은 듯 쳐다보는 수빈.

“이거 점심에 햄버거 먹다가 어떤 애가 내 등에 케첩 흘린건데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씨. 놀랐잖아!!!”

수빈의 몰래카메라가 끝나자 양아치들의 싸움도 끝났다. 당연히 싸움이라면 누군가는 다쳐야 정상인데 1시간이 지나도 다친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사실도 몰랐던 형준도 어지간히 멍청하다.

“아 진짜—— 짜증나. 쓰.”

“우리 자기 놀랬쨌염? 오구구, 우리 애기, 놀랬구낭~”

형준을 손자 다루듯이 하며 약 올리는 수빈이다.

혼자 차로 가는 형준. 단단히 빠진 듯하다.

“어이구, 우리 자기 빠졌나 보네~ 얼른 달래주러 가야징~ 뒷처리 잘 해~ 간다~”

“살피가십쇼!!”

빠진 형준에게 다가가는 수빈.

“자기야, 그거 알아?”

대답이 없는 형준.

“자기야~~ 미안해~~”

역시 대답이 없다.

“자기야, 맛있는 거 먹으로 가자.”

그제야 뒤를 돌아보고는 씨익 웃은 뒤 수빈에게 키스하는 형준이다.

“웁!”

“뭘, 맛있는 거라고 했잖아.”

수빈, 어이가 없다.

입술을 땀 형준은 다시 뒤돌아 앉는다.

다시 말을 잇는 수빈.

“자기야—— 오늘 무슨 날이게??”

“아, 오늘 무슨 날이야?”

그제야 또 뒤를 돌아본다.

이번엔 수빈이 깜짝 놀라서 얼른 입술을 손으로 막는다.

그런 수빈이 한심한 형준.

“에휴 하여튼 이수빈! 지 혼자 상상은 다해요, 변태○○.”

“야—— 그게.”

자기 혼자 변태 같은 상상을 한 건 사실이지만 분하다.

얼른 화제를 돌리는 수빈.

“자기야—— 오늘 무슨 날이게?”

“멀라, 변수빈”

“아, 진짜—— 우리 헤어져”

난데없이 이별통보를 한 수빈에게 놀란 형준이다.

“갑자기 왜 헤어져— 지금 변수빈이라 놀렸다고 이러는 거야?”

“자기가 50일 때 오늘 무슨날인지 모르면 헤어져도 된다고 했는데?”

“아, 오늘 우리 100일이냐?”

“와, 이제 안거야?”

“이건 좀 미안하다. ㅎㅎ 미안해~~”

“내가 오늘 놀린 게 있어서 용서 한다—— 한번만 더 이래봐——

아주 그냥 헤어질 줄 알아, 알겠어?”

“네.”

금방 꼬리를 내리는 형준..

“그럼 우리 100일이니까 뭐 먹으러갈까?”

“음. VIPS가고 싶다——”

“조비서, 밥스 최고급석으로 예약해놔.”

“네, 도련님”

다음날, 학교

“하이, 수빈”

“안녕, 수빈아~ 너가 인봉공고 짱 조형준이랑 사귄대메? 공부도 잘하고 이제 연애편지 써줬!!??”

“아—— 하지 마~ㅋㅋ”

신나는 마음으로 들어선 교실. 수빈의 책상이 온데 간데 찾아봐도 없다.

6반에 가는 수빈. 큼지막한 안경을 벗고 6반문을 연다. 김미나, 흥분한 수빈을 비꼬듯 말한다.

“전국 1등님이 여기까진 어인 행차실까?”

그러자 6반 여자애들이 웃는다.

“무서워 죽겠네. 안경 좀 써라.”

더 비꼬는 미나이다.

수빈,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미나에게 묻는다.

“내, 책상이랑 의자 어딴어?”

그러자 미나를 비롯한 6반애들은 전부 웃는다.

“왜, 전국 1등은 요즘에 책걸상도 없으시나?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기엔 너무 늦었다. 수빈, 묶여있던 머리를 푼다.

“왜? 머리끈하고 책상하고 바꾸자고? ㅋㅋㅋㅋㅋㅋ”

미나의 비꼬는 말투에 6반애들은 한 번 더 크게 웃는다.

찰싹!!

미나의 뺨을 때린 자기자신에게 놀란 듯 안경을 떨어트리는 수빈.
“허? 애들아, 나 지금 전국1등에게 뺨 맞았나? 와~ 영광이네~
이제야 본심을 드러내시나?”

수빈은 떨어진 안경을 줍고는 학교를 나간다.

갑자기 어디선가 미나에게 날아오는 칠판지우개 미나의 검은 마
이에 뽀얗게 분필 가루가 내려앉는다.

어디선가 계란이 날아온다. 미나의 머리에 부딪혀서 터진다.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미나.

“누구야!!! 어떤 새끼야!”

주위를 둘러본 미나. 아무도 없다.

“하~ 나 전국 1등 망신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수빈. 쓰년. 내가
이렇게 끝낼 것 같아? 나 김미나야, 김미나라고!”

뒤늦게 6반에 찾아온 형준. 꽤 놀란 눈치이다.

“야, 너 여기서 뭐하냐?”

“조형준? 너, 조형준이야?”

“가까이 오지 마. 으~ 더러워”

“니 이러려고 나 버리고 그놈한테 갔냐?”

6반으로 들어오려던 수빈. 형준의 목소리를 듣고 멈춰 서지만 형
준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수빈이 있다는 것을 의식한 미나. 더 큰 목소리로 말한다.

“흑흑. 형준아. 너 옛날 같이 나랑 다시 시작하면 안돼?”

하지만 단호한 형준.

“어, 안돼.”

그런 형준의 말을 듣고는 기분이 좋아진 수빈. 화장실에 간다.

“형준아. 나 힘들어. 니가 다시 내 곁에 있어줘.”

좌아악.

“앗!! 차가워!!”

“아! 더러워서 샤워 시켜주려고 했는데 옷을 입었었네?”

그러고는 형준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듯이,

“어, 자기! 우리 자기가 여긴 웬일이래.?”

“어.. 수빈아.”

“자기야! 밥 먹으러 가자~ 점심시간이자나~”

“근데 자기는 학교 안 갔어?”

“우리 방학.”

“아. 맞다. 그랬었지. 부럽다, 자기 ㅎㅎ”

“근데 수빈아 니넨 원래 1교시하고 밥을 먹어?”

형준에게 델 핑계가 점심시간밖에 없었던 수빈은 침착한 형준의 말에 당황한다.

“아! 아직 1교시밖에 안 지났었나? ㅎㅎ”

“근데 아까 개 왜 물 뿌린 거야?”

“몸이 좀 더러워 보여서 ㅎㅎ 아무것도 아니야. ㅎㅎ 신경 쓰지 마 자기야~”

“근데 개가 신경 쓰여? 아까부터 안색이 안 좋네.”

“솔직히 말하면. 어, 신경 쓰여”

“야 조형준! 지금 니 여친은 나야. 니 옆에 있다고. 지나간 과거 따위 신경 써봤자 뭐해?”

“아. 알겠어.”

“그럼 우리 오늘 학교 짜자^^”

“야 니 학교에선 모범생이라며——”

“아, 맞다! 으아! 형준아, 이따 보자!”

“어!! 뛰지 말고, 다치니깐. ㅎㅎ 귀엽단 말이야ㅋ”

혼잣말을 하며 선사고 교문을 넘으려하는 형준. 그걸 본 당직.

“어이, 누구야!!”

“아이코, 죄송합니다당~!”

학교가 끝나고 선사고 앞에 있는 조형준. 지나가는 여학생들이
힐끗힐끗 쳐다본다. 드디어 나온 이수빈.

그런 수빈을 수고했다고 안아주는 형준.

“오늘 갈 테 있어”

“어머어머, 어딘데??”

“어제 못 간 곳.”

오랜만에 보는 형준의 박력에 설레는 수빈. 그런 둘을 아니꼽게
쳐다보고 있는 김미나.

형준이 차를 가지러 간 사이, 수빈이 도로에서 솜사탕을 파는 활
아버지에게 간다.

수빈, 솜사탕 2개를 산다.

“할아버지, 많이 파세요^^”

기분 좋은 인사말을 건네고 형준이를 기다리는데.

툭. 끼이이이익 핑!

순식간에 사건이 터졌다. 미나가 수빈을 도로에 밀고 도망간 것
이다. 하지만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고, 오로지 차를 가지러 갔다가,
차가운 도로에 싸늘하게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수빈을 본 형준도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다.

며칠 뒤, 혼수상태에서 일어난 형준. 일어나자마자 수빈을 찾는다. 수빈이 죽었다는 통보를 받은 형준.

충격을 받은 형준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THE END]

8. 정보통신윤리 글짓기, 이예린의 [전학생]

가람새알



2014 전국학생제 인문체쓰기 우수동아리 교육부장관상 수상

◎ 천호중학교 스토리텔링 동아리 장편소설 가람새-알

1. 첫 만남

‘딱딱 딱딱 딱딱딱딱딱딱~’

화려하고 웅장한 멋이 있는 모차르트의 현학 합주곡 ‘작은 밤의 음악’이 첫 중학교 생활의 아침을 깨웠다.

“휴대폰 내고 모두들 자리에 앉아라.”

나긋나긋하지만 카리스마 있으신 선생님의 첫마디가 들려왔다. 비로소 내가 진짜 중학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다들 첫 만남이라 어색하고 할 말이 없었는지 평소 초등학교 때라면 시끄러웠어야 할 아침시간이 웬일인지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드디어 담임선생님께서 자기소개를 하셨고 조회를 진행하셨다. 첫인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차분하시고 꼼꼼하신 성격을 가지신 분 같았다. 약 10분 뒤, 조회가 끝나고 1교시를 준비하는 동안 내 뒷자리에 앉은 한 아이가 조심스레 말을 걸어왔다. “안녕? 나는 수현이라고 해.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너 전화번호가 뭐니?” 다짜고짜 전화번호를 묻자 좀 당황스러웠다.

“뭐? 나 핸드폰 없는데... 일단 엄마 전화번호라도 알려줄까?”

“아 그래? 음... 아냐 됐어. 근데 넌 중학생인데도 아직 핸드폰이 없냐? 엄마한테 빨리 사 달라고 해! 핸드폰 없으면 답답하지 않냐? ㅋㅋ”

뭐지, 저 갑작스런 거절은... 아 괜히 뻘쭙해진다. 아.. 민망해. 사실 난 아직까지도 핸드폰이 없다. 엄마께 핸드폰을 사 달라고 조르고 졸랐지만, 엄마는 완강히 내 말을 거절하였다. 올해는 기필코 핸드폰을 얻어내고 말겠어!

아무튼 그렇게 서로서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도 갖고, 대화도

하다 보니 하루 사이에 꽤 사이가 가까워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아침의 작은 해프닝 이외에는 꽤 괜찮은 하루였다. 좀 무서운 애들이 있어서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좋은 친구들도 몇몇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걱정과 설레임 반반으로 부풀어 올랐다.

2. 두 전학생

금방 일주일이 지나고 반 친구들이랑도 많이 친해졌다. 수현이도 처음에 좀 거리낌이 느껴졌었지만 괜찮은 친구인 것 같다. 아직 그 무서운 애들과는 친해지지 못했지만 말이다. 아무렴 어떠한가! 지금 나에게 있어 그런 작은 문제는 조그마한 먼지에 불과하다. 요 일주일 새에 엄청난 일이 두 가지나 생겼기 때문이다. 두 가지 중 첫 번째 일은 바로 나에게도 ‘스마트 폰’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이다. 엄마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자 엄마께서 받아드려 주신 것이다. 오! 인생은 왜 이리도 아름다운 것인가! 음하하하!

두 번째 일은 바로 우리 반에 두 명이나 전학생이 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반이 학생 수가 32명으로 우리 학교에서 제일 많아졌다. 전학 온 아이 중 한 아이인 지훈이는 부자인 것처럼 보였다. 직접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그 아이도 자신이 부자라는 것을 장식품(예를 들면 값 비싼 최신형 스마트폰, 최신 유행 게임기 같은 것들이 이에 속한다.)으로 과시하고 다니면서 나타냈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보고 나니 내 핸드폰은 고물처럼 보였다. 들떠 있던 내 마음이 낡은 지붕 마냥 폭삭 가라앉았다. 우리 집이 결코 가난한 집이 아닌데 막상 내 것과 지훈이의 것을 비교해 보니 우리 집이 가난

하게 느껴졌다. 나머지 한 명의 전학생은 뭐랄까, 약간 없는 집 아이 같아보였다. 전학 온 첫 날부터 떡진 머리에 낡은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자켓도 우리 학교가 지금 입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생긴 것 같았다. 그래서 인지 그 애의 주변에는 지훈이와 다르게 친구들이 몰려들지 않았고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웬지 모르게 그 애가 불쌍해보여서 다가갈까 고민도 해보았지만, 괜히 나섰다가 나만 이상한 애가 되어 버릴까봐 걱정이 되어 다가가지 않고 지훈이와 그 무리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

난 그저 평범한 학교생활을 원했기 때문이다.

3. 댓글

일요일, 오후 9시 페이스 노트에 지훈이가 글을 올렸다.

‘가난뱅이가 개 난리를 치네. 하! 지가 잘난 줄 알아 돈도 없는 찌질한 새X가! 애들아, 완전 어이없지 않음?? ㅋㅋㅋ’

↳지훈 : 아 존X 어이없음

↳미혜 : 미친 잘난 척 개 찢어

↳병수 : 지가 뭔데 지X이야 존X 깎치네

↳지훈 : 가난뱅이 새X가 개 난리네

↳수현 : 누가 난린데?

↳상희 : 그 왜 있잖아 가난한 전학생 ㅋㅋㅋ

↳수현 : 개 이름 뭐냐?

↳상희 : 모름 ㅋㅋ 이상함 그리고 돈도 없는 게 공부할 돈은 어디 있었는지 ㅋㅋ

ㄴ미혜 : 난 아직도 그 새X가 전교 1등이라는게 안 믿겨짐 아니 믿을 수 없음 ㅎ

ㄴ지훈 : ㅎ 존X 재수 없네 ㅋ우리 개 따 시킬까 ㅋㅋㅋ

ㄴ수현 : 오 콜 ㅎ

ㄴ지훈 : 야, 이지혜. 니 생각은 어떠냐? ㅋㅋㅋ

뭘...? 왜 그런 걸 나한테 묻는 거야! 그런데 지금 아무 말도 안하다가 괜히 가난뱅이 옹호한다고 오해 받겠는걸.

ㄴ지혜 : 나야 뭘... 니네가 어떻게 하던지 상관없어 ㅎ

내가 직접적으로 따 시키는 걸 찬성한 건 아니니까 괜찮아.

ㄴ지훈 : 그럼 너도 우리 팀에 들어올래?

ㄴ지혜 : 무슨 팀?

ㄴ지훈 : 가난뱅이 왕따 시키기 팀 ㅋㅋㅋㅋㅋㅋ

씩 내키진 않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

뭔가 이상하다. 뭔가 꼬이고 있다고.

4. 아물지 않는 상처

월요일 아침,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아침이었다. 태도, 표정, 떠드는 소리 등 정말 하나도 다를 게 없었다. 딱 하나 변한게 있다면 바로 분위기이다. 금요일까지만 해도 비구름 마냥 이렇게 우중충하고 음산할 수 없었다. 어제 카톡의 내용과는 다르게 지훈이 외의 그 무서운 애들도 그 가난뱅이(이름은 형찬이다.)를 특별히 건드리지 않았기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형찬이를 향한 수군거림은 계속되었다.

“야 너, 어제 페이스 노트 봤냐?”

“어. 김형찬 완전 구질구질하게 산다며, 쿵.”

“그니까. 개가 공부라도 못했어봐. 개 인생은 완전히 두 쪽 낫을 걸, ㅋㅋㅋㅋ!”

시간이 흐르고 점심시간이 되었다. 종이 치자마자 아이들은 우르르 뛰어나갔다. 그러자 지훈이가 성큼 성큼 내게로 다가와 말하였다.

“이지혜! 밥 먹으러 가자! 빨리 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지훈이와 그 외의 무서운 애들 그리고 수현이와 함께 밥을 먹기 위해 급식실에서 줄을 서고 있었다. 지훈이, 무서운 애들, 상희 그리고 나 순으로 줄을 서 있었는데 놀랍게도 지훈이 앞에 형찬이가 서 있었다. 형찬이가 급식을 받고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 그 짧은 찰나에 지훈이가 형찬이를 밀었다. 그 바람에 형찬이는 식판을 엎었고 하마터면 형찬이가 뜨거운 국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었던 큰 사고가 생겼다. 나는 너무 놀라서 나도 모르게 앞으로 뛰쳐나왔다. 그런데 갑자기 지훈이가 형찬이 앞에 쪼그려 앉더니 알밋게 웃으며 말하였다.

“짜식! 놀랐냐? 그렇게 조심 좀 하지.”

그러면서 슬쩍 뒤를 돌아보더니 나를 향해 찌려보며 비웃는 듯한 눈초리를 하고 크게 외쳤다.

“애들아 저기에 앉자! 그나저나 이지혜 넌 왜 앞으로 나와있냐? 어! 설마 너 형찬한테 괜찮냐고 물어볼라고 나온 거 아니야? ㅋㅋ”

나는 순간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부끄러워서 불이 별게졌다.

“아. 아냐! 그런 거! 그냥 혹시 지훈이 네가 다쳤나 싶어서. 네가

김형찬 바로 뒤에 있었잖아.”

그러자 지훈이가 다시금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아, 그런 거였어! 오해해서 미안, 근데 난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맙네. 그런데 형찬아, 너 어떡하니, 꼴이 이 모양이 되었으니 말이야. 하필이면 오늘 급식이 청국장이네! ㅋㅋ. 너한테 동냄새 나겠다! 푸하하하.”

지훈이가 그렇게 말하자 수현이와 미혜, 상희, 병수가 마구 웃어댔다.

‘어떡하지. 형찬이한테 보건실 가보라고 얘기해줘야 하는데... 아 진짜 어떡해.’

내가 형찬이에게 다가갈까 말까 또 다시 고민하고 있는 사이 지훈이와 나머지 무리 아이들이 빈자리로 향하고 있었다. 그래, 괜히 끼어들지 말자. 난 그저 평범한 학교생활을 원했을 뿐이니까.

밥을 먹으면서 형찬이를 슬쩍 쳐다보니 식판은 보지 않은 채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 애의 맑디 맑은 눈망울에 톡 하고 살짝만 쳐도 왕창 쏟아질 듯한 눈물이 그렇그렇 맺혀있었다.

급식을 먹고 남자 아이들은 축구를 하러 운동장으로 나갔다. 형찬이는 힘없이 터벅터벅 땅만 보며 교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운동장으로 뛰어가던 지훈이가 무슨 속셈인지 씨익 웃으며 형찬이에게 말했다.

“야! 너, 우리랑 축구할래? 끼워 줄게. 넌 나랑 같은 팀 하자. 히히.”

웬일인지 지훈이가 형찬이에게 먼저 다가갔다. 그러자 형찬이가

영겁결에 대답하였다.

“어. 그래!”

축구 시합이 시작되고, 아이들은 신나게 달리며 시합을 즐기고 있었다. 딱 한 사람, 형찬이만 빼고 말이다. 시합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에 지훈이가 공을 힘껏 차올렸다. 그 공은 화살같이 빠른 속도로 커다란 포물선을 그리며 형찬이에게로 날아가고 있었다. 이때, 심술궂은 모습의 축구공이 형찬이의 머리를 쿵! 하고 내려쳤다.

“야, 김형찬! 너 뭐해! 내가 너한테 패스해줬잖아! 너 때문에 골도 못 넣고! 이제 점심시간도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아 존X 뺏X네.”

하며 공을 가져다 정문 밖으로 뺏 차버렸다.

“김형찬! 공이나 주워와. 그리고 공, 내 발 밑에 내려놓고.”

형찬이는 많이 당혹스러워 보였다. 내가 보기에다 이걸 너무 심한 것 같았다. 결국 형찬이는 공을 주우러 나갔고, 지훈이 외의 다른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고 왁자지껄 비웃어 댔다. 공을 주워 온 형찬이의 눈에서 투명한 물방울이 축구공 위로 툭 하고 떨어졌다.

5. 잘못된 선택

축구공 사건이 일어난 뒤로도 지훈이와 그 무리 애들은 계속해서 형찬이를 따돌리기 시작했다. 형찬이가 있는데도 대놓고 하수구 냄새가 난다며 형찬이를 놀려댔기도 했다. 특히 인터넷 상에서의 따돌림은 더 심각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 부터 아무 이야기도 없이 형찬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형찬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은 삼 일째 되는

날, 담임선생님께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얘들아! 형찬이가 엊그제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잖니. 그 이유가 어제 아침에 형찬이가 스스로 자해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구나. 칼로 자해를 하는 바람에 과다 출혈로 지금 응급실에 가 있다고 하네. 형찬이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보니 요즘 형찬이가 학교 생활을 적응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 했다고 하셨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형찬이의 피가 굉장히 희귀해서 피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구나.”

선생님께서 땅이 꺼질 듯 크게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고, 우리 반은 커다란 충격에 휩쓸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자해라니.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 조희가 끝나고 지훈이와 나, 그리고 나머지 무리 애들이 함께 자리에 앉았다. 이제는 용기를 내야한다. 말해야한다.

“나, 사실 그렇게 형찬이가 싫지 않았어. 단지 조금 가난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찬이를 따돌리는 거 정말 싫었고 형찬이한테 미안했어. 페이스 노트에서 댓글 올린 것도 좀 후회도 됐고, 근데 웬지 형찬이를 도와주기 겁났어. 괜히 도와줬다가 나만 또 왕따가 되는 게 아닌지 걱정도 되었고 날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야. 사실 형찬이는 잘못이 없잖아. 용서를 구하긴 너무 늦어버렸지만 이제라고 형찬이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싶어. 혹시 오늘 나랑 형찬이 응급실에 같이 가고 싶은 사람 더 있니?”

내가 큰 소리로 외치자, 몇 명의 아이들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 놓으며 응급실에 같이 가겠다고 말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급속도

로, 하나로, 진심으로 단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때, 잔뜩 굳어있는 표정을 하고 앉아있었던 지훈이가 급하게 교실 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6.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

‘피를 구합니다. RH- A형의 피가 지금 급히 필요합니다. 제 친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RH- A형의 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발 제 친구 형찬이를 위해 헌혈하여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형찬이의 응급실을 찾은 반 친구들과 나는 페이스 노트에 올라온 위의 글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 글을 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지훈이었다. 또한 이 글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 약 30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RH- A형의 피를 가진 사람이 헌혈을 하겠다며 나섰다. 그 이외에도 RH- A형의 피를 가진 몇몇 사람들이 더 생겨나 헌혈을 하겠다고 자원을 하며 댓글을 올렸다. 이 밖에도 형찬이에 대한 응원의 글들이나 힘이 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그 결과 형찬이의 응급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지훈이를 포함한 우리 반 친구들, 그리고 담임선생님께서도 이제야 한시름 놓게 되었다. 그 날 오후, 추적추적 비 내리던 어두운 하늘은 맑게 개어 빨주노초파남보 색깔의 곱디 고운 무지개가 피어나 있었고 아직 마르지 않은 빗물이 담긴 웅덩이에 비춰진 하늘은 푸른 하늘색과 산뜻한 분홍색, 정열적인 빨간색이 어우러져 마치 물감을 칠해놓은 것처럼 아름답고 화사한 노을이 보였다. 또한 길가에 핀 작은 들꽃조차 경이로워 보였으며, 평소에는 뒹뒹뒹 걸어 다녀

달돌기라 불리우던 비둘기조차도 평화로움의 상징인 비둘기님으로 보였다. 더불어 SNS를 통해서도 친구를 괴롭힐 일밖에 없었던 나에게 이번 사건은 SNS가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이미지로 각인되었고, SNS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화창하고 밝은 햇살이 따사롭게 비춰오는 어느 날, 학교에서 소풍을 떠났다. 형찬이가 수술을 마치고 건강히 돌아온 기념으로 떠나는 기분 좋은 소풍이었다. 그리고 버스에 타기 전, 우리는 같이 탈 짝을 구하는 활동을 하였다.

“형찬아, 내가 네 옆에 앉아서 가도 되겠니? 너랑 같이 앉아서 가고 싶어!”

내가 밝고 명랑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반 친구들이 형찬이 주변으로 우르르 몰려와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자신이 형찬이 옆에 앉겠다고 외쳐 댔다. 그리고 한 아이가 우렁찬 목소리로 크게 말하였다.

“형찬이 옆자리는 내가 이미 맡아 놓은 자리니까 다들 건들지 마!”
지훈이의 목소리였다.

점점 더 소란스러워지자 담임선생님께서 낭랑하고 개구진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오~ 우리 형찬이가 인기가 많구나! 하지만 형찬아, 짝은 1명이라!
호호호”

그러자 형찬이는 씩스럽다는 듯이 말하였다.

“음.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걸요. 그냥 다 같이 번갈아 타면 안 되나요? 헤헤”

“형찬아! 나 고백할게 있어! 사실, 나 널 많이 질투했었어. 네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니까 괜히 시샘이 나는 거 있지. 정말 미안해. 내 말 한 마디, 악플 하나가 너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줄지 몰랐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기에는 너무 얽치었지만, 내 사과 받아주겠니?”

지훈이가 버스에서 형찬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크게 말하였다. 잠시 뒤 형찬이가 지훈이를 해맑게 바라보며 크게 외쳤다.

“당연하지!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나를 위해 피를 구할 생각을 했다니! 그 사실을 알고 정말 감동받았어! 물론 ‘왕따’ 라는 것을 당했을 때,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웠어.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서로 돈독한 우정을 다져나갈 수 있었잖아? 이런 일도 겪으면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해. 다시 한 번 내 목숨을 살려준 지훈이한테 고맙단 말을 전하고 싶고, 얘들아! 우리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자!”

이날 형찬이는 중학교 생활 이래 처음으로 밖에서 내리쬐는 한 줄기의 따사로운 햇살처럼 가장 밝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형찬이와 반 친구들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었다. 창문 밖의 태양은 형찬이의 새 출발을 반갑게 맞이하듯 따뜻하고 푸근하게 웃음을 지어보이고 있었다.

9. 조각보2

가람새알



2014 전국학생 인문체쓰기 우수동아리 교육부장관상 수상

◎ 천호중학교 스토리텔링 동아리 장편소설 가람새-알

9-1-1. 윤세영의 [강동(江東)과 가람새]

내가 처음으로 ‘가람새’가 ‘강동(江東)’의 순우리말이라는 그런 고마운 정보를 알게 된 곳은 스토리텔링 동아리에서였다. ‘가람’이 강(江)을 뜻하고, ‘새’가 동쪽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지낸다. 그런데, 나에게는 웬지 모르게 ‘가람새’에 멋있는 구석이 있다고 느껴졌다. 나는 그저 ‘강동’을 서울의 가장 동쪽에 있는 변두리 지역으로 생각했는데, 스토리텔링 동아리에서 그 생각은 180도 달라졌다. 이제, 이 자랑스러운 ‘가람새’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암사선사유적지이다. 암사선사 주거지라고 해도 맞다. 왜냐하면 선사 시대 사람들이 그곳에서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즐기며 산 곳이기 때문이다. 빗살무늬토기는 암사, 더 나아가서는 ‘가람새’의 상징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동서울 IC에서 서울 방향으로 나올 때 홀로 우뚝 서있는 빗살무늬토기 조형물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강동으로 온 모든 사람들을 반겨주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두 번째 자랑할 점으로는 풍납토성을 꼽겠다. 풍납토성은 백제 초기에 만들어졌는데, 남북으로 길게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풍납토성은 남북으로 2km, 동서로 1km, 높이는 7~8m 정도이다. 이 성곽은 이제 흙 둔덕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도 백제 사람들이 그곳에서 전쟁을 하였으며, 적들을 막아내는 모습을 생각하니 생생하다. 실제로 거기에서 전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세 번째는 자랑할 점이라기보다는 좋은 점일 것이다. 바로 경기도 쪽으로 바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바깥 레저 활동을 할 때 매

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한강을 따라 쪽 나있는 길을 차로 천천히 달리면, 도심에서 발생하는 모든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날아간다. 이렇게 차로 몇 분만 나가도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가끔 자전거로 한강을 따라 나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도시 반대방향으로 달리면, 시골길다운 그런 주변 풍경을 한순간에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서울에서 ‘가람새’에 살고 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생각한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나의 ‘가람새’에 대한 사랑은 계속 될 것이라고 믿는다.

9-1-2. 문수연의 [진로모색의 험난한 여정]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천호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문수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가요? 저의 14년 인생에서는 짧았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2가지의 큰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 쪽으로 가야할지 음악 쪽으로 가야할 지에 대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공부, 공부, 공부로 나아가는 전형이라 쉽게 음악을 선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이 나를 공부 쪽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뒤 육상과 공부, 이 둘로 두 번째 갈등이 생겼습니다. 우연히 학교육상부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고 부모님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육상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육상부에 들어갔지만 공부를 해야 할 지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 할 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하나의 구간이 지나가면 또 다시 다른 구간이 찾아오고 그렇게 해서 인생의 바퀴

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나는 선택해야하고 이겨내야 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하지만 나는 내 미래를 알지 못 합니다. 또한 그 많은 길들 중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르기에 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 곁에 있던 친구들과 어른들은 나에게 여러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은 그냥 공부하라는 말이었지만 딱 한 사람은 의외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해도 이런 순간들은 또 다시 온다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라고,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이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 이해도 안 되고 어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분 말씀처럼 하나님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믿든 말든 인생의 힘든 시기가 계속해서 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뿐인 인생이기에 선택하기 힘들고 아무 것도 모르겠고.. 힘내요 우리.....

한 번 뿐인 인생을 위해.....

9-1-3. 우리들의 이야기 - 千戶日報

재희 : 2015년, 기억할 만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

세영 : 글썸. 다들 다들 거야. 나는 2학년 천호예술제 마당극 ‘독립군끼리’가 가장 기억에 남아!

재희 : 민수야, 천호일보 한 번 가져와 봐!

민수 : 그래!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타이틀이 ‘천호중학교 2학년 예술제 사제동행의 도가니’야. 부제는 ‘수시문예체활동으로 천호 학생 모두가 주인공 되는 기회의 장, 인간미 넘치는 재능기부와 사제동행의 한마당’인데!

수연 : 내가 읽어 볼게! 그날 2학년 쌤들의 ‘복면가샘’이랑 ‘천호학당’ 정말 재미있었지!

연주 : 맞아. 2학년 선배들도 그랬겠지만 찬조 출연한 우리들이랑 3학년 선배들도 난리가 났잖아. 교장선생님도 완전 고개가 뒤로 젖혀지셨지! 정말 재미있었어!

수연 :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천호신문 기사는 복면가샘부터 시작이다. "8개조의 복면 쌤들이 펼치는 감동과 환희의 무대 복면가샘! 이제 시작합니다." 밀리언셀러 가수, 우리 시대의 가왕 김건모 씨의 '마이 썸' 간주가 흐르자 아나운서 김성주 씨를 대신해서 사회자 임홍수 교사의 소개멘트에 이어 황금박쥐, 겨울왕국 엘사 유모, 오 마이 비너스로 분장한 세 명의 교사가 2학년 천호예술제를 사제동행의 축제로 불을 당겼다. 학생들은 환호했고 함께 자리한 학부모와 강동구청 교육지원과 담당자들도 박수로 화답했다. 황금박쥐의 애니메이션 마법천자문 코스프레, 겨울왕국의 엘사 유모의 'Let it go'와 섹시댄스, 오 마이 비너스의 혀 짧은 발음의 무한 애교에 객석은 야단법석을 초월했다. 박수와 환호로 복면을 벗고 얼굴이 공개되자 또한 번 천호교육가족은 자지러졌다. 한문과 2학년 ○반 담임교사 ○○○, 교무행정팀장 수학과 교사 한화숙, 마지막으로 역사과 2학년 ○반 담임교사 ○○○ 교사의 눈높이 교육이 돋보이는 사제동행의 무대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또 한 번의 사제동행 학교 2015 미니시리즈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 : 다음은 내가 읽어볼게. 천호학당! 2학년 9개 학급의 담임교사와 국어과 ○○○, 체육부장 ○○○, 중국어 원어민 교사 ○

○○, 보건교사 ○○○ 교사가 만드는 제자 사랑과 계기교육의 마당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진행되었다. 담임샘 역의 ○○○(2-○) 교사의 출석체크로 시작, 교무부장 ○○○(2-○) 교사와 생활지도부장 ○○○(2-○) 교사의 '응답하라1988'의 반갑고만 패러디로 이어지고, 도덕과 ○○○(2-○) 교사와의 여학생 화장지도 상황극에 이어 국어과 ○○○ 교사를 ○○○(2-○) 교사와 ○○○(2-○) 교사가 교묘하게 금전갈취를 시도하자 나타난 남친 ○○○ 교사의 구출 장면에서 학생들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건전한 이성교제 전과 후를 ○○○(2-○) 교사와 ○○○(2-○) 교사가 재치 있는 상황극으로, ○○○(2-○) 교사와 ○○○(2-○) 교사가 연예기획사 사칭 사기 대처법을 실감나는 상황극으로 보여주자 천호예술제는 달아올랐다. 남녀가 손만 잡아도 아기가 생기냐는 과학과 ○○○ 교사의 질문에 과학시간에 뭘 배운 거냐며 보건실에서 개별지도 하겠다, 휴지를 교실바닥에 슬쩍 버린 도덕과 ○○○ 교사의 태도에 도덕 시간에 뭘 배웠냐는 보건교사 ○○○ 교사의 멘트에서 천호교육가족은 모두 포복절도할 수밖에 없었다. 내일 크리스마스이브에 무얼할 거냐는 ○○○ 교사의 질문에 성교육 후의 ○○○ 교사가 ○○○ 교사와 유니버설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 관람이라는 대답에 선생님도 갈 예정이라며 천호학당은 정말 멋진 학교라는 멘트는 객석을 다시 쓰러뜨렸다. 피날레 exid의 '위아래' 섹시댄스 군무는 사제동행의 마당 천호학당의 압권이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었다. 이날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진로진학부 영어과

건빵샘 ○○○ 교사의 카메라 렌즈에 살가운 한 편의 종합예술로 살아남았다, 이렇게 끝나! 와, 대박 길어! 숨이 가쁘다.

중훈 :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서울특별시교육청 선정 학생자치활동 모델학교이자 강동구와 함께 만드는 좋은 중학교 천호중학교 창의인성부와 학생회 주도로 시작된 수요일 1, 2학년 굿모닝 콘서트, 목요일 점심시간의 천호킹왕짱 콘서트, 정원콘서트로 수시문예체 활동의 기반을 마련한 것도 음악시간의 1학생 1현악기 연주하기 수업목표로 한 기타수업이 가장 큰 몫을 차지했던 노하우와 열정이 모인, 2학년 예술제가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오후에 열렸다.

지민 : 학생회장단(학생회장 ○○○(3-○), 부학생회장 ○○○(3-○), ○○○(2-○) 3명과 학생회 2학년 차장 ○○○(2-○) 학생의 진행으로 국민의례와 김영숙 교장의 격려사에 이어 천호 챔버(지도교사 이지현)의 오프닝으로 시작된 천호 2학년 예술제는, 김영숙 교장과 이수형 교감의 수시문예체활동을 통해 천호학생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기회의 장을 모토로 시작되었고 이날 그 화려하고도 인간미 넘치는 재능 기부의 마당으로 활짝 꽃 피었다.

준석 : 아직도 기사가 남아 있어. 와, 천호예술제 3학년, 1학년, 2학년 종합판이라 그런 가봐. 마당극 [독립군끼리] 이야기도 있네. 정말 대단하다, 흥수쌤! 그 다음에는 찬조 출연한 다른 학년들 기사야! 강동토요문화학교 3학년여학생댄스동아리 멤버이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 합격한 경기민요 국악신동 어보원(3-○), 쟁강춤의 ○○○(3-○), 어머니와 함께 하는 해

금 공연, 토요일오후 학교 가야금 등의 국악 공연, 음악이랑 놀자(지도교사 이지현)의 캐럴 메들리 기타합주, 모듬북동아리(지도교사 ○○○)의 '난타', 천호밴드(지도교사 ○○○)의 멋진 피날레 등 3학년 선배와 1학년 후배들의 찬조공연이 펼쳐지는 사이에 이날의 손님 1학년들이 수줍지만 당찬 풋풋함을 자랑했다.

경도 : 유니버설 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에 대한 얘기까지 있으니, 2015년 1년 이야기가 다 녹아있다고 보면 되겠다. 논평도 있어. 한 마디로 2학년 천호예술제는 수시문예체의 아름다운 웃음꽃으로 활짝 피어나, 함께 감상하며 같이 맛 보게 될 서울형자유학기제와 강동구와 함께 만드는 좋은 중학교를 통해 모색된 맛있는 진로의 열매를 기대하게 하면서 2학년판 천호예술제 한마당은 통통 튀는 학생들의 상큼함과 강렬함으로 2개월, 3회 공연의 대장정을, 끝이 아닌 새로운 꿈을 향한 또 한 걸음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매조지 되고 있어!

신영 : 같은 날자 천호일보, THE CHEONHO TIMES '호두까기인형' 기사는 많이 짧아! 아마도 아직 살을 더 붙이지 않아서 일거야.

준희 : 천호중학교 유니버설 발레단 '호두까기인형' 진로체험 특별나들이라는 타이틀에 부제가 '문화체험으로 상상력에 바탕한 문학적 사고의 무한함을 아날로그와 디지털 과학기술로 한 21세기 스마트시대 개척'이야. 멋지다!

재희 : 천호중학교 1학년들이 특별한 문화체험을 겸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 정규 수업 후에 5호선 아차산역에 위치한 유니

버설아트센터에서 국립발레단의 발레 '호두까기인형'을 2015년 12월 23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의 환상적이고 드라마틱한 문화체험을 가졌다.

신영 : '호두까기인형' 문화체험을 통해 상상력에 바탕 한 문학적 사고의 무한함을 아날로그와 디지털 과학기술을 통해 21세기 스마트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러시아 대문호와 만나고 현재와 만나서, 비전 2050년 문화대국 대한민국을 위한 콘텐츠와 앱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구축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느꼈으면 하는 학교장의 교육관을 읽을 수 있었다.

준희 : 음악과 발레로 이야기를 엮어가는 '호두까기인형'에서 천호중학교 1학년들은 스토리를 읽어내고, 테크닉과 과학적 상상력, 예술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할 것이다. 김영숙 교장의 수시 문예체활동을 통한 진로모색의 아름다운 꽃이 활짝 꽃을 피워당찬 열매를 기대하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연주 : 내일 2015년 12월 24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2학년들의 의 크리스마스 이브에 만나는 '호두까기인형' 관람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메리 크리스마스! 천호학당에서 예고한 그대료야. 게다가 감성적인 Merry X-mas까지! 정말, 재밌다.

재희 : 그런데 왜 선생님들 이름을 몇 분만 빼고 ○○○으로 처리한 거야?

지민 : 아마도 개인정보보호 차원이 아닐까 싶어. 홍수 쌤 블러그 보면 전체공개는 해도 스크랩은 금지하고 있잖아. 그게 이유래. 그래서 정말 성함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쌤의 경우에는 아예 블러그 일기에 이름을 적지 않거나 비공개로 한다잖아.

연주 : 나도 처음에 내 이름 공개되는 거 정말 싫었는데. 사람마다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의 차이라고 봐야지! 그리고 ○○ ○이 누군지 궁금하면 검색어 치고, 해당 블로그에 들어가서 숨은그림찾기처럼 확인할 수 있어서 더 좋더라!

민수 : 그래서 우리 스토리텔링 동아리가 준비하는 장편소설 [가람 새-활]도 가정통신문 보냈잖아. 희망여부 동의서 제출하라고. 사실 좋지 못한 내용만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동의서를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봐!

재희 : 영화 [변호인]에서 주인공의 자녀 학교에 협박 전화가 왔다는 내용에 주인공과 아내가 엄청나게 놀라잖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학교랑 학급만 알면 개인의 정보가 눈덩이처럼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서 비공개나 부분공개로 처리하는 게 요즘의 추세라는 말을 정보소양교육 시간에 배운 게 이제 생각난다. 앞으로 조심할 일이 정말 많아서 조심스럽다. 오늘은 요 정도로 끝내자. 다들 수고했어. 짜이찌엔(再見)!

준희 : See you again!

10. 인사이드아웃, 시화전 & 시낭송회

가람새알



2014 전국학생 인문체쓰기 우수동아리 교육부장관상 수상

◎ 천호중학교 스토리텔링 동아리 장편소설 가람새-알

연주 : 벌써 2015학년도도 2달 남짓 남았습니다. 교정에서는 오늘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국어 선생님들과 창의인성부 선생님들과 학생회가 함께 시화전을 펼쳐지고요, 또 오늘과 내일은 ‘사과의 날 행사’가 상담복지부와 위클래스에서 있다고 합니다.

준희 : 아울러 10월 23일 금요일에는 우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천호체육대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일 열리는 목요일 점심시간의 축제, ‘천호 킹왕짱 콘서트’도 기대됩니다. 덧붙여 올해부터 달라진 천호예술제 학년별 예술제 중에서, 제일 먼저 11월 24일 화요일 3학년 예술제가 6, 7교시에 열린다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연주 : 이어서 12월 16일 수요일 5, 6교시 1학년, 12월 23일 수요일 5, 6교시에 2학년의 천호예술제가 진행됩니다. 각 학년이 주축이 되는 학년별 천호예술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준희 : 네, 그럼 오늘 시화전 기념 시낭송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주 : 오늘 시낭송회 참석자들의 긴장을 풀 겸해서 제가 먼저 시낭송 한 번 하겠습니다. 작가와 제목을 맞춰보세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준희 : 하아, 그거 다 아는 시 아닌가요?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1연, 이기적인 ‘너’에 대한 질책 부분…… 맞죠! 그럼 제가 한 번 낭송해볼게요, 맞춰보세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연주 : 아, 정현중 시인의 [섬]이라는 시 전문입니다. 맞죠!

준희 : 네, 맞아요. 그럼 오늘 준비한 시낭송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1학년 3반 문수연 학생입니다.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을 재
구성한 가수 마야의 [진달래꽃] 감상하겠습니다.

수연 :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
다. 내가 떠나 바람 되어 그대를 맘돌아도 그댄 그녈 사랑
하겠지. 사랑 그 아픔이 너무 커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대
행복하길 빌어줄게요. 내 영혼으로 빌어줄게요~

연주 : 우와, 시를 노래로 들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준희 : 다음은 2학년 ○반 ○○○ 학생의 노래와 2학년 ○반 ○○○
학생의 랩으로 듣는 김광규 시인의 [동서남북]입니다. 특히 2
학년과 3학년은 국어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있어서 잘 들릴 거
라고 합니다. 뮤직 스타트!

봄에는 연녹색 물결 북쪽으로/ 북쪽으로 퍼져 올라간다/ 철조
망도 군사 분계선도 거리낌 없이/ 북상한다/ 산맥을 넘고/ 들
판을 지나서/ 진달래도 개나리도 월북한다/ 여름이면 빠꾸기
노랫소리/ 개구리 우는 소리/ 어디서나 똑같다/ 가을에는 황
금빛 물결 남쪽으로/ 남쪽으로 퍼져 내려온다/ 비무장 지대도
민통선도 거리낌 없이/ 남하한다/ 강을 건너고/ 계곡을 지나
서/ 코스모스도 단풍도 월남한다/ 겨울이면 시원한 동치미 맛
/ 얼큰한 해장국 맛/ 어디서나 똑같다/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 온 세상을 하나로/ 하얗게 뒤덮는 눈보라/ 아무도 막을 수

없다//

- 김광규 시 [동서남북] 전문 인용.

연주 : ‘분단 현실의 극복에 대한 소망’을 주제로 한 김광규 님의 시를 이렇게 들으니까 평화통일이 그리 멀게만 느껴지지 않네요. 와우, 정말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었어요. 노래와 랩으로 부르는 시낭송 자주 시도해 보면 시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준희 : 다음은 플룻과 기타 선율에 맞추어 1학년 4반 이예린, 1학년 6반 이채린 학생이 김종상 시인의 [단풍]과 윤동주 시인의 [코스모스]를 낭송하겠습니다.

빨갭게 익어가는 감을 닦아서/ 잎사귀도 빨갭게 물이 들었네./
감나무에 떨어진 아침 이슬은/ 감잎에 담겨서 빨갭 물방울.//
셋노란 은행알이 달린 가지에/ 잎사귀도 노랗게 잘도 익었네./
은행나무 밑으로 흐르는 냇물/ 은행잎이 잠겨서 노랑 시냇물.//

- 김종상 시 [단풍] 전문 인용.

청초한 코스모스는/ 오직 하나인 나의 아가씨// 달빛이 싸늘히 추운 밤이면/ 옛 소녀가 못 견디게 그리워/ 코스모스 핀 정원으로 찾아간다// 코스모스는/ 귀뚜리 울음에도 수줍어지고 //코스모스 앞에 선 나는/ 어렸을 적처럼 부끄러워지나니// 내 마음은 코스모스의 마음이요/ 코스모스의 마음은 내 마음

이다//

- 윤동주 시 [코스모스] 전문 인용.

연주 : 와우! 플롯의 2학년 ○반 ○○○, 1학년 ○반 ○○○, 기타에
1학년 ○반 ○○○ 학생의 선율도 정말 좋았어요.

준희 : 네, 이 선율에 맞추어 국어과 임홍수 선생님의 자작시 [등나무] 낭송입니다.

홍수 샘 : 등나무! 임홍수. 내 국민학교 교무실 앞에는/ 막 가지 뻗는 등나무 있었다./ 6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알침 한 토막 때문에 흠잡아지 된/ 우리에게 칩과 등나무 이야기를 하셨다./ 흔히 하는 갈등이란 말이 둘에서 왔다고./ 등을 맞대고 한 시간 앉아 있으라던...../ 우리의 갈등이 풀릴 때쯤 등나무는/ 푸르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서른세 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찾아간 내 국민학교 한 편에는/ 등나무가 배경처럼 서 있었고,/ 내가 가져간 모든 갈등을 덩그러니 안아/ 푸른 미소처럼 저절로 풀리게 하였나니.// 감사합니다.

준희 : 네, 오랜만에 임홍수 선생님의 진지한 모습을 봅니다. 개그 본능을 억누르고 시낭송의 진면목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박수!

연주 : 국어시간에 갈등(葛藤)의 어원을 배웠는데, 오늘 선생님의 시를 들으면서 새록새록 기억이 나면서 어휘의 기원을 알면 그 의미가 더 쉽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희 : 이제 준비한 시낭송은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5교시 수업 들어가세요.

연주 :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례 시간에 ‘사과의 날’ 맞이 해서 교장선생님께서 먹음직한 홍옥, 붉은 사과를 준비하셨습니다. 친환경마크를 획득한 사과니까 껍질 채 드시라고 하네요. 사과 먹으면서 그동안 미안했던 친구에게 사과하는 것, 잊지 마세요! 5교시 수업 예비중 올리고 있어요!

To. 영화 [인사이드 아웃] 감정들에게

안녕 ‘감정 컨트롤 본부’에서 일하는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다섯 감정들이! 난 천호중에 다니고 스토리텔링과 흥을 더하는 국어 임흥수 쌤의 구박을 받고 있는 김연주야. 너희가 낯선 환경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라일리’에게 행복을 되찾아주지? 내 행복도 너희들이 찾아줄래? 난 흥을 더하는 국어 화요일반 작가야. 대본을 쓰거나 고치지. 흥을 더하는 국어가 그냥 마당극이나 마찬가지로, 제대로 하려면 배우들이 연습을 하고 대본을 외워야 하잖아. 근데 우리 화요일반은 몇몇 애들은 제외하고 대본을 외우질 못했어. 그래서 임흥수 쌤이 요즘에 화를 엄청 많이 내고 소리를 엄청 지르거든! 물론 평소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로이지만……

귀 따갑고 어쩔 때는 침까지 튀겨. 만약 머릿속에 감정 컨트롤 본부가 있다면 임흥수 쌤은 거기에 버럭이와 까칠이밖에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ㅎ! 임흥수 쌤은 내가 쳐다만 봐도 췌려보냐고 하고, 웃겨서 웃는 건데 비웃느냐고 해. 아마 웃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선생님 제 2의 직업으로는 개그맨이 되고 싶다고 하셨거든. 그런데 나중에 개그맨 되려면 아직 부족한 것 같아. 왜냐면 하나도 안 웃기거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기쁨이란 감정은 매우 중요하지
대장 기쁨아! 그에 반해 슬픔, 분노, 소심한 감정들은 참거나 숨기
려는 경우가 많아. 근데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 그 아닌 경우는 임
흥수 쌤이야! 원치 않는 경우에서 어어어어어어어어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며 싫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슬픔’은 실의에 빠졌을 때 휴
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소심’은 위험한 것을 피할 수 있게
하며, ‘까칠’은 맛이 없거나 싫어하는 음식을 거부하지.

한쪽 감정에 치우친다면 감정의 깊이가 생기지 않고, 타인에 대
한 이해에도 제한이 생겨서 분명 모든 감정들은 필요해. 실제로 현
대 심리학의 흐름을 보면 모든 감정에는 나름의 동기가 있고, 그 감
정들 사이의 연결이 긴밀해지면 보다 고차원적인 감정인 ‘사회적 감
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해. 그러니까 항상 슬프고 화나는 감정을 숨
기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결국 모든 감정들이 공통적으
로 원하는 것은 행복이니까. 너희들의 고유의 색 있지? 기쁨이는
노랑, 슬픔이는 파랑, 버럭이는 빨강, 까칠이는 초록, 소심이는 보
라색! ‘핵심 기억’은 가장 밝게 빛나는 구슬을 만든다며. 나도 가장
기억나는 몇몇 기억들이 있으니까 핵심 기억이 있는 것이겠지? 핵
심 기억은 사람들의 성격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래. 그럼 핵심
기억이 좋으면 성격도 좋겠대! 그치~?

근데 기쁨아 넌 왜 라일리에게서 슬픔이를 떼어내려고 했어? 근
데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긴 하다. 나도 [인사이드 아웃]을 보기
전에는 행복한 삶엔 슬픈 감정이 필요 없다고, 너와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 슬플 때는 충분히 슬퍼해야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
을 수 있대. 슬프면 힘 빠지고 아무 생각이 안 드니까 온전히 그 상

황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해결 방안을 찾고 극복할 수 있는 거래. 스스로를 강한 존재라고 믿는다면 마음껏 슬퍼하는 일이 더 이상 겁나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ㅋㅋ! 장난이고, 우리 모두 스스로를 믿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면 좋단니까 찾아봐^^ 감정을 공감해주는 것만큼 큰 위로는 없단니까!

재희 : 연주야, [인사이드 아웃] 제대로 분석했네. 흥수 쌤이 좋아하실 거얌.

연주 : 그럴 리가! 또 비웃느냐고 장난이나 치시겠지. 근데 마당극은 잘 돼가? 나, 그때 마당극 [독립군끼리] 기록 맡으라고 할 때 연기 욕심내다가 잘렸잖아.

재희 : 그랬지. 세영이가 너 대신 잘하고 있어! 지금이라고 오면 네게 적당한 역할이나 스태프를 만들어주실 거야. 와봐!

연주 : 아냐. 내년에 한 번 부딪혀 봐야지. 이번에는 벌써 마당극동아리가 틀을 잡고 있으니까 내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해!

재희 : 그래!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 내년엔 네가 연출 한 번 해 봐! 생각보다 배우는 게 많고, 느끼는 것도 많아!

연주 : 생각해볼게! 근데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십자성 마을에 재능기부콘서트랑 봉사활동 다녀왔잖아. 근데 그때 블로그 기사에 첨부한 사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재희 : 천호중학교는 2015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천호1동 주민센터(동장 신영자)와 함께 뜻 깊은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을 가졌다. 오후 방과후에 창의인성부(부장 이지현) 주관으로 사제동행 재능기부콘서트와 봉사활동을 가졌다. 1학기에 예정

되었던 이번 프로그램은 ‘메르스’ 여파로 연기되었다가 2학기 들어 다시 추진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시 선정 에너지자립마을(회장 ○○○, 전무 ○○○)인 십장성 마을을 소개하는 동영상과 PPT를 시청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와가 마을주민과 함께 베트남전 참전 해병대 출신 상이용사들 마을인 십자성 마을의 역사를 공유했다.

준희 : 2012년 10월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의 에너지자립 시범마을로 선정된 후, 주민들이 에너지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마을절전소 운영,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틈새바람 잡기사업 실시, 옥상텃밭 가꾸기 등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군인정신으로 일사분란하게 동참한 결과 전기생산량의 증대는 물론 사용량 대비 전기요금을 30%이상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지구 온난화로 몸살을 앓는 지구를 위해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에너지 자립 사업이야말로 국가뿐만 아니라 지구를 지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민수 : 이어서 방과후학교 기타동아리의 '내 나이가 어때서' 등 4곡의 공연이 주민들의 환호 속에 이루어지고 천호중학교 2학년부(부장 ○○○)와 학부모회가 손수 만든 향비누를 기증하였다. 창의인성부와 학생회(회장 ○○○(3-○), 부회장 ○○○(3-○), ○○○(2-○)), 학년대표, 인권모색동아리(반장 ○○○(3-○))가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동구청이 함께 하는 학생자치활동 모델학교 지원 예산으로 준비

한 빵과 음료를 나누며 67주년 국군의 날을 자축하고 위로 하였다.

준석 : 이번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은 조출한 시작을 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천호중학교와 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상시적으로 십자성 에너지자립 시범마을과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효문화와 어른공경, 지역 청소년 보호와 상담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사랑방으로서의 역할, 봉사활동 연계프로그램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을이 학생들을 함께 보호하고 가르치는 마음공동체의 역할과 함께 어른 공경을 통한 바른 인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석다조의 지역연계프로그램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연주 : 기사가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블로그 사진에서 분명히 거기 있었던 애가 한 명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재희 : 그게 누구데! 확신할 수 없지만 사진 속에 한 사람이 서 있을 공간이 마치 투명인간처럼 비어있다는 사실이야!

준희 : 가만히 있어봐! 그렇게 보려면 그렇게 보이는 곳이 이 왼쪽 끝줄에서 두 번째같아 보이기도 해!

민수 : 설마, 그럴 리가! 아냐, 착각일 수 있어!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의 증거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준희 : 그럼 다른 기사를 찾아볼까?

준석 : 비슷한 시기의 블로그 기사가 뭐가 있었지?

연주 : 인성교육주간 기사가 있었어! 한 번 찾아보자!

재희 : 천호중학교는 창의인성부, 학생회 주관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를 인성교육주간으로 정하고 다채로운 학생자치 활동을 가졌다. 10월 1일 국군의 날에는 메르스 여파로 연기했던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십자성에너지마을 재능기부콘서트 및 봉사활동을 가졌다. 베트남전 파병 해병대 자립 마을인 십자성 마을에서 전시에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들이 평화시에는 환경보호를 통한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국가에 기여하는 올바른 국가관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 아울러 학생들은 재능기부 콘서트를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는 좋은 계기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민수 : 이어서 10월 5일과 6일에는 생활지도부(부장 ○○○) 선도부와 함께 학생회가 바른 인성 가지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듣기 좋은 말과 싫은 말을 직접 써서 화이트보드에 붙이면서 역지사지의 자세와 말의 소중함과 무서움을 자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 선도부 기사도 있네! 아주 좋아!

신영 : 10월 7일에는 1학년 3반과 함께 굿모닝콘서트의 아름다운 선율을 배경으로 바른 인성 갖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급별 인성덕목 정하기와 개인별 인성덕목 정하기를 통해 배려와 나눔, 소통과 예절 등의 자기인성덕목을 정해 목표가 있는 삶을 모색하게 하는 소중한 계기였다. 학급마다 인성덕목 개인별, 학급별로 정해서 예쁘게 인쇄해서 붙여놓고 그랬지, 아마!

준희 : 10월 13일 점심시간에 열리는 제7회 대의원회의에서는 학년

별 예술제 준비와 체육대회 준비 안건 토의와 함께 독도 바로 알고, 제대로 알리기 동영상 시청과 함께 대안 제시를 위한 뜨거운 토론도 열릴 예정이다. 특별한 게 없네.

준석 : 이를 통해 자신의 진로 모색하고 이를 확장하고 이를 계획적으로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실천의 장이었다. 물론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겠지만 학생들은 시나브로 바른 인성을 기르며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험난하지만 즐거운 인생 향로를 인성과 진로의 나침반과 함께 항진할 것을 기대하는 인성교육 주간이었다. 꿈보다 해몽이라고 기사 정말 잘 쓴다, 그치?

연주 : 아니야. 잘 봐! 선생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랑 가장 듣기 싫은 말 캠페인 하고 있는 이 사진 좀 봐! 여기도 누군가가 분명히 있었던 자리가 투명인간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준희 : 그래, 그럼 이게 누구야?

민수 : SF 영화 너무 많이 봐서 그래! 뭐가 특이하냐?

연주 : 그래, 내 착각일 수도 있어. 그런데 요즘 애들이 말하는 ‘이 아호’가 실제 존재한다면 아마도 이 자리에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

재희 : 6월 9일 수거 차량이 오기 전에 학생회와 학년대표자회의 및 인권모색동아리 회원들이 스쿨 지킴이 사무실로 제3세계 희망의 운동화, 영어도서, 책가방 등을 옮겼고 10시 50분에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하는 희망의 운동화 제3세계 보내기 캠페인 위탁기관인 ‘드림빅연구소’의 수거차량을 통해 기부물품을 기부하였다. 학생 스스로의 힘으로 기부의 참의미와 학생자치활동

의 작은 꽃을 피운 조출했지만 뜨겁고 흐뭇했던 기부의 시간이었다. 이 기사에 첨부된 사진에는 특별한 게 없어 보여!

준희 : 그럼 아예 3월 3일 입학식 날로 가볼까? 타이틀이 천호중학교 새내기와 교정의 봄풍경, 봄처럼 부지런해라!, 부제는 맑은 날의 교정 연못은 따뜻한 햇살아래 무지갯빛 꿈을 꾸는 큰고래를 닮았다, 멋지다.

재희 : 가마니처럼 가만히 있지 마라!

준석 : 보자기처럼 보자보자 하지도 마라!

민수 : 여러분들은 일상처럼 책을 읽고,

신영 : 일상처럼 여러분의 시간, 시간을 기록으로 남겨라!

준희 : 여러분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하다.

재희 : 작은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땀 흘려라!

준석 :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나브로 성장한 자신의 모습에 뿌듯하리라!

민수 : 비 오는 날의 교정 연못은 마치 고래처럼 비상할 것 같았다.

신영 : 여러분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닮았다.

준희 : 맑은 날의 교정 연못은 따뜻한 햇살아래 무지갯빛 꿈을 꾸는 큰고래를 닮았다.

재희 : 큰고래의 커다랗고 날랜 덩치처럼 창대한 꿈을 꾸리라, 기대해 봅니다!

연주 : 정말이다. 3월의 천호연못은 아직 맹아(萌芽)도 보이지 않아. 그냥 겨울 같은데, 5월의 천호연못은 비를 흠뻑 머금고 있어서 정말 예쁘다. 7월은 담록(淡綠)이 초록(草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지. 야, 천호연못의 사계(四季)를 보니까 더욱 분명해지는 게 있어. 여기에 분명히 이아호가 있었던 거야. 입학식 날 3반 교실 사진에도 같은 현상, 투명인간처럼 빈 자리가 역력해!

준희 : 5월 13일 서울랜드 세계시민교육관 앞에서 찍은 사진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연주 : 9월 13일 강동선사문화마라톤대회 사진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 진표 옆에 이 자리!

준희 : 10월 10일 강동선사문화거리퍼레이드 기사야. 여기에서는 눈에 띄지 않은 것 같아!

재희 : 10월 10일 토요일 오전에 강동선사문화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대회 기사야. 여기 이 사진을 봐! 동일한 현상이 보이잖아!

수연 : (언제 들어왔는지 수연이가 말했다.) 그날 우박 내리고 난리가 아니었잖아! 사진 속에 이 자리는 분명 누군가가 우리랑 함께 있었다는 거네!

연주 : 오전과 오후에 사진에 차이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언급한 행사활동 중에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기사와 사진들의 공통점은 무얼까?

준희 : 혹시 1학년 아냐?

재희 : 그래! 모두가 1학년이 참가한 행사에서 나타난 현상이야. 더 찾아보자!

연주 : 그렇다면 이아호는 1학년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인가?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찾아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11. 학생자치법정2

가람새알



2014 전국학생제 인문체쓰기 우수동아리 교육부장관상 수상

◎ 천호중학교 스토리텔링 동아리 장편소설 가람새-알

(Akkadian Empire OST)

판사1 : 학생자치법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인, 검사, 배심원단에 대한 역할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검사들을 바라보며 말을 한다.) 검사는 학생자치법정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규정상의 긍정적 지도를 요청하는 일을 맡습니다. 이 때 사실을 확인하고, 긍정적 지도를 선고하는 기준은 본교의 교칙에 의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판결을 내릴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엄정한 판결이 나올 것을 요청하고, 규정의 중요성과 규정 위반에 따른 긍정적 지도의 필요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검사신문을 할 때에 증인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사2 : 다음, 변호인은 현행 교칙 및 학교 규정 중에서 학생들의 인권, 교사들의 교권 침해 소지가 있거나 학생자치활동 또는 교육활동에 제한되어지는 상벌점 제도 및 학생제제 사안에 대하여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교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변론 중에 증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1 : (배심원단을 바라보며 말을 한다.) 그리고, 배심원단은 각 학년에서 제기한 학생인권과 관련한 금번 사안에 대하여 찬반 양론을 경청하여, 합당한 의견에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기권은 가급적 지양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생자치법정의 취지가 토론을 통해 학생자치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인지하고 자존감을 향상시켜서 행복한 학교생활,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는 것이 목적인만큼 신중하

게 결정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고 신중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는 매너모드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2 : 지금부터 첫 번째 안건인 수업 시간 수행평가 미참가 학생의 벌점부과에 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 검사는 2015학년도 1학기 수업 시간에 부과되었던 '수행평가 감점 받고 벌점도 받고' 학생 등 10여 명에 대한 가칭 복면가샘이 부여한 벌점 -7점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수행평가 점수로도 감점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하나의 사안에 대하여 벌점의 이중부과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판사2 : 네, 검사측 계속 발언해주세요.

검사 : 물론 '수행평가 감점 받고 벌점도 받고' 학생이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아니 적극적으로 수업에 응하지 않은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춘기, 중이병, 질풍노도의 시기, 주변인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학생에게 벌점 7점 부과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검사는 김인중 선생님의 [안산 동산고 이야기] 중 일부를 증거 자료로 요청하였습니다.

판사2 : 네, 검사측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증거 자료로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가합니다.

검사 : 네, 제가 김인중 선생님의 [안산 동산고 이야기] 부분을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내성적인 학생은 진지해서 좋고, 사교성이 적은 학생은 정

직하고 과장되지 않아서 좋고, 소심한 학생은 실수가 적고 정확해서 좋고 질투심이 많은 학생은 의욕이 넘쳐서 좋고, 말이 많은 학생은 지루하지 않아서 좋고, 자신감이 없는 학생은 겸손해서 좋고, 직선적인 학생은 속정이 깊어서 좋다.”
- 김인중 선생님의 [안산 동산고 이야기] 부분 인용.

검사 : 긍정적인 말로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 학교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있는 안산 동산고등학교의 예를 랩으로 보셨습니다. 어떠셨는지요?

판사1 : 검사, 지금 이 사안과 상관없는 말은 삼가세요.

검사 : 네, 알겠습니다.

판사2 : 자, 변호사측 변론 하세요.

변호사 : 변호사는 검사의 논고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이중차별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의 종합생활기록부 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의 수시와 정시 모집에서는 인성교육과 함께 과정중심의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행평가 감점 받고 별점도 받고' 학생을 포함한 10명의 학생은 사춘기, 중이병, 질풍노도의 시기, 주변인의 시기라는 우물 속에 갇혀서 현실을 도피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들 대부분은 별점부과에 대해 당연하다는 쪽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 다수가 상별점이 학교를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법정신이라고 믿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학생들에 대한 별점 부과는 최고점인 -7점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

권 못지않게 교권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검사 : 해서 검사는 별점보다는 상점과 칭찬을 통해 학생들을 기다리고 변화시키자는 ‘페이스북에 살어리랏다’ 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신변 보호를 위하여 복면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재판장님.

판사2 : 그렇게 하세요. 찬반 양측 교사의 권익보호와 교단의 갈등 유발을 방지하고자 허가하겠습니다. 증인 선서하세요!

증인1 : 나, ‘페이스북에 살어리랏다’는 교사의 양심과 법 정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진실만을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검사 : 증인, ‘페이스북에 살어리랏다’는 올해 교직 경력 33년차 교사입니다. 별점부과에 대한 선생님의 입장에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1 : 교사와 학생은 서로 신뢰와 사랑을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학교 학생들은 아직 자아정체성이 성립하지 못해서 자존감과 자존심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자존감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보았던 안산 동산고등학교의 경우가 이에 합당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칭찬하고, 이를 통해 근면성을 부여하면 자기가 가지는 작은 탈런트에 깊은 감동을 받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성적이 오른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학교와 교실, 교사와 급우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선순환이 이루어 집니다.

검사 : 증인, ‘페이스북에 살어리랏다’는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요? 그 계기는요?

증인1 : 30년 되었습니다. 신규 4년차 때는 힘이 많이 들었어요. 진심을 몰라주는 학생들에게 화, 욕설, 폭력, 저주 등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남는 건 학생의 힘겨운 미래뿐이었죠. 그때 선배교사들의 격려를 용기 삼고, 그분들의 체험을 벤치마킹하면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욱덕어서 좋은 사람 없고, 한 잔 술에 정이 돈독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학생들과 추억과 먹거리를 공유했습니다. 추억은 사랑과 과자를 신고, 교사와 학생을 소통하고 교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상벌점도 대안으로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점을 위한 상점, 벌점을 위한 벌점은 자제하자는 겁니다. 해서 지금은 30년 전의 초심에서 신규교사들과 소통하면서 그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페이스북과 카톡방을 통해 행복한 교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검사 :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 : 재판장님! 저희 변호인측도 오늘 사건의 당사자인 ‘상벌점은 아무나 받나’ 교사를 증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신변 보호를 위하여 복면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재판장님!

판사2 : 그렇게 하세요. 찬반 양측 교사의 권익보호와 교단의 갈등 유발을 방지하고자 허가하겠습니다. 증인 선서하세요!

증인2 : 나, ‘상벌점은 아무나 받나’는 교사의 양심과 법 정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진실만을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변호사 : 증인, ‘상벌점은 아무나 받나’ 교사는 올해 교육경력 30년의 베테랑 교사입니다. 생활지도부, 각 학년부, 상담복지부,

교무부, 연구부 등을 두루 거치면서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금번 '수행평가 감점 받고 별점도 받고' 학생에 대한 별점 부여를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2 : 네, 일단은 이런 오해가 생겨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에 살어리랏다'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수행평가 감점 받고 별점도 받고' 학생 등 10명에 대해 부과한 별점 -7점은 이중처벌이 결코 아닙니다. 과정중심의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했음을 감안하여 매 시간 줄 수 있는 부분을 1개 학기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별점이 -7점으로 줄어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법을 배웠기 때문에 법이 말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행평가점수에서 감점한 것과 별점 -7점 부과는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법정신에 절대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수행평가 감점 받고 별점도 받고' 학생 등 10명의 학생도 이 부분은 인정하리라 생각합니다.

변호사 : 그동안 '상별점은 아무나 만나' 님에게 학급담임과 교과담임을 경험했던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보내온 편지들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교권보호보다 학생인권보호와 학생들의 야무진 진로를 위해 일관되게 상별점 제도를 활용해온 중진교사의 아름다운 교직스토리를 근거자료로 제출합니다.

판사2 : 검사측 발언하세요!

검사 : 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수행평가 감점 받고 별점도 받고' 학

생 등 10명의 학생에게 부여된 별점이 이중처벌이라는 점에 대해 논하고 싶지만 양측의 입장이 분명히 근거가 있고 계량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지시 불응’에 대한 -2점에서 -7점의 별점이 합당한가로 범위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마다 조금씩 수업태도와 교사의 지시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2점 정도에서 별점이 주어졌다면 학생들은 이를 학생자치법정에 상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변호사 : 네, 이번 사안에 대해 학생들은 이중처벌이라는 생각이 강한데요, 앞서 언급한 ‘사춘기, 중이병, 질풍노도의 시기, 주변인의 시기’라는 점을 완전 배제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도 땅바닥에 떨어진 교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개연성이 있습니다. 해서 이는 이중처벌이 아니라 증인, 상별점은 아무나 만나 님의 말처럼 과정중심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한 만큼 이 사안은 논고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서 ‘상별점은 아무나 만나’ 님에 대한 이중처벌에 대한 부분은 명예훼손 및 무고의 소지가 있음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검사 :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인터뷰 동영상은 준비했습니다. 찬반 각각 2명, 중립 1명의 학생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판결 전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변호사측과 합의하였습니다. 판사님 인터뷰 동영상 자료를 상영하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2 : 변호사측도 인정합니까?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판사2 : 네, 그럼 방영하세요!

문수연(기자) : 안녕하십니까. CMS 뉴스의 문수연입니다. 수행평가를 제출하지 않은 ‘수행평가 감점 받고 별점도 받고’ 학생 등 10여 명에 대한 가칭 복면가샘이 별점 -7점 부여 및 수행평가 감점을 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직접 취재를 하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소녀의 순정 코스모스’ 학생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수연(기자) : ‘수행평가 감점 받고 별점도 받고’ 등의 학생이 수행평가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선생님께서 별점 7점 부여 및 수행평가 감점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1(소녀의 순정 코스모스) : 당연히 별점도 받고 수행평가 감점도 받아야죠! 개는 별점 7점이 아니라 10점을 받아도 싸요. 매번 수업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어휴(한숨) 개 때문에 수업이 다 망쳐진다니까요! 하여튼 골칫덩어리예요. 개는 차라리 좀 혼이 나와 정신 차려요!

문수연(기자) :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옆에 계신 ‘화생방실 클레오파트라’ 학생에게도 여쭙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학생2(화생방실 클레오파트라) : ‘수행평가 감점 받고 별점도 받고’ 학생 말하는 거죠? 솔직히 개 너무 불쌍해요. 아니 수행평가 미제출인데 왜 별점까지 줘요? 진짜 어이없어요. 선생님이 과민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문수연(기자) : 네, 학생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저기 계신 ‘노래

왕 통키' 학생에게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학생! '수행 평가 감점 받고 별점도 받고' 학생이 수행평가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선생님께서 별점 7점 부여 및 수행평가 감점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3(노래왕 통키) : 아 몰라요! 그걸 왜 나한테 묻는 거야! 내 알 바 아닌 것 같은데! (카메라를 보며 메롱을 한다.)

문수연(기자) : 하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옆의 분단에 앉아 계신 '매운 맛을 보여주마 고추 아가씨' 학생과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학생에게 한 번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 감점 받고 별점도 받고' 학생이 수행평가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선생님께서 별점 7점 부여 및 수행평가 감점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4(매운 맛을 보여주마 고추 아가씨) : 음..... 제 생각엔 선생님이 과하게 처벌을 내리신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행평가 제출 안했다고 -1점도 아니라 -7점을 주다니요!! 좀 심한 것 같아요.

학생5(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 야!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해? 헐..... 개 맨날 수업시간에 자고 까불고..... 야무튼 장난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개도 이번 기회에 생활태도 고쳐서 바른 생활 청소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문수연(기자) : 네, 질문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행평가 미제출 시 수행평가 감점 및 별점 부과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현장 취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질문에도 적극

적으로 답하여 주신 모든 학생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천호중학교에서 CMS 뉴스 문수연입니다.

판사2 : 검사측! 이제 최종 구형하세요!

검사 : 학생은 항상 약자죠. 최근이죠, 2015년 3월 1일자로 임명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옹호관의 당부가 무색해지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 옹호관의 당부는 이제 조금씩 교단과 학생들을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합리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검사는 '수행평가 감점 받고 별점도 받고' 학생 등 10명이 제기한 상벌점은 아무나 만나 교사의 수행평가 감정 이후 또는 이전에 부과한 별점 -7점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따라서 별점을 취소하거나 -2점 수준으로 감형할 것을 요구합니다.

판사2 : 네 검사 측은 '수행평가 감점 받고 별점도 받고' 학생 등 10명이 제기한 상벌점은 아무나 만나 교사의 수행평가 감정 이후 또는 이전에 부과한 별점 -7점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따라서 별점을 취소하거나 -2점 수준으로 감할 것을 구형하였습니다. 변호사측 최종 변론하세요!

변호사 : 학생은 항상 약자였죠. 하지만 이제는 교사가 약자가 되었습니다. 변화된 학생 중심의 교단은 일부 학생들로 인해 사랑과 믿음은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최근이죠, 2015년 3월 1일자로 임명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옹호관의 당부는 교사들의 손과 발을 묶어 놓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 옹호관의 당부는 이제 조금씩 교단과 학생들을 민주적 절차

에 의한 합리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자신들의 권리만 인식하고 의무에 대해서는 인권이라는 이름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사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행평가 감점 받고 별점도 받고' 학생 등 10명이 제기한 '상별점은 아무나 받나' 교사의 수행평가 감점 이후 또는 이전에 부과한 별점 -7점은 이중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매 시간 -1점 내지 -2점을 부여하는 것보다 훨씬 교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별점을 취소하거나 -2점 수준으로 감형은 불가합니다. 이에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수행평가 감점 받고 별점도 받고' 학생 외 10명에게 -7점의 기존의 별점이 합당하며, 이를 구형합니다.

판사1 : 네,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1심에서 배심원의 의견은 15인 중에서 8대 7로 검사측 의견에 동의하는 쪽이 한 편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배심원의 의견은 15인 중에서 7대 8로 변호인측 의견이 한 편 더 많았었습니다. 오늘 검사와 변호사의 최종변론을 듣고 어떤 심적 변화가 있었는지 배심원단은 이제 결론을 내려주세요.

검사측의 입장 '별점 부과는 이중 처벌이므로 별점으로 취소하거나 -2점으로 감형해야 한다'에 찬성하면 1번, 변호사측의 입장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7점 부과는 정당하다'에 찬성하면 2번 자판을 선택하면 됩니다. 배심원의 신변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학급투표프로그램2.1]을 사용하여 바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진행하세요!

배심원 : (모두 일어나서 기표소에 들어가 [학급투표프로그램2.1]을 통해 검사측의 입장 ‘벌점 부과는 이중 처벌이므로 벌점으로 취소하거나 -2점으로 감형해야 한다’에 찬성하면 1번, 변호사측의 입장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7점 부과는 정당하다’에 찬성하면 2번 자판을 선택한다.)

판사1 :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스크린을 통해 현장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하세요!(스크린을 통해 결과가 공개된다.)

판사2 : 네, 배심원의 투표 결과 9대6으로 변호사측의 입장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7점 부과’가이 우세하였습니다. 따라서 '수행평가 감점 받고 벌점도 받고' 학생 외 10명의 학생의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사1 : 하지만 오늘 이 재판에서 이루어진 학생과 교사들의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가치관은 추후 학칙 개정 시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학생자치활동의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천호교육가족의 상호이해와 신뢰는 물론,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에서도 소중한 교복입은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데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닌 소중한 체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판사1 : 오늘 이 자리가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인권보호에 대한 소중한 자산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학생자치법정을 준비한 학생회, 각 학년 대표자 회의, 인권도색동아리, 방송동아리, 그리고 각 학년 배심원단과 선도부 등에 감

사를 드립니다. 또한 간식과 격려로 뜨거운 관심 가져주시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창의인성부와 생활지도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좋은중학교와 학생자치활동모델 학교로 선정하고 도와주신 강동구청,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학생자치법정 ‘벌점 이중처벌 여부’에 대한 재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학생자치법정을 방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27일 금요일 시청각실에서 양방언 [프론티어] 및 한태수 [아름다운 나라](송소희 노래) 음악이 흐르면서 학생자치법정이 끝났다. 학생회회의실에서 간단한 평가회가 있었다. 2학기 학생자치법정 뒤풀이도 우리들의 명품떡볶이에서 열렸다. 왁자지껄한 우리들의 뒤풀이는 다시 천호일보(千戶日報)에 훈훈하게 기록되었다.

1학기과 달리 2학기에는 법무부 주관의 학생자치법정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자치법정 본연의 과별점 학생에 대한 변론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칙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MBC 복면가왕의 형식을 벤치마킹하는 방법을 접목시켰다. 판사 역을 맡은 1학년 이예린 학생은 학생자치법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처음에 학생회와 학년 대표들을 중심으로 인권모색동아리가 모였었죠.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생인권옹호관의 학생인권 10계명이 인쇄된 가정통신문을 손에 들고 선생님께서 각 학년별로 하나씩 주제를 정하고, 배심원 제도를 활용해서 천호학생자치

법정을 해보자고 했을 때 다들 앞이 캄캄했어요. 그런데 학년별 카톡방을 열고 우리들이 제안을 하면 선생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댄스동아리와 방송동아리가 도움을 줬죠. 2학기에는 강당에서 2시간 동안 해보려고 하다가 다시 시청각실로 변경해서 아쉬웠어요. 대신 3학년 선배들이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1, 2학년들이 주인공이 됐죠. 오히려 시청각실에서 130여 명의 관객이 집중해서 관람하고 호응해줘서 더 잘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넓은 체육관은 학생들의 집중력을 분산시킬 가능성이 높았으니까요. 결과도 좋았어요. 15명의 배심원의 투표 결과 벌점 이중부과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9대 6으로 갈려서 변호사측이 승리했죠. 학생 다수가 상벌점 제도가 학교에서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찬성 측의 의견에서 학생자치활동의 역량을 보았다고 생각하니까 학생자치법정이 서로의 입장을 바꿔 생각할 수 있는 소통과 배려의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벌써부터 내년 자치법정이 기대됩니다.”

12. 윤세영의 [먼 나라 이웃나라]

가람새알



2014 전국학생 인문체쓰기 우수동아리 교육부장관상 수상

◎ 천호중학교 스토리텔링 동아리 장편소설 가람새-알

나를 업그레이드한 유럽

1. 출발하기 전에

여름방학을 맞아 유럽여행을 간다는 소식부터 나에게 엄청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미국은 전에도 가본 적은 있었지만, 유럽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봐 봤자 TV에서 몇 번 본 것이었다. 유럽과 미국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로 그런지는 몰랐으며, 얼마나 어떤 점이 다른지 잘 몰랐다. 비로소 갔다 와서야, 그 다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 여행은 지금까지 미국을 빼면 동양의 나라들만 갔다 왔고, 진정한 ‘서양’의 맛을 느끼지는 못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2. 영국(1)

의외로, 영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좋지 않거나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것이 다 그것을 만든 지 너무 오래되어서 라고 했지만, 나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때, 비로소 런던이라는 도시가 참 오래된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항부터가 문제였다. 비록 제 1,2 터미널 쪽에 비행기가 가지는 않았지만, 비행기에서 보면서 정말 가관이라는 것을 느낄 정도였다. 그 건물은 제대로 된 형상도 갖추지 못했으며, 웬지 컨테이너들로 대충 꾸민 그런 괴상한 건물의 차림을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워낙 좋은 공항이어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나의 기준에서는 그랬고, 아마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느꼈을 지도 모르겠다. 공항 내부 시설도 인천공항보다는 좋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런던의 명물중 하나인 언더그라운드(Underground), 즉, 지하철 이었다. 공항은 그렇다 치고, 이제 우리의 호텔로 들어가는 이 언더그라운드를 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튜브(Tube)를 탄 것이었다. 튜브 모양이라는 점이 우리나라 지하철 보다는 꽤 정이 갔다. 하지만, 그때까지가 행복이었다. 아빠가 먼저 이에 대해 설명해 주었지만, 그 이상으로 불편하고, 황당한 것도 있었다. 이 피카델리선이 유독 그런지는 몰라도, 앞사람과의 무릎과 나의 무릎이 거의 닿다시피 하였고, 그 때문에 가운데 통로가 없어 지나다니기가 매우 불편하였다. 또, 우리나라 지하철과는 달리, 열차와 열차간 이동이 불가능하고, 창문이 열려 있어 바깥 공기가 매섭게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소리도 엄청났다. 흥미로운 점도 있었다. 바로 이 지하철이 약 100년도 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아무리 소중한 조상들의 땀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기엔 정말로 대책이 필요할 듯 했다.

3. 영국(2)

런던은 정말로 오래된 도시다. 그냥 길거리에 있는 건물들이 100년도 넘는 그런 건물이라는 말을 듣고 정말 놀랐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건물들이 나이가 더 많은 것이다.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어쨌든, 우리 가족이 맨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하이드 파크(Hyde Park)였다. 참 오래된 나무들이 많아 올림픽공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상시켰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곧장 런던 시내까지 걸어서 들어갔다. 여기는 택시 요금이 무척 비싸서 걸어 다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이동 방법이었다. 우리는 런

던 시내(City of London)에서 거닐다 버킹엄 궁전으로 가서 근위병 교대식을 봤다. 사람들이 많아 잘은 보지 못했다. 아직도 여왕이 산다니, 참 신기했다. 근위병이 실제로 이 궁을 지키는 것도 아니면서, 형식적이기만 한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본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성당을 보며 이런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그렇게 옛날에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

그 다음날부터 이제 많은 성에 들렀다. 그 많은 성들 이름을 모두 기억 할 수는 없지만, 각각의 성들 마다 특징이 있었다. 우선, 햄프턴 궁전은 매우 큰 정원이 앞에 크게 펼쳐져 있었다. 정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큰 공원에 가까웠다. 호수와 이를 둘러싼 숲의 조화가 정말 인상 깊었다. 개인적으로 햄프턴 궁전이 제일 좋았던 곳이었다. 같기도 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런던’하면 떠오르는 그런 장소들을 가지 않았다. 예를 들면 빅벤, 타워 브릿지, 런던 아이 같은 곳은 들리지 않았다. 사실, 나도 런던에 도착한 이상 그 도시 자체가 하나의 큰 문화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상관없었고, 평소의 런던 모습을 통해 정취를 느끼고 싶었을 뿐이었다. 이 때문에 생기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런던 시민들은 이를 극복하며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그들에 대한 부러운 점도 많았다.

4. 스위스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부터 스위스 취리히 공항으로 가는데 걸리

는 시간은 약 1시간이면 충분했다. 또, 우리말로는 ‘취리히’라고 하지만, 원래 발음은 ‘쥬릭(Zurich)’이라는 것도 알았다. 나는 취리히가 런던보다는 훨씬 작고, 또, 스위스 나라 자체도 인구가 무척이나 적은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말로 스위스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런던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람이 많은 곳을 찾기 쉬웠으나, 취리히는 역에도 관광객을 빼고는 정말 현지 사람이 많지 않았다. 두 번째 흥미로운 사실은 트램이 다닌다는 것이었다. 트램은 꼭 우리말로 하자면 ‘전차’다. 아직도 평양엔 운영을 하는, 그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는 지하철이 없다. 이 트램이 우리가 아는 지하철과 버스 역할을 대신 해 주어서, 여기저기를 이동하기에는 매우 편했다. 취리히는 런던과는 또 확연히 다른 풍경이었다. 런던은 그나마 약간 서울을 연상시키는 요소가 적잖아 있었지만, 이곳은 정말 그런 요소가 거의 없었다.

취리히를 조금 둘러본 후 우리는 바로 인터라켄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야 했다. 인터라켄은 관광 명소로, ‘유럽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융프라우(Jungfrau)와 그 주변 산들을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을 받는 마을이다.

융프라우는 정말 엄청났다! 인터라켄으로 가는 길에도 무척 배경이 예뻐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그 장관을 보고 나니 그 사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릴 정도였다. 정말 어떻게 바위가 그렇게 깎아져 그런 멋과 웅장한 자태를 보여주는지 궁금했다. 케이블카를 타고 융프라우 주변 산꼭대기들로 올라가 보니,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런 자연이 만든 예술작품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구름과 눈으로 위쪽이 뒤덮인 다른 산들, 그리고 아래로는 푸르

른 잔디와 나무들, 그리고 듽성듬성 보이는 집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의 커다란 그림을 만들어 냈다. 우리가 온 이 계절이 제일 좋은 때인 것 같았다. 눈과 초원의 아름다움, 둘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깎아지른 바위들은 마치 아주 옛날에 바다에 잠겨있던 그 때를 회상하는 듯 보였다.

융프라우에 올라서자, 뜬금없이 라면을 주었다. 나는, 뭐, 좋았다. 그런 데에서 라면을 줄줄은 몰랐는데, 외국인들에게도 우리나라의 신라면이 알려진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였다. 나는 그 여름에 융프라우 꼭대기에서 눈을 만질 수 있게 되었다. 빙하가 만들어낸 이런 지형도 역시 그 아름다움을 알려주기라도 하듯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5. 끝

정리를 하면 이렇다. 런던에서는 유럽의 건축, 문화를 비롯한 모든 인문 환경을,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유럽의 진정한 자연 환경을 체험하고 느꼈다. 정말 의미 있는 여행이었고, 나의 첫 유럽 여행은 내 기억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행은 정말 좋은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13. 대한민국 초등학교 2학년 사람 만들기

가람새알



2014 전국학생제 인문체쓰기 우수동아리 교육부장관상 수상

◎ 천호중학교 스토리텔링 동아리 장편소설 가람새-알

1회초 봄비와 기다림

봄비가 내렸다. 아직은 쌀쌀하기만 한 날씨다. 4월은 아직 야구를 하기에 쌀쌀한 날씨였지만 마음이 조금만 다부지다면 충분히 야구를 할 수 있는 날씨였다. 2015 프로야구가 3월 28일 시작되었으니 흰소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아빠가 바빴다. 그래서 아빠는 5월이 되어야 야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선수들과 초등학교 2학년은 운동장 사정에서부터 유니폼 등등의 차이가 있다는 말에서 아빠가 학기 초라서 바쁘구나, 하고 생각했다. 아니 엄마가 그렇게 이해하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경칩(驚蟄)에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들이 짹짹 입을 하얏다. 올챙이들이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가 되어서 뛰어다닐 수 있는 날씨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아니, 아빠의 바쁜 학기 초가 어서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1회말 아빠와 아들의 야구 원정기

5월이 되었다.

5월 1일과 5월 5일!

천호중학교 방과후학교 연식야구부와 함께 야구경기를 했다.

초등학교 2학년 임재혁의 최초의 정식야구경기.

오늘은 형들과 야구경기를 한다. 우와, 긴장된다. 아빠는 힘 빼고 하라고 한다.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문제없다고 했다. 힘을 어떻게 빼는 걸까? 어려운 이 일을 아빠는 쉽다고 했다. 참 어려운 일인데!

5월 1일은 역전패를 했고, 5월 5일은 계속 리드를 당하다가 아깝

게 졌다. 아빠는 우리 B팀이 A팀(주전)의 스파링 상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이 어찌면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빠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참 좋았다면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환하게 웃어주었다.

두 게임 다 졌지만 정말 잘했다.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형들과 대등한 경기를 했다.

푸른 5월의 하늘이 스크루바, 죠스바, 바밤바, 돼지바처럼 달콤하고 시원하게 웃어주었다……

2회초 주말 부자동행 야구나들이1

아빠와 신관중학교에 갔다.

몸을 풀었다. 준비운동이 제일 중요하다는 아빠와 빨리 야구를 하고 싶은 나의 신경전이 치열했다. 각자 글러브를 끼고 워밍업에 이어 수비연습을 한다. 캐치볼이다. 이어서 아빠가 포수, 내가 투수를 한다. [메이플 홈런왕]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캐스터와 해설자 역할, 1인 2역을 하면서 중계방송을 한다. 아빠는 집중하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아빠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이라면 결국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중계가 바로 스토리텔링인 것이다. 아빠는 지금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오랜 만의 휴식을 지속하고 싶은 것이다. 일주일 동안 중학교 1학년 형들과 쌓였던 갈등과 스트레스를 풀어야 할 이 시간에 아들과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 역시 엄마와 함께 지낸 주중의 일들에서 왔던 갈등과 스트레스를 야구를 통해 날려버려야 하는 것이다. 아빠가 말하는 선택과 집중은 지금 내 몫인 것이다.

아빠와 야구를 마치고 벤치에 앉아서 물을 마시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 형들 대여섯 명과 아빠로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야구를 하러 신관중학교에 올라왔다. 이어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형과 아빠로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야구를 하러 올라왔다. 배트, 글러브, 소프트볼과 하드볼을 가지고 각각 올라왔다. 함께 야구를 하고 싶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하는 가족 모임 때문에 바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2회말 주말 부자동행 야구나들이2

다음 주 토요일에도 신관중학교에서 아빠와 야구를 했다. 고등학생 형은 여전히 18.84m 거리에서 빠른 스피트로 [메이플 홈런왕]의 주인공처럼 빠른 공을 던졌다. 변화구도 자유자재였다. 부러웠다. 컨트롤이 기가 막혔다. 내가 변화구를 던지는 것을 아빠는 말렸다. 아직 어깨근육이 형성되지 않아서 변화구를 던지다 보면 어깨 근육을 다쳐서 진짜 야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열심히, 꾸준히 운동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던 전에 하던 말은 어떻게 된 걸까?

오늘은 야구가 재미없었다. 좀 나아져야하는데 그냥 전보다 더 못하는 것같고 돌이 하니까 자꾸만 흐름이 끊겨서 짜증이 났다. 아빠의 인내심에 한계가 도달하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오늘 또 서로 짜증을 내면서 마무리 했다.

3회초 야구일기1

오늘은 홈런을 쳤다. 기분이 좋았다. 아빠와 싸우지도 않았다. 함

께 리홍에서 짜장면과 짬뽕에 탕수육 소자까지 먹었다.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가 우승하는 모습이 하이라이트로 나왔다. 자막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획득 영광의 순간이라고 써있었다. 밖으로 고등학생 형과 아빠가 지나쳐갔다. 서로 다투는 것같았다. 큰소리가 들렸다. 아빠가 계산 하는 동안 그 소리는 계속되었다. 나는 엄마를 만나서 집으로 갔고 아빠는 저녁거리를 사러 신원시장에 갔다.

3회말 야구일기2

아빠가 돌아왔다. 시장에서 문어숙회와 족발을 사오셨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오셔서 저녁을 함께 먹었다. 할아버지가 나에게 야구선수를 해보라고 하셨다. 아빠가 말린다고 했다.

“야구를 좋아하는 것과 야구선수가 되는 것은 많아 다르대요, 할 아버지!”

“그래도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 열심히 해 봐. 취미가 특기가 되고 특기를 잘 살리면 좋은 직업이 되는 거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랑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자 아빠가 이야기 했다.

“재혁아! 너, 고등학생 형 알지! 왜 다저스 모자 쓴 형 말이야!”

“아, 그 형? 알지! 근데 왜요?”

“아까 우리가 리홍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 큰 소리 들렸잖아! 신원 시장 갔다가 그 형 아빠를 만났어! 그래서 머리고기에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잠깐 얘기했어!”

“근데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8전 전승으로 야구 종목 금메달을 땀다. 그때 형의 나이 열한 살! 초등학교 4학년! 운동을 원래 좋아했고 달리기도 잘하고 구기 종목은 못 하는 게 없었던단다. “그래서 야구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베이징 키드의 탄생이었지. 중학교 때까지 전국대회 우승도 할 정도였대. 고등학교에 와서도 잘하고 있대. 그런데 고1때, 작년에 부상을 당했대. 재활 중인데 마음이 앞서고 있어서! 아빠가 그랬대. 운동선수는 부상을 달고 살아! 그때 마음을 조금하게 먹고 부상 치료가 끝나지 않고 다시 경기를 하고 싶어 하면 어렵다고! 근데 그 형은 자신의 일을 자신이 알아서 한다고 한대.”

십분 이해하고 싶지만 그게 쉬울까? 어려워 보였다. 그래서 그 형 아빠는 야구를 위해 야구관련 책들을 많이 읽으라고 했다. 야구만 아는 것보다 야구의 이론, 실기,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의학과 스포츠 재활 등을 말아야. 어떤 스포츠든 부상과 은퇴를 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선동열 선수의 야구 일기, 무리뉴 감독 이야기 등등.

4회초 야구 멘토 김현수

그 형의 이름은 김현수! 두산 베어스 좌익수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우투 좌타까지 같았다. 5학년 형들과 함께 신관중학교에서 야구를 하다가 알았다. 하지만 형은 삼성라이온스 팬이었다. 푸른 피를 가진 삼성라이온스.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 선수,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처럼!

형은 4학년 때 야구를 시작했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형의 아버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형의 뒷바라지를 위해 새벽 수산시장에서 밤샘 일을 하고 그 길로 형을 학교까지 보내주고 낮잠을 12인승 승합차에서 잔다고 했다. 운동이 끝나면 형의 아버지는 형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잠시 쉬면서 야구일기를 쓴다고 했다. 피곤한 아들을 위한 블로그에는 거의 날마다 초4 김현수부터 고2 김현수 선수의 운동일기가 사진과 함께 올라있다고 한다. 그날의 KBO와 MLB의 중요한 기사도 덧붙여서! 그게 형의 가장 큰 재산이라고 했다.

4회말 KBO & MLB

다음 블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넥센히어로즈 강정호 선수 KBO리그 타자 최초로 포스팅 참가! 2014시즌 넥센히어로즈 유년폼 입고 117경기, 타율0.356(418타수 149안타) 40홈런 117타점 기록. 포스팅 입찰 금액 500만 2015달러 혈값 써낸 피츠버그와 4년 총액 1100만 달러 계약.

시즌 막판 왼쪽 무릎 부상 전까지 0.287(421타수 121안타) 15홈런 58타점 기록으로 대한민국 야수에 대한 관심 증폭!

투수 류현진의 성공에 이어 야수 강정호의 성공 스토리는 KBO 리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성남고등학교 출신 김현수에게 희소식!

선수에게 부상은 시간을 단순히 보내는 시간이 아니다. 운동장에서 보지 못했던 시야를 벤치에서, 관중석에서 볼 수 있는 소중한 시

간이다. 감독과 코치가 되어볼 수 있고, 관중과 스카우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스포츠 의학과 만날 수 있으며,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산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있다. 해마다 많은 프로야구에 지명되는 선수는 100여 명, 더 많이 뽑으면 좋겠지만 그 수만큼 선수가 은퇴를 하거나 팀을 떠나 신고선수(연습생)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생각해 본다.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를 제대로 알고 만약의 일에 대비하고, 100세 시대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자신에 대한 진로를 굳건히 하자는 것이다. 그걸 이해시키기가 정말 어렵다.

5회초 자산관리

전국 고등학교 야구 팀 67개 팀 해마다 700여 명이 고교를 졸업한다. 이 중 프로야구에 100명 정도 지명되고 20여 개의 대학팀에 200명 정도가 입학한다. 400여 명은 운동을 그만두거나 프로야구 신고선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1군 주전 프로야구 선수가 팀당 40명(9월 확대 엔트리 기준)이라고 하면 10개 팀이 400명이죠. 이중 평균 선수생활은 10년이 안 된다. 2군까지 포함하면 600명이 추가된다. 1000명이죠. 이를 10으로 나누면 100명! 새로운 10명이 들어오면 기존에 10명씩이 나가야 한다. 코치와 감독직이 있지만 크게 늘지 않으니까! 어렵다는 거죠! 700명 중에 100명이지만 10년의 정년이라면 이 10년 동안 평생 자산을 모아야 한다. 평균 1억의 연봉이 되었지만 10년 동안 10억이 되겠지만 세금을 제하고 선수생활을 위한 비용과 건강을 위한 투자를 생각하면 많은

자산을 마련할 수 없겠죠! 해서 야구를 포함한 자산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5회말 야구를 사랑한다는 것과 야구를 한다는 것의 차이

2015년 8월 6일 목요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을 포함한 연합군이 승리로 이끈 오늘은, 패전국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 수상 아베는 자신들이 전쟁의 가해자라는 사실은 생략하고 피해자라는 사실만 언급했다는 뉴스가 흥분된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울렸던 아침이다.

오늘은 아빠와 함께 하는 부자동행 진로모색, 직업체험 잠실야구장 나들이 가는 날이다. 일찍 준비를 하고 오후 4시 10분 한일태권도장에서 만나서 바로 앞 서원동 버스정류장에서 인증 샷. 5528번 버스를 타고 신림역에서 2호선 지하철을 갈아타고 종합운동장역에 도착, 잠실야구장을 향해 계단을 오른다. 격앙된 마음을 진정시킬 겸 입장권부터 구입한다. 1루측 블루석 209블록 5열 61, 62번 좌석이다. 이어서 베이스몰에서 두산베어스 간판 백넘버 50번 김현수 선수의 유니폼과 선수용 모자를 구입한다. 베이스몰을 나와서 영수증을 제시하고 백넘버 50번과 김현수 선수의 이름을 고정시킨다. 재혁이는 순간 배번 50 두산베어스 좌익수 겸 3번 타자 우투좌타 김현수 선수의 아바타가 된다.

17시 38분. 아직 52분이 남았다. 원정 팀 넥센히어로즈 선수들의 타격과 수비 연습을 관람한다. 홈팀 두산베어스 선수들은 이미 연습을 마쳤나보다. 방송국 아나운서가 리포팅 리허설을 한다. 구장 관리팀은 운동장을 고르고, 라인을 그리고, 뜨거운 야구장을 물로

식한다. 먼지가 가라앉는다. 관중들이 들어차고 있다. 가족, 연인들, 직장 동료들, 주한 외국인, 견학 온 것같은 야구유니폼을 입은 타이페이(대만(臺灣)) 야구소년들과 야구소녀들, 그리고 두산과 넥센을 응원하는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넘쳐난다. 여기는 임재혁의 진로모색 직업체험현장, 잠실야구장.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두산베어스는 재혁이가 관전할 때마다 승리했다. 즐거운 징크스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사소한 소망을 꿈꾸며.....

6회초 Baseball & Career researching(Job researching)

1. 부자동행 잠실야구장 진로모색 직업체험기

서원동 버스정류장 앞에서 인증 샷! 5528번 버스 타고 출발.

신림역에서 지하철로 환승하기 위해 기다리는 중. 이기자!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종합운동장역으로 고고씹!

잠실야구장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품, 매표소에서 입장권 2장 구입!

베어스몰에서 임재혁의 진로멘토 김현수 선수 유니폼·선수용 모자 구입.

넥센히어로즈 선수들의 타격 연습을 가까이서 보는 생동감 만끽 중. 야구장도 식후경! 김밥, 홈런볼, 사이다와 생수, 대추토마토랑 치킨! 18시 30분 넥센히어로즈 대 두산베어스의 경기가 시작되었다. 4회말 두산베어스 공격 대거 9득점 Big Inning 달성. 15대 5 두산 승리!

2. 부자동행 잠실야구장 진로모색 직업체험 : 사진 속에서 숨은 직업 찾아보기

운동장 관리사들의 경기 전 야구장 관리 작업, 수많은 광고를 적재적소에 배치한, 광고인들!

스포츠 채널 방송국과 두산베어스 방송담당들의 전광판 방송준비! 안내방송과 광고를 주로 한다.

경기 중에도 운동자 관리사들은 수시로 고르면서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이 되게 땀을 흘린다.

전광판 관리사들은 바로바로 선수들의 기록과 심판들의 시그널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두산베어스 응원단장과 치어리더들과 팬들의 열띤 응원전! 연예 기획사 메니저와 연예인 지망생도 보임!

야간 경기를 위해서는 조명 전기직종의 많은 분들이 야간경기를 위해 숨어서 전기와 조명을 관리한다.

6회말 아빠와 누나의 카톡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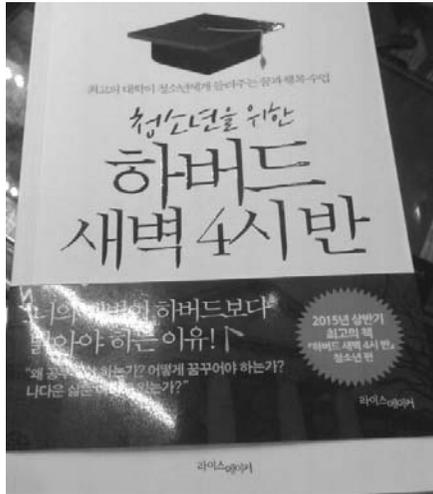
패자는 실패에서 환경을 탓하고

승자는 실패에서 자신을 탓한다.

그리고 실패의 원인을 찾고

성공의 키워드를 찾는다.

좋은 책 꼭 준비할게.



— 2015.07.08. 자유인 아빠가 역대급 기말고사 망쳤다는 범생이 딸에게 보낸 카톡

새벽에 일어나 두뇌 회전에 좋다는 두부와 콩, 오이, 대추토마토, 파프리카에 약간의 소금과 후추를 뿌린 달걀프라이를 가장한 요리에, 콩국물과 오이를 넣은 냉채를 준비하고 콩을 세 가지나 넣은 갓 지은 밥과 구운 김, 파프리카, 대추토마토, 오이를 생으로 준비한다.

오답노트 꼭 챙겨라.....

긴 잔소리대신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스토리를 여운처럼 전갈한다. '도원재혁이 있어 행복한 아침이다. 그리고 도원재혁의 엄마가 함께 있어서 더욱 살맛나는 즐거운 하루하루다.'

속마음 숨긴 채 잔소리가 전갈의 맹독처럼 전달되겠다. 지하철 교대역에서 밤벌레들이 순대 밖으로 다수 빠져나가고 다수 밀려들

어온다.

7회초 시즌 2호 홈런



신관중학교 운동장 스탠드 옹벽에 써있는 문구!

승리하면 (하나를) 배울 수 있다.

그러나 패배하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임재혁의 시즌 2호 홈런. 펜스 넘은 홈런 볼.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볼.

경기 끝나고 내려오던 길에 옹벽 위 나무에 걸린 저것의 정체는?
임재혁의 시즌 2호 홈런 볼……

7회말 패키지, 종합과자세트를 다 즐기는 방법

“종합과자 선물세트를 다 먹으려면 맛있는 과자와 맛있는 과자 중 어떤 걸 먼저 먹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고루!’ 라

고 답하지만 실제로는 맛있는 과자만 먹게 되고 맛있는 과자는 열었다 닫았다, 아깝다며 보관만 하다가 결국은 버리게 된다. 해서 정답은 맛있는 과자부터 먹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맛있는 과자는 고민도 없이 다 먹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잡문집의 내용이다.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야구선수가 꿈이기 때문에 프로야구를 보면서 야구 선수와 야구에 대한 역사, 아나운서와 해설위원들의 성대를 모사하고, 야구게임을 모니터링하면서 야구관련 만화와 소설, 영화 등을 보고 있다. 아빠는 꿈은 내가 커가는 만큼 다양하게 변하겠지만 현재의 꿈을 이루기 위해 흠뻑 빠져보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렇게 선택하고 집중하다 보면 꿈이 바뀌어도 이전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커다란 힘이 되어 선택과 집중이 훨씬 쉬워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중에서 언제나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하셨다.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게 되면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댈다는 것이다. 알 듯 말 듯 한 아빠의 이야기에서 나의 멘토인 배번 50 두산베어스 좌익수 겸 3번 타자 우투좌타 김현수 선수의 아바타로서 흠뻑 대한민국 프로야구에 흠뻑 빠져들었다.

8회초 끝나지 않은 ‘잠실야구장 진로모색 직업체험’ 이야기

“재혁아, 가방? 너 가방 안 가지고 내렸어?”

“아빠가 가지고 내린 거, 아냐?”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린가? 신림역에서 내려 계단을 오르다 재혁이 가방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역무실로 빠르게 이동한다. 경험은 그래서 중요하다. 항상 첫경험은 모두를 두렵게, 힘들게 하지만 반복은 그 두려움과 힘겨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체득하게 한다. 승하차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탑승구에 가서 확인을 한다. 2호선 지하철 내선순환 1-4에서 2-1을 통해 하차했다는 사실을 역무원과 함께 확인을 한다. 다시 역무실로 돌아와서 열차번호를 확인하고 신도림역에 확인전화를 한다.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재미있었겠네요, 가방은 잃어버렸지만! 내가 넥센팬인데 4회말에 죽는 줄 알았다고요! 9점을 내리 내주는데……”

“그러게요. 허준혁 투수가 5회초 2사 만루 9대 3인제 감독이 바꾸더라고요. 승리가 날아갔죠. 인생, 참 어려워요. 오늘 정말 재미있게 보고 부자동행 잠실야구장 진로모색 직업체험 잘했다고 안심한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찾아야할 텐데. 아, 연락이 온 거 같은데요.”

“없다는데요!”

“그러면, 1-4가 아니라 2-4인가 봐요. 죄송한데 한 번 더 확인해주시겠어요!”

또 다시 시간이 흘러갔다. 시간이 걸리니까 앉으라고 했지만 재혁이만 앉혔다. 다시 시간이 지나고 전화벨이 울렸다.

“네, 합정역에서 확인해서 가지고 있대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한다.

11시가 막 넘어서고 있었다.

“합정역입니다. 네, 임재혁이라고 써있고요. 글러브 2개랑 핸드폰이 있네요.”

여성 역무원의 대답이 친절해서 안심이 되었다. 합정역 역무실을 찾아갔다. 참 많은 역무원들이 목요일 밤을 지키고 있었다. 역무원과 공익근무요원들은 안전한 지하철 운영을 위한 일들 이외에도 시민들의 건망증을 위해 더위와 피로를 극복하면서 서울을 밤을 지켜주고 있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를 하고 다시 신림행 지하철에 올라탔다.

“임재혁! 또 가방 두고 내려. 즐거운 부자동행 잠실야구장 진로모색 직업체험 잘 마치고, 그것도 모자라 지하철 분실물 되찾기 체험까지 하니까, 좋지?”

“아빠는 완벽하니까 실수 안 하겠지? 아빠 실수한 거 나도 몇 개 아는데. 조심할게!”

신림역에 도착했다. 시간은 12시를 넘어 2015년 8월 7일 금요일! 입추(立秋)가 시작되고 있었다. 아, 벌써 가을이 시작되는구나! 우리들의 삶도 절기(節氣)처럼 미리미리 준비해야하는구나 하는 뜬금 없는 생각을 한다. 무더위에 겨울을 준비하고, 강추위에 여름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앞서 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위기에 기회를 위해 변화한다. 빌 게이츠의 말처럼 Chance(위기, 기회)에서 소문자 c를 g로 바꾸어 보자. Change, 변화가 된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변화하는 것이다. 그 변화는 한 계절이나 두 계절을 앞서 준비하는 자세다. 재혁이가 이 사실을 좀 더 일찍 알기를 기대하는 이유다.

자식이 변하기를 바라려면 부모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들을 한다. 하지만 자녀 스스로도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걸 아빠와 엄마의 잔소리보다 책과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통해 간접 체험하기를 바란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인성교육은 바로 책을 도원재혁에게 선물하는 것이다.

독서(讀書)! 책과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부모의 잔소리다!

8회말 아름답고도 험난한 항해(航海) 차근차근 준비하는 법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신에게 맞는 꿈을 만들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답고도 험난한 항해(航海)다.

도서출판 도원재혁

9회초 두산베어스의 KS(Korean Series) 우승

눈물이 난다.

신림초등학교에서 야구를 즐기는 재혁이를 마중 갔다. 5시.

두산베어스와 삼성라이온스의 8회초와 8회말, 13대 2. 경기는 끝나가고 있다. 재혁이는 해지는 순간 마지막 회를 기다리고 있다. 리

퍼트 선수가 9회 1사를 막아내고 마무리 이현승 선수가 마운드에 오른다. 마지막 타자 삼성라이온즈 배형섭 선수를 삼진으로 잡는다. 발가락골절 부상 투혼의 양의지 포수의 의지 하에 뛰어 오른다. 11점차 혹시나 하는 만의 하나의 불안함을 극복하고 삼성라이온즈의 자존심 이승엽 선수의 마지막 안타를 불꽃으로 사례하였을까? 승자에 대한 예우일까? 배형섭 선수가 두산의 승리를 위해 루킹삼진을 당하지는 않았을까?

쓸 데 없는 생각과 두산베어스 선수와 코치, 감독들의 얼굴과 함께 전투기가 흰 꼬리를 뿜으며 날아가는 장면을 보며 궁금해 하는데 현실 속 신림초등학교 운동장에서도 저만치 동쪽하늘로 혜성처럼 날아가는 전투기의 긴연기. 왼손 검지 여섯 바늘 꺾맨 채 부상투혼을 보인 5할 타율의 정수빈 선수의 불꽃투혼을 닮았다. 정수빈 선수는 2015년 코리아시리즈 챔피언 두산베어스 선수들을 대신해서 MVP를 받았다.

원 팀의 승리이고 원 팀의 우승임에 누가 MVP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페넌트레이스와 KS를 4연패한 삼성라이온즈도 2015 챔피언 두산베어스도 한 해의 꿈을 실현했을 뿐이다. 그들을 포함한 한국 프로야구10개 팀 모두는 장점은 지키고 단점은 고치고 보완하면서 2016 KBO 리그 챔피언을 위한 꿈을 꾸고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불의의 부상과, 예기치 않은 스캔들이 발목을 잡기도 하고, 그렇게 주저앉거나 다크호스와 대체 선수가 나타나 그 자리를 채우기도 남을 수 있다. 두산베어스의 우승 세리머니를 끝까지 도열해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여준 삼성라이온즈 선수단의 성숙한 모습에서 재혁이에게 승부의 세계에서도 동업자정신을 가르친다. 친구는 경

쟁자와 동반자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들의 기억은 선순환하기도 하고 악순환하기도 한다. 먼저 베풀어라. 네게 좋은 동반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부메랑이 되어줄 것이다. 두산베어스처럼 즐겨라. 내년 봄까지. 연봉협상 실패로 스프링 캠프를 망칠 수도 있다. 자유계약선수로 MLB와 NPB로 갈 수도 있다. 우승후유증으로 앓을 수도 있고, 14년만의 우승을 원동력으로 삼아 삼성라이온즈처럼 연속 우승을 할 수도 있다. 만족하되 긴장하며, 실현된 꿈을 단단히 하면서 또 다른 꿈을 꾸라고 하고 싶다. 순간 해설자의 멘트가 살갑다.

프로야구 1군에 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다. 주전으로 뛰는 것이야 말할 나위없다. 퓨처스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두산과 삼성의 선수는 꿈이다. 오늘의 승자도 패자도 내일은 다시 시작할 뿐이다. 오늘 축제에 모인 양팀 팬들과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든 팬들에 축제를 제공할 수 있어 행복하다.



9회말 꿈은 움직이는 것, 현재의 꿈에 최선을 다하기

2015년 11월 22일 일요일 아침 10시 신관중학교에서 러닝, 스트레칭에 이어 투수 연습과 내외야 수비연습을 마쳤다. 그리고 기억 저편에 있는 대학동 타격연습장을 향했다. 6514번 버스를 타고 대학동에서 내려서 겨우겨우 타격연습장에서 대망의 타격훈련을 했다. 아직 방망이 무게가 극복되지 않았지만 점점 갈수록 잘 쳤다. 옆에서 지켜보던 대학생 남녀 3명이 이렇게 말했다.

"와, 이 친구 야구 시킬 거예요?"

"잘한다. 대박!"

"두산베어스 제2의 김현수다."

싫지 않은 그 소리에 내가 웃으며 답한다.

"선수는요. 그냥 취미예요."

2015년 11월 7일 토요일.

입동을 하루 앞두고 전국은 오랜 가뭄에 반가운 비 소식을 전해 왔다. 가을비 한 번에 속옷 한 벌이라는 속담은 비바람에 속옷 두 벌은 필요한 듯, 매섭게 차갑다. 내일이 겨울의 초입임을 증명하는 듯하다.

제3회 관악구청장기 출범기대회에 345번 재혁이가 출전했다. FC 서울과 수원삼성블루윙스의 상암동월드컵경기장 슈퍼매치를 포기 하고서.

서울시 출범기 시범단의 환상적이고 리드미컬한 시범을 시작으로 출범기대회가 진행되었다. 새누리당 초선 ○○○ 의원과 인연을

맺었던 지난 재보선의 기억. 재혁이는 그새 정치인에서 프로야구선수로 꿈이 바뀌었다. 사랑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꿈도 움직이는 거니까.

정강이가 아플 정도로 연습을 하더니 쌍쌍이를 30초에 58번을 하고 초등학교 2학년부 금메달을 받았다. 이어서 친구랑 함께 맞서기 줄넘기에 참가 60초에 98번을 했다. 훌륭했다.

누군가와 호흡을 맞추고 마음을 나누고 눈빛을 맞추는 경기를 우리 재혁이가 해낸 게 무척 대견했다.

마지막 가을비는 바람에 섞여 힘겹게 했지만 우동과 돈까스, 치즈볶음밥으로 달랠다. 줄을 넘듯이 재혁이도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그것들을 이겨내고자 노력할 것이다. 동영상용 밴드 '와가니홍수네'에 공유하고 재혁이는 일기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임재혁, 학교생활 제대로 잘해라."

한일태권도 관장님의 재치 있는 조언이 비바람을 뚫고 메아리처럼 우리 가족의 마음에 줄넘기처럼 강렬하게 울렸다. 감사할 뿐이다.

눈이 내린다, 아이의 머리에도
눈에도, 입에도, 귀에도, 가슴에도.
엄마와 아빠는 눈을 애써 헤치고
아이 위해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뿐.
아이는 자라고 잘하고 재잘대면서

눈발 내리는 눈밭에서 눈웃음치며
눈물도 흘리면서, 눈을 맞춘다.
한쪽 무릎을 꿇어야 아이의 눈을
볼 수 있다, 아이 눈을 맞춘다.
눈발이 날리듯 아이를 날게 하자.
눈이 내린다, 아이의 가슴으로.
- 임홍수 시 '눈이 내린다' 부분 인용.

재혁이의 발차기. 태권도 한 달 쉬기. 가혹한 처벌. 엄마는 기대
한다. 재혁이의 성숙을. 아빠는 다르다. 아들은 성장이, 더 중요하
다. 성숙은 그 다음 문제!

회사 안은 치열한 전쟁터지,
하지만 회사 밖은 지옥, 그 자체야.
견딜 수 있을 때까지 버티, 만화 [미생].
치열한 전쟁터에서 집으로 끌어진
필름처럼 갔다, 처음처럼 서너 잔
푹잠 깨고 또 출근 준비하는 새벽
아내의 손이 입 대신 말하는 벽지 한 쪽
사랑은 마주보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주시하는 것.
선사시대 암각화 속 그림들처럼
포인트 벽지에서 주제 파악하다가
소스라쳐 고1 딸에게 간식 서비스

오늘은 일찍 와야지, 다짐하는 아침.
치열한 전쟁터에서 집으로 끊어진
필름처럼 갔다, 처음처럼 서너 잔
푹잠 깨고 또 출근 준비하는 새벽
아내의 손이 입 대신 말하는 암각화
사랑은 마주보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주시하는 것.
둥지를 지키려는 주둥이가 매섭다.
둥지라면 먹으며 둥지를 지킨다.
- 임홍수 시 '암각화를 바라보며' 전문 인용.



14. 이예린의 Never ending Story

가람새알



2014 전국학생제 인문체쓰기 우수동아리 교육부장관상 수상

◎ 천호중학교 스토리텔링 동아리 장편소설 가람새-알

Prologue

신라의 충신이었던 박제상이 쓴 ‘부도지’ 라는 책에 의하면 ‘마고’ 라는 한 여신이 기원전 12,000년경 쯤 지금의 파미르 고원에 ‘마고성’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기록되어있다. 지상에서 가장 높은 마고성의 여신 이었던 마고는 두 딸이 있었는데 이들에게서 황궁 씨(黃穹氏), 백소 씨(白巢氏), 청궁 씨(靑穹氏), 흑소 씨(黑巢氏)의 자식이 남녀 각 1명씩, 8명이 태어났고, 이들이 각각 3남 3녀를 낳았는데, 이것이 인간의 시조이며 몇 대를 지나 자손이 3000여명이 되었다고 한다.

성(城) 안의 사람들은 품성이 순수하여 능히 조화를 이루고 지유(地乳)를 마시므로 혈기가 맑았고 수명은 한 없이 길었으며, 누구나 스스로 지키는 자율로써 질서를 이루었다. 또한 그들 중에서는 매우 총명하고 신비한 능력을 가진 ‘이아호’ 라는 이가 있었다.

바야흐로 시간이 흘러 기원전 12,015년이 되었을 적에 이들이 지유 대신 포도를 먹고 다른 사람에게도 먹게 함으로써 천성을 잃게 되고 수명이 줄어들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포도를 먹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아호였다.

이 사건 이후 이 무리는 쫓겨나게 되고, 남은 사람들의 우두머리인 황궁 씨는 복본에 이르기 위하여 무리를 데리고 떠나게 되었다. 3천 년간 수련으로 복본에 성공한 황궁 씨는 장자 유인에게 대권의 증거인 천부삼인을 물려주었다. 유인은 전에 포도를 먹었었기 때문

에 북본에 이르러야 했고, 북본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북본을 완벽하게 이룬지 못해 수명이 줄어든 상태이다. 그리고 포도를 먹지 않아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아호는 유인 씨와 바이칼 호에 한국(韓國, 또는 환국(桓國))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1. 돌국, 그리고 총명한 이아호

한국의 우두머리가 된 유인과 그의 충신인 이아호가 나라를 잘 다스려 평화로운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었다. 또한 한국과 함께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바로 돌국이였다. 돌국의 왕은 한국의 급성장으로 위기를 느낀 나머지 전쟁을 결심하고, 총명하기로 소문난 이아호를 이용해 한국을 점령할 생각이였다. 돌국의 왕이 한국의 이아호를 불러서 말했다.

“이아호, 내가 당신을 이리로 부른 이유는 한국의 왕인 유인 당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아 걱정이 되어서 일세. 차라리 이럴 바엔 돌국에 와서 잠시 머물지 않겠나?”

돌국에 이아호를 머물게 하면서 자신의 편으로 그를 끌어들이려는 돌국 왕의 속셈에 넘어간 것일까? 이아호는 순순히 돌국의 왕의 말에 수긍하였다.

한편 한국에서는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던 이아호가 갑자기 사라져 나라가 발칵 뒤집히게 되었다. 이아호가 없는 동안 나라에는 원래 없던 도둑들이 생기게 되었고 평범한 주민들에 대한 부유계층의 횡포가 나날이 심해지게 되어 난리가 나있는 상황이었다.

한국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돌국의 왕은 이아호를 꼬드기기 시작하였다.

“이아호, 우리 둘국이 당신을 위해서라도 둘국을 자꾸만 위협하고 있는 한국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전쟁을 하고자하네. 이아호, 이번 전쟁에서 둘국과 함께 할 생각이 없는가? 만약 이 제안을 받아드린다면 내가 당신을 나의 후계자로 삼겠네!”

이아호도 권력에 욕심이 있었던 걸까? 그만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예. 그 제안 받아드리지요.”

그 날 저녁, 이아호가 조심스럽게 밖의 눈치를 살피더니, 밖에 나와 대문으로 갔다. 대문 앞에는 덩치가 산만하고 건장한 두 문지기가 있었는데 이아호가 그들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아이고, 다들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인사를 건네는 것이었다. 그랬더니 문지기가 알아보고 말했다.

“아니! 그 총리하고 영리하기로 소문난 이아호 장군님 아니십니까?”

“허허, 장군님이라니! 아직 둘국의 왕께서 날 장군으로 임명하시지도 않았는데 말이야. 허허”

“뭘요. 벌써 이아호님께서 둘국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끄실 위대한 장군이시라고 소문이 자자하던걸요. 그런데 이 한밤중에 장군님께서 웬일이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요즘 당신들을 보고 있자니 너무 짠해서 말이야. 하루 종일 밤낮으로 이 대문을 지켜야 하는 당신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나도 밤공기도 마실 겸해서 오늘 밤에만 내가 대신 문지기를 설까 하고 왔네.”

“네? 정말이십니까? 하지만 저희가 자리를 비운 걸 왕께서 아신다면 저희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허! 정녕 나를 못 믿는 것인가? 난 이 나라를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 위대한 장군이라고 당신들 입으로 말하지 않았는가! 난 이 돌국을 위해 한 몸 바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यो. 이렇게 돌국을 위하고 있는 내 마음을 아직도 신들은 모르겠단 말이오? 이번 밤은 걱정하지 말고 어서 집으로 들어가 편히 쉬시게. 요즘 잠도 편히 자지 못하지 않았는가?”

“정말 그렇게 저희를 아껴 주시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가 계속 문지기를 서려고 했으나 장군님께서 이리 저희를 생각하여 주시어 대신 서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어찌 저희가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나이까! 저흰 정말 장군님만 믿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렇고말고! 걱정 말고 편히 쉬고 내일 아침에 오게!”

이로써 문지기들이 이아호의 말에 속아 집으로 돌아가고, 이아호는 대문을 지키는 것 같더니 이내 그 문 밖으로 나와 달리기 시작하였다.

“이제 다 온 건가?”

이아호가 헉헉대며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는 앞의 큰 궁궐을 향해 달려가며 그는 씨익 웃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내가 한국의 영웅이 될 지도 모르겠군……”

2. 세 사람의 비밀스런 작전

“폐하, 밖에 복면을 쓴 한 남자가 전하를 뵈겠다며 안 들여보내주

면 이 나라가 위험하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신하의 말에 태왕인 유인 씨는 놀라며 대답했다.

“나라가 위험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어서 그를 궁 안으로 들어 보내거라!”

잠시 뒤 검정색 복면을 쓴 한 남자가 들어와 복면을 벗으며 말하였다.

“폐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다! 저 이아호입니다. 너무 늦게 돌아와 송구스럽습니다.”

“정말 이아호가 맞느냐? 이리 와보거라! 오~ 드디어 이아호가 돌아왔구나! 이제 살았다 살았어! 그건 그렇고, 이아호! 네 이놈~~!! 도대체 어디를 다녀온 것이냐! 네가 없는 동안 온 나라가 발각 뒤집혔다는 소식을 못 들은 게냐!”

태왕은 기뻐함과 동시에 약간은 화가 난 목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이아호는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을 태왕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뭣이라! 이런..... 전쟁이 날 것이라니..... 내 생전 이런 경험은 겪어 본 적이 없어 매우 당황스럽구나..... 이아호! 어떻게 이 전쟁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냐?”

이아호는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지금 상황으로는 돌국의 군사들의 힘이 너무 막강 하옵니다. 우리나라 군사들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해낸 묘안이 있습니다만 괜찮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밖을 향해 외쳤다.

“여봐라! 밖에 있는 한 사람을 더 들여보내라!”

한 사람이 궁 안으로 더 들어왔다.

“폐하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희라고 하옵니다. 이아호보다 조금 늦게 출발하게 되어서 늦었습니다.”

호리호리하고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한 여인이 말하였다. 그러자 이아호는 소희를 소개하듯히 말을 이었다.

“이 여인은 제가 돌국에서 데려온 한 궁녀입니다. 돌국에서 저를 보조하던 궁녀인데 돌국의 지리도 잘 알고 영리하며 힘도 센 여인입니다. 비록 돌국 출신이지만 평소 욕심이 많고 인정 없는 돌국의 왕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며, 저를 이용해 이번 전쟁을 이기려 한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주자, 자신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고 하기에 함께 데려왔습니다. 돌국에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여인이고 믿음이가는 사람이므로 안심하셔도 되옵니다, 폐하.”

그러자 태왕은 좀 안심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아호가 믿는 여인이라면 의심할 필요가 없겠지. 뭐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이 난관을 잘 헤쳐 나가 봅세! 하지만 우리 중에서 배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사하지 못 할 것이야.”

이리하여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기로 한 세 사람은 아침이 오기 전까지 작전 준비를 해나갔다.

시간이 흘러 소희와 이아호가 떠날 때가 되었다. 그러자 이아호가 말했다.

“지금까지 의논해 결정한대로 잘 진행해 주시옵소서. 전하 또한

전쟁은 기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 되오며 정확한 전투 시작 날짜가 나오면 소희를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소희가 오기 전까지 몸 건강히 계십시오, 폐하!”

이렇게 둘은 돌국으로 다시 돌아갔다. 돌국으로 돌아간 소희와 이아호는 전쟁 시작 날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지내었다. 돌국의 왕은 소희와 이아호가 한국에 다녀온 줄은 꿈에도 모르고 곧 한국의 땅을 가지게 된다는 생각에 기뻐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다리고 기다리던 전쟁 시작 날짜가 나왔다. 그 날 저녁, 이아호는 황급히 소희를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 몰래 밖으로 나오고 문지기가 잠시 줄고 있는 사이에 소희를 대문 밖으로 내보내는데 성공한다. 한국에 빨리 이 사실을 알리고 소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이아호는 뜻밖에 돌국 왕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설마 돌국 왕이 우리의 작전을 알아챈 건 아니겠지?’

궁에 도착한 이아호가 궁문에 들어가려는 순간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 이런! 소희가 문지기에게 들켰나보군!’

하고 이아호는 생각하며 방에 들어갔다. 대전에 들어가자 돌국의 왕은 몹시 분노한 듯이 외쳤다.

“이 궁녀가 하는 말이 네가 몸이 아파 약을 사오라고 시켜서 밤중에 궁궐문을 나갔다고 하는구나. 정녕 이 말이 사실이나?”

그러자 약간 놀란 이아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태연히 말했다.

“네 제가 열이 좀 있는 듯하여 궁녀에게 약을 지어오라고 시켰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이 밤중에 약을 지어달라고 돌국의 약 짓는

분께 부탁드리기도 미안해서 그런 것인데 약간의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전하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말을 듣고 무안해진 돌국의 왕이 말을 이었다.

“아 그렇군. 아무튼 이아호 장군, 몸은 좀 괜찮아졌소? 내가 괜히 불렀다는 생각이 드는구려. 미안하구려!”

그러자 이아호가 짐짓 울 듯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궁녀를 내보내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지 못한 저의 잘못이 더 큼니다. 전하께 큰 염려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결국 소희는 전쟁 시작 일을 한국에 전달하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몰래 압호를 사용해서, 이아호의 편지를 전서구(傳書鳩)의 부리에 끼워 넣은 다음 한국 쪽으로 날려 보냈다. 그 이후 한국의 왕에게서도 준비가 다 되었다는 답장이 돌아왔다. 이제 세 사람이 짠 계획은 실행할 일만 남았다.

3. 전쟁, 그리고 복수

“제군들이여! 돌격하라!!!”

돌국의 왕이 크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아호를 중심으로 모든 군사들은 한국을 향해 돌진하였다. 큰 함성 소리와 함께 약 이십만 명의 군사들이 계속해서 대포와 화살을 쏘고 있는데도 한국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러더니 잠시 뒤에 약 백 명 밖에 안 되는 군사를 이끌고 잠깐 공격을 하는 것 같더니 이내 한국의 태왕이 흰 깃발을 든 장수를 거느리고 말을 타고 나와서 말했다.

“항복! 항복이오! 그러니 이제 우리를 그만 공격해주시오. 부탁이오!”

하는 것이었다. 갑작스런 행복 소식에 둘국의 왕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오히려 둘국의 왕은 되물었다.

“뭐라고? 갑자기 행복이라니? 왜?”

그러자 한국의 왕인 유인 씨는 약간 어색해하는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지금 현재 한국은 전쟁 준비가 아무것도 되지 않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 괜히 우리가 싸움만 벌이면 한국의 불쌍한 백성들이 너무 가엽지 않겠는가? 이제 그만 하고 나를 어서 잡아가게. 대신 우리 백성들만은 제발 살려주게. 부탁일세.”

그러자 둘국의 왕이 대답했다.

“하하, 잡혀가기 직전에도 백성들을 생각하는 척이라니! 역시 뻔뻔하군. 하지만 내 넓은 아량으로 당신의 목숨 또한 살려주지. 하지만 당신은 영원히 옥살이를 하게 될 것이야! 음하하하! 이제 한국 땅은 내 것이야. 음하하하하하하하! 모두 승리의 깃발을 올려라!!!”

그 후 며칠 뒤 둘국의 왕은 전쟁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한 큰 잔치를 벌였다. 풍성한 잔치에 사람들은 많이 몰려왔고, 이내 이야기 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로 온 궁 안이 가득 찼다. 그러자 왕의 옆에 있던 이야호는 왕에게 친근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전하,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잔치의 흥을 한층 더 돋우기 위하여 무용 부대와 무술을 준비하였습니다. 한 번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되고 말고! 이야호 장군이 준비한 것이니 만큼 더 기대가 되는구려. 한 번 그 무대를 장식해보게나.”

“예, 전하. 여보라 밖에 있는 궁녀를 들여 보내거라.”

그러자 예쁜 미모를 가진 한 궁녀가 들어오더니 다소곳이 말했다.

“씨슈터의 ‘touch my body’ 로 노래 부탁드려요~! 뮤직 큐!”

라고 말하였다. 그러더니 한 궁녀가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사실 이 궁녀는 다름 아닌 소희였다. 모두들 소희의 춤에 왕은 물론이고 신하들마저 모두 소희에게 훌쩍 반한 틈을 타 이아호는 왕에게 계속하여 술을 권하였고, 결국 왕의 얼굴이 벌겋게 취하도록 술을 마신 왕이 이아호에게 말하였다.

“이아호! 저렇게 예쁘고 춤을 잘 추는 궁녀는 도대체 어디서 구한 것이요? 내 이 무용 무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으니 내 당신에게 보상을 할 것이네! 하하하하”

잠시 뒤 소희가 왕의 옆자리에 다시 와 앉았다. 소희가 계속 왕에게 술을 권하고, 거둬해서 술을 권하고 있을 때 이이호가 왕에게 말하였다.

“전하 이제 제가 열심히 익힌 무술을 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옥에 갇혀 있는 한국의 왕이었던 유인 씨와 함께 겨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술에 거하게 취해서 호방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하하하, 옛날에 유인 씨가 뭐 한 싸움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뭐 지금은 오래된 옥살이로 몸이 지칠 데로 지쳤겠지만 말이야. 하하하, 이아호에게는 밥이겠지만! 뭐, 그래도 꽤 재미난 구경거리가 되겠구나. 그럼 어디 한 번 해 보거라!”

그러자 이아호는

“네 전하 그럼 한번 보여드립니다요. 여봐라, 옥에 있는 유인 씨를

불러 오거라!”

그렇게 무술시합은 시작이 되고 소희는 계속해서 왕과 옆의 많은 신하들에게 술을 권하였고 왕은 자그마치 모두 18명의 술을 해치웠다. 그랬더니 왕의 얼굴은 이미 벌게질 데로 벌게지고, 걷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이아호는 태권검법 제 4장을 선보였다. 처음에는 유인 씨도 열심히 이아호의 칼부림을 피하는 것 같더니 벌써 지친 것일까. 이내 털썩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하하하하하하! 그것 참 재미지구나. 그나저나 벌써 유인 씨가 쓰러지다니 말이야. 의외의 결과군. 글고 오늘 따라 술 맛이 더더욱 좋구나. 하하하하하하”

그러자 이아호가 대답하였다.

“전하 오래 앉아계셔서 몸이 불편하실 텐데, 저와 함께 한 번 무술을 겨뤄보시겠습니까? 전하의 무술실력이 전 세계에서 캡 짱이라는 소문도 자자하고 저 또한 오래 전부터 그런 전하의 무술 실력을 조금이라도 본받고자 함께 실력을 겨뤄보고 싶었습니다. 제 생각이 어떠신지요?”

왕은 술기운을 빌어 더욱 더 호방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좋네, 내 그 제안 받아드리지! 지금은 살이 좀 찼지만, 나도 왕년에는 한 무술 했던 말이지. 하하하하하! 자, 어서 나에게 덤벼 보게나! 겁 내지 말고 말이야!”

왕이 말하자 소희는 생각했다.

‘헐~~ 왕년의 한 무술? 하! 참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살이 뒤룩 뒤룩 썩 거동조차 하지 못했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나저나 우리의 작전이 꼭 성공해야 할텐데……’

왕과 이아호 간의 무술시합이 시작되고 초반부터 왕은 슬기운과 짝 때로 짝, 포동포동한 살들 덕분인지 휘청휘청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시합은 계속 되었고 시합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왕이 칼을 놓치게 된 순간 이아호는 자신의 칼로 돌국의 왕의 목을 베어버렸다.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 순간 많은 관중들은 소스라치게 놀랐고 모두들 줄행량을 쳤다. 돌국의 장군들도 소희가 준 술에 취해 왕을 지킬 수 없었고, 그들도 당황한 나머지 이내 궁 밖으로 달려 나갔다. 결국 돌국의 왕은 이아호를 이용하려던 속셈에 자신이 넘어가게 되었고, 전쟁 항복 선언부터 잔치에서의 무술시합까지 이아호, 소희 그리고 유인 씨가 세운 작전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4. 다시 찾아온 고요함, 그리고 행복

시간이 흘러 한국에는 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유인 씨를 도와서 이아호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 언제나 한국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아! 참, 여기서 소희를 빼 먹으면 섭섭할 것이다. 소희 또한 작전을 성공시키는데 있어 크게 이바지한 바가 있으므로 이아호, 유인 씨와 함께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니 백성들이 모두 풍족하고 부유하게 살며, 잦은 싸움이 없고 도둑들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없어 온 나라가 기쁘지 않을 때가 없었다고 한다.

Epilogue

“신랑, 신부 모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검은머리 파뿌리가 될 때 까지 영원히 좋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랑 분! 앞으로 어떻게 신부님과 사실 건지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평생 동안 서로 아끼면서 살아갑시다! 소희야 사랑한다!!!”

그러자 모든 손님들이 함성과 박수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소희와 이아호의 결혼식은 마무리가 되었고, 둘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또한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아호와 소희는 아주 오래전 여신이었던 마고의 자손들이며, 유일하게 포도를 먹지 않은 사람이 이아호 외에 한 명이 더 있었다고 한다.

15. 응답하라 1988 합창대회 & 학년별 예술제

가람새알



2014 전국학생체 인문체쓰기 우수동아리 교육부장관상 수상

◎ 천호중학교 스토리텔링 동아리 장편소설 가람새-알

“이번에는 우리 반이 꼭 이긴다.”

대전여고와의 합창대회가 열렸다. 1, 2학년 24개 학급 중에서 절대로 예선 통과를 할 수 없다고 저주를 했던 음악선생님의 예상을 보기 좋게 깨고 우리 2학년 9반이 예선 4위로 턱걸이 하면서 대전여고와의 연합 합창대회 본선에 나가게 되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답임은 예의 쌍욕을 하면서 우리에게 비비빅을 한 개씩 돌렸다.

“날마다 불알 냄새만 휘날리는 줄 알았더니 굼벵이를 닳았나? 구르는 재주가 있었어. 아무튼 본선에 가서도 잘하면 내가 라면땅 한 봉지씩을 사줄 테니까 예선 때처럼 일사분란하게 잘들 해봐라.”

답임은 일사분란에 악센트를 주어서 말했다. 그런데 아니, 저 라면땅은 언제적 레퍼토리인가? 아무튼 라면땅 먹기 싫어서라도 본선에서 꼴찌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류가 반 전체에 돌았다. 물론 우리에게 히든카드가 있었다. 우리 반 5번 전지음(全知音)이었다. 녀석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전두환 대통령과 일가친척이며 자기가 아저씨라고 부르는 5촌 당숙이라고 했다. 대전여고 음악선생님인 아버지는 전두환 대통령과 4촌 사이였다. 하지만 이미 그분은 대통령에서 물러나자마자 백담사에 가서서 만해 한용운 선생님과 같은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가? 아무튼 ‘전덕환’이라는, 녀석의 아버지는 아들을 음악인으로 기르기 위해 이름을 지음(知音)으로 지었다는 것이다. 백아와 종자기의 고사(故事)처럼 자신의 음악을 잘 알아주는 아들이 되기를 바랐던 모양이었다. 아무튼 녀석은 공부도 잘하고 플룻도 잘 분다. 아마도 제 아버지가 원하는 음대에 인 서울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음이는 자랑처럼 대전여고와의 합창대회가 열리면 우리 반이 무조건 우승이라고 했다. 평소애 빵을 치는 녀석이 아니라서 우리는 그 말을 믿었다. 자기 아버지와 약속을 했단다. 자기가 합창대회에서 우승 못 하면 가출을 할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는 우리 학교 음악선생님에게 압력을 넣어서 꼭 우리 반이 우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말은 믿지 않았다. 우리가 합창대회에 올인 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음악선생님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였다. 절대로 예선 통과 못 하리라는 음악선생님의 저주를 반드시 깨겠다는 신념이 우리를 뭉치게 했다. 전체 58명 중 농구부 2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합창에 참여했다. 테너, 바리톤, 베이스! 음악을 잘 모르는 우리를 전지음은 뉘달했다. 그의 주장은 이랬다. 테너는 오히려 노래를 잘 못 불러도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지음은 우리가 보기에 노래 잘하는 아이들을 베이스 파트로 보냈다. 그 다음은 바리톤. 그리고 나머지는 테너. 물론 노래를 제일 잘하는 근수와 도현이만은 테너 파트로 배정했다. 우리는 하루 세 번 모였다. 원래는 하루 한 번 모이기로 했지만 점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하루 세 번 모였다.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서 테니스장에서 조회와 종례를 하고 점심시간에 20분씩 합창 연습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세 번씩 합창 연습을 하게 된 것은 학교 동아리 합창반 반장인 2학년 10반 박국희의 한 마디가 불을 질렀기 때문이었다. 음악선생님의 저주가 우리를 독 오르게 했다면, 그의 수제자인 박국희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휘발유를 뿌린 격이 되고 말았다.

“야, 너네 반은 그냥 포기해라. 음악선생님께서 심사위원이신데

너희에게 내린 저주를 극복하겠다고? 아서라, 말아라. 놀지를 말아라.”

“박국희! 아, 저 놈 꼴 보기 싫어서라도 꼭 예선 통과 한다.”

근수가 테너 톤으로 말하자 아이들은 분노의 웃음을 날렸다. 그렇게 우리들의 합창대회는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합창은 혼자서 부르는 게 아니야. 근수와 도현이는 솔로 부분만 빼고는 테너 파트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화음(和音), 하모니를 이루어야 하는 거야. 혼자 아무리 잘해보야 불협화음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그 이유를 좀 이해해라.”

지음이가 다시 한 번 하모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 아무리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였다. 문제는 가끔씩 바리톤과 베이스 중 일부가 테너 파트를 따라 간다는 사실이었다. 그래도 지음이가 테너 파트에 들어갈 실력의 아이들을 다수 바리톤과 베이스에 배치한 덕에 날이 갈수록 우리 반의 실력은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일주일에 두 번 있는 음악시간은 음악선생님의 저주로 시작해 저주로 끝났다. 지음이 아버지와 친구 사이인 음악 선생님은 지음이 아빠랑 지음이 반이 예선 통과 못하는데 걸었다고 했다. 음악선생님의 아들과 지음도 친구였는데 두 아들 친구만은 지음이 쪽에 걸었다고 했다. 지음이와 음악 선생님 아들이 이기면 원하는 것 한 가지 씩을 들어주기로 했으며 아버지들이 이기면 대학 입학 때까지 흡연 금지, 야간 외출 금지를 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이번 합창대회는 지음이 입장에서는 사활을 건 전쟁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나마 우리들이 음악선생님의 저주에 공동전선으로 나선 것이 지음에게는 천군만마(千軍萬馬)

였음에 틀림이 없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서서히 악보를 읽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합창대회가 시작되었다. 강당에 모인 1, 2학년 24개 학급은 대부분 긴장하고 있었다. 물론 이미 포기하고 그냥 무대에 올랐다가 내려올 반도 적잖이 보였다. 그러니까 10개 정도 학급 중에서 4등 안에 들어야 했다. 우리 반은 운이 없게도 2번이었다. 아무래도 초반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음악선생님의 저주와 박국희라는 왕재수가 있었다. 극복해야 할 목표가 있었으므로 우리는 지음이의 지휘에 눈을 떴지 않았다. 시작은 불안했으나 끝까지 나름대로 연습 때의 실력 이상을 발휘한 것 같았다. 노래가 끝나자 지음이가 엄지손가락을 올리면서 우리에게 윙크를 했다. 지루한 순서들이 지나갔다. 헛바닥을 날름거리는 학급들이 지나갔다. 그런 반들은 이미 포기한 반이거나 연습 때보다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리라고 지음이를 대신해서 근수와 도현이가 말했다. 21번째 우리들 공공의 적 박국희네 반이 나왔다. 복장부터 준비가 대단해 보였다. 역시 박국희의 지휘 하에 우리보다 더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완벽하달 수는 없었지만 우리 합창대회 수준에서 최고의 실력이었다. 2학년 1반이 마지막으로 합창을 마치자 박국희를 포함한 합창반이 나와서 우리 시대 최고의 히트곡 이선희의 ‘나 항상 그대를’을 불렀다. 김민정 작사, 송시현 작곡의 노래는 이선희가 왜 우리들의 영원한 누나인지를 알게 하는 수작이었지만 거기에 박국희가 있었기에 우리 반은 애써 흥분하지 않았다. 이어서 한상익 작사, 최영섭 작곡의 ‘그리운 금강산’에 이르자 우리들은 쌓였던 피로가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합창반의 공연이 끝나고 사회자

인 방송반 정현우가 나와서 교감선생님을 무대로 모셨다.

“자, 이제부터 한 달 후 대전여고와의 합창대회에 참가할 학급을 호명하겠습니다. 4위부터 호명하겠습니다. 발표는 교감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 우리 대고인 모두가 우승입니다. 먼저 2학년 9반!”

우리는 우리의 귀를 의심했다. 우리 반이 호명된 것이다. 우리는 함성을 질렀고 답임은 특유의 앞니를 내보이며 씨익 웃었다. 라면 땅을 우리는 먹어야 한다. 이어서 교감선생님이 3등, 2등, 1등을 불렀다. 1학년 3반, 1학년 9반, 2학년 10반이었다. 박국희의 10반이 1등을 했다. 하지만 우리 반은 음악선생님의 저주와 박국희의 비웃음을 극복하고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얼떨떨한 주말이 지나고 우리들의 합창대회 준비는 계속되었다.

오후 5시에 현정이를 만났다. 대전여고 2학년 4반인 현정이네는 2등으로 본선에 진출했다고 했다. 연기군 남면 성남중학교 동기인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는 게 우연인가, 필연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현정이 언니는 소문난 미인으로 우리 동네 내 당고모 할머니의 손자인 용길이형과 결혼을 해서 더 잘 아는 사이가 되었다. 합창대회까지 1시간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짧은 인사를 마치고 각자 연습을 하러 간다.

“끝나고 밥이나 먹을까?”

“끝나면 바로 우리 답임이 결과와 상관없이 저녁 사준다고 해서 어렵다. 다음에 만나자!”

세상에서 가장 흔한 인사말 ‘나중에 만나자!’가 내 달팽이관을 자극했다. 친교적 기능이라는 친한 척하는 기능이 아니기를 바랐다. 핸드폰이 나오기 전이었으므로 우리가 나중에 만날 일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그래, 나중에 시골에 가면 만나자. 꼭 우승해!”

나 역시 친교적 기능이 가득한 인사말을 전했다. 사실 나와 현정은 초등학교부터 다를 정도로 만나기 힘든 그저 흔한 중학교 친구였기 때문이다. 덧붙여 ‘우승해!’라는 상투적인 인사말을 남겼다. 참 애뜻한 내 감정이 수상하다. 나는 그때 이미 마음에 둔 여학생이 있었다. 하지만 그날만은 현정을 보는 눈이 아주 애뜻했다. 아마도 합창대회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해졌기 때문이라고 자위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날 밤에 인천에 있는 내 여친에게 편지를 썼다. 죄의식에서 비롯된 촌극이었다.

합창대회가 시작되었다. 우리 반은 지음이의 저주로 이번에는 여덟 팀 중 1번을 뽑았다. 하지만 지음이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며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했다. 리허설은 8번부터 진행되었다. 우리의 원수 박국희 반이 8번이었다. 녀석들은 예의 포스를 풍기며 대고 1위다운 풍모를 보였다. 하지만 예전의 우리가 아니었다. 7번은 현정이네 반, 대전여고 2학년 4번이었다. 남학생만의 합창을 듣다가 여학생의 합창을 듣는 맛이 사뭇 상큼했다. 야릇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여학생을 우리 학교에서 보는 우리 학교 학생들 모두가 평상심을 잃고 있었다. 체육관 바닥에 앉은 우리 학교 남학생들은 계단 위에 앉아있는 대전여고 여학생들에게 추파를 던지다가 하면 아예 침을 흘리는 녀석도 여럿 보였다. 교복 자율화 시대에 맞

게 강당 안은 우중충한 회백색의 남학생을 중심 배경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화사한 여학생들이 디귤자 모양의 환을 그리며 합창대회에 참가한 2개 학교 8개 학급의 합창을 경청하고 환호하고 있었다.

청바지에 흰색 반소매 티를 입은 우리 반이 1번으로 무대에 올랐다. 하지영 작사, 조용필 작곡, 조용필 노래의 ‘여행을 떠나요!’를 지음이의 지휘에 맞추어 부르는 나와, 우리 반 아이들은 정말 하나가 되었다. 근수와 도현이가 번갈아 가며 독창을 한다. 우리가 듣기에도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린다. 아, 이게 하모니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 2학년 9반 모두를 지음이의 지휘봉과 손가락에 꽂혀 황홀경에 이르게 하고 있었다. 이제 고3이 되면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라도 하듯이 우리는 ‘여행을 떠나요’를 즐겁게, 맛있게 불렀다. 도시에 숨은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내서 여행을 떠나고 싶게 만드는 신비한 하모니가 전개되고 있었다.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의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 속을 벗어나 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의 흐르는 물 찾아 그 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의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의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의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즐

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의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지음이의 지휘봉과 우리들의 화음이 절묘하게 노래의 끝을 알렸다. 아니, 여행을 떠나고 싶게 만들고 있었다. 이제 결과는 상관없다. 우리는 해냈다. 음악 선생님의 저주와 박국희의 비웃음을 이겨내고 이렇게 당당하게 대전고와 대전여고의 연합합창대회 본선에서 1번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열고 있었다. 우리는 대기실에서 라면땅 담임과 파이팅을 외쳤다. 땀을 닦고 몇몇은 어딘가로 나갔다가 돌아왔다. 끄연(喫煙)을 하고 온 모양이다. 담배냄새가 훅 풍겼다. 못 말릴 놈들이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하모니를 이룬 사이가 아닌가? 나도 한 모금 빨고 싶었지만 소심한 나는 시골에서 농사일에 바쁜 엄마를 대전까지 불러오게 할 수는 없었다. 아니 끌려오게 할 수는 없었다. 사내대장부가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면서 자위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객석에 자리를 잡았을 때는 이미 4번, 우리 학교 1학년 9반이 진행 중이었다. 지음이는 내리 네 학급을 다 본 모양이었다. 아직까지 우리 반보다 잘한 반이 없다는 투로 구시렁구시렁 대고 있었다.

5번은 우리 학교 1학년 9반이었다. 합창반 부반장 최지영의 실력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약간 실수는 있었지만 강소천 작사, 나운영 작곡의 ‘흥부와 놀부’를 잘 마무리 짓고 있었다. 6번은 대전여고 1등 2학년 9반이었다. 베르너의 외국곡 ‘들장미’를 3부 합창으로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하고 있었다. 심사위원 선생님들을 바라보았다.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음악선생님 특유의 긍정의 고

갯짓으로 보아 그의 눈에는 합격임이 분명했다. 지음이가 긴장을 했는지 땀을 흘리고 있었다. 7번은 현정이네 반이었다. 그런데 비숍의 합창곡 ‘즐거운 나의 집’을 부르기도 전에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다. 지휘에 강아지, 반주에 조미료라는 사회자 현우의 멘트가 나오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 배를 잡고 웃고 있었다. 참고 있던 대전여고 학생들까지 웃음을 참지 못하자 양교의 학생부장님들이 제지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미 현정이네 반은 평상심을 잃고 무대에서 죽을 쑤고 말았다. 현정이가 고개를 숙이고 무대를 내려가는 모습이 더욱 애뜻했다.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드디어 여러분이 기대하던 마지막 순서입니다. 대전교 예선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한 2학년 10반입니다.”

“이은상 작사, 박태준 작곡 ‘동무생각’입니다. 지휘에 박국희, 반주는 이시영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현우와 함께 사회를 담당한 대전여고 반송반장 진수진의 마지막 멘트에 객석의 양교 학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감동보다는 이제 합창대회, 아니 행사가 끝나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합창반의 반장답게 박국희와 이시영은 고전 중에 고전, ‘동무생각’으로 교내 1등을 차지한 팀답게 오늘도 정말 기가 막히게 합창을 이끌어낼 것이었다. 그런데 반주자인 시영이와 국희가 서로 주도를 하려한 탓인지 시작이 불안했다. 지음이의 해설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지음이가 손에 땀을 쥐면서 ‘동무생각’이 끝날 때까지 그 사실에 집중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지음이는 지금 아버지들과의 내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다. 하지만 우리 2학년 9반 모두는 결과와 상관없이 마음 편하게 웃고 있었다. 즐기고 있

었다. 음악선생님의 저주를 이겨낸 우리가 아닌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정현우와 진수진이 무대에 올랐다. 대전여고 교장선생님과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이 무대에 올라오셨다. 심사를 맡은 우리 학교 음악 선생님과 대전여고 음악선생님인 지음이 아빠와 또 다른 심사위원인 태너 박인수 교수도 무대에 올라왔다. 양교 교장선생님 포함 5인의 심사위원의 평가를 학생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3위입니다. ‘홍부와 놀부’를 부른 대전고등학교 1학년 9반!”

최지영과 다른 한 명이 나와서 상장과 트로피를 받았다. 박국희 쪽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었다. 엄지를 추켜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 반에서 불길이 솟았다. 박국희네 반이 1등이라는 수신호! 우리는 그게 사실임을 알면서도 정말 인정하기 싫었다. 이번에는 최지영마저도 미워하게 될 것 같았다. 2위는 대전여고 2학년 9반이 차지했다. 이제 우리들의 희망은 무너지고 있었다. 우리 학교와 대전여고에서 각 한 팀씩이 입상을 했다. 남은 1위는 어디로 갈까? 모두의 시선이 무대 위로 향했다.

“네, 영예의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영예의 1위는 일단 저희 학교가 아니네요. 대전고등학교가 차지했어요.”

“정말입니까? 와, 진짜네요. 대전여고가 양보해 주었습니다. 대학교인 여러분, 위로와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체육관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지음이가 말했다, 힘없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이제 금연부터 해야겠다. 야간 통행금지도 받아들이고!”

지음이의 하소연인지 닳두리인지를 뚫고 사회자의 멘트가 강당에 울려 퍼져 나왔다.

“네, 오늘 대전고등학교와 대전여자고등학교가 연합으로 개최한 합창대회 우수 학급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에는 테너 박인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너 박인수입니다. 여러분의 합창 정말 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평소 음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합창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아울러 오늘 대중음악과 클래식이 끝까지 경쟁을 했습니다. 클래식이든 대중음악이든 우리들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면 모두가 아름다운 우리들의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합창대회가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든 한 단계 성장시켰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모니를 이루지 못한 학급은 학급대로 쑥스러움과 부러움이라는 성찰의 기회를 얻었을 겁니다. 물론 하모니를 이루며 합창의 참맛을 맛본 몇몇 학급의 학생들은 이런 것이 합창의 묘미구나, 이렇게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하는 진한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이 느낌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대전고등학교와 대전여자고등학교 두 분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 특히 두 분 음악 선생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발표하겠습니다. 영예의 1위는, 대전고등학교 ‘여행을 떠나요’를 부른 2학년 9반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합창대회는 끝이 났다. 그렇게 기억에서 사라졌다. 라면 땅 파티를 남기고 말이다. 손영광 음악선생님은 이후에도 꾸준히 우리에게 저주하셨다. 음악선생님은 자신의 이름처럼 손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또다시 합창반을 데리고 대회를 준비를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의 예상이 빗나갔음을 기뻐하면서 ‘손 선생님의 예상이 영짱!’이라며 들으라는 듯이 농담을 던졌다. 선생님은 방백인양 우리들의 놀림을 애써 못 들은 척 하시면서 예선 탈락했어야 할 학급이 1위를 한 것은 신의 저주라고 하셨다. 박국희는 여전히 합창반 반장으로서 전국대회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합창대회였다. 합창대회. 내가 아닌 우리 되기! 하지만 나를 위로하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인수 교수의 말이 마파람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 임홍수 장편소설 [편파방송] 부분 인용.

“병철아! 내년 2016년 병신년(丙申年) 5월에 학급대항 합창대회 하면 정말 재미있겠지!”

“선생님! 올해 1학년 예술제에서 ‘거짓말’부터 거짓말처럼 잘 부르고 나서요!”

와, 김병철 정말 말 많이 늘었다. 성적만이 아이들의 전부는 아니다. 물론 보호자들은 싫어하는 말일 수도 있다. 진로모색, 이런 것보다 성과와 진학이 전부처럼 이야기 되는 세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자신의 진로를, 좋아서 하는 아이들이 성공하는 시대인 것을 어찌 하겠는가? 병철이와 1학년 밴드, 준영, 승재, 진표, 대훈, 민혁이가 정말 아름다운 이유다.

창밖에 서설(瑞雪)이 내리고 있다. 함박눈이다. 함박웃음이 하얗게 얼굴을 휘감고 돈다. 좋은 중학교다, 우리 천호중학교!

16. 마당극 [독립군끼리]를 배우는 시간

가람새알



2014 전국특수계 인문체쓰기 우수동아리 교육부장관상 수상

◎ 천호중학교 스토리텔링 동아리 장편소설 가람새-알

1. 첫 만남 & 시나리오 완성하기

2015년 어느 한 초여름날 점심시간, 영문도 모르고 1-3반 교실에 모였던 학생들. 그 날부터 ‘천호 예술제’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독립군끼리’호의 비행은 시작되었다. 그 첫 번째 여정은 대본 리딩이었다. ‘웃찾사’의 ‘남자끼리’, ‘역사 속 그날’ 과 영화 ‘암살’ 이 세 가지를 모두 각색한 일종의 패러디 극본으로, 읽는 이들의 탄식을 자아내었다. ‘아, 이런 걸 어떻게 하라고?’

하루하루 작가 김지민은 밤을 새워 약속한 8월 20일 대본 초안을 탈고 해냈다. 그날 김지민은 평소보다 일찍 등교하였다. 그것도 기적이었다. 대본 리딩을 거듭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해서 마침내 11월 초에 최종 대본이 탄생하였다. 그리고 본격 연습 시작!

처음에는 배우들이 서로 쑥스럽기도 하고 자신감이 없어서 연기가 많이 어색했고, 웃음만 터져 나왔다. 그래도 월, 화, 수요일 점심시간 마다 꾸준히 연습을 한 덕분에 조금씩 자신의 배역을 잘 할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해 나갔고, 우리 학교 선생님과 우리들이 이야기를 믹서해서 사회를 적절히 풍자하며, 선생님의 충고로 배우들의 연기는 점점 다듬어져 갔고, 마침내 ‘그럴 듯’한 느낌까지 주게 되었다. 연습을 하면서 주위 구경하는 학생들이 키득거리었지만 ‘독립군끼리’ 출연진과 연출진들 모두 아랑곳 하지 않고 묵묵히 목적지를 향해서 고도를 낮추지 않았다.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연습이 이루어졌지만, 가끔은 선생님의 따끔한 훈계로 팀 분위기가 다운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감언이설’이라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고 칭찬만 들으면 기분

은 좋겠지만,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 가끔씩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날카로운 조언과 훈계를 들으며 자신을 다듬어야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딱히 큰 위기는 없었으며, 모두들 대체로 연기를 잘 해주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도 없었다.

2. 댄싱계놈의 I'm so sexy 댄스 배틀 기획

댄싱계놈의 I'm so sexy 춤추는 장면은 대본에서 나오는 '댄스 배틀'에서 무엇을 넣을까를 생각하다가 정해졌다. 이때는 이 장면에 출연하지 않는 배우들도 모두 다 같이 춤을 추는 신이었다. 이 춤을 배우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약 1~2분 정도가 걸렸다. 약간 겁이 나기도 하였던 연극과 율동의 만남이 잘 이루어지며 모두가 좋아하였다. 이 춤을 연습하기 위해 토요일과 아침 시간도 반납해야 했지만, '독립군끼리' 배우들의 실력이 크게 업그레이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3. 맹연습! 강동 중학교 동아리 발표회 & 예술제 대비

천호예술제가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현재 11월16일) 이를 위하여 끝까지 조중간을 놓지 않으며 하늘을 마하의 속도로 가로질러가는 '독립군끼리'호의 모습이 아름답고 인상적이다. 꾸준한 연습으로 탄탄히 준비된 '독립군끼리'의 모습을 결전의 그날에 보길 기대한다.

이렇게 '독립군끼리'호의 여정은 12월 23일 수요일 종료할 예정이다. [독립군끼리]를 통해서 우리들은 특별한 추억과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서로의 헌신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다.

대한독립만세!

“12월 9일 수요일에 좋은중학교 성과 발표회를 겸해서 강동구 중학교 동아리 발표회가 오후 2시부터 있어, 미리 얘기했지만. 강동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 우리 마당극반의 2015 천호마당극 [독립군끼리]가 무대에 올라. 그동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또는 토요일에도 1학년 3반 교실이랑 체육관에 모여서, 천호예술제 리허설 겸해서 동영상 찍었지. 12월 9일 월요일에 우리 연습 동영상 보면서 두세 차례 연습 더하고 12월 8일 화요일 저녁 8시 10분에 강동아트센터에서 리허설이야. 그리고 12월 9일 오후 2시 45분에 우리들의 2015 천호마당극 [독립군끼리]가 강동아트센터 무대에 오르는 거야. 핀마이크 꽃고 멋지게 2015년과 서울형자유학기제 중학교 1학년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지. 물론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우리들의 인생 100년을 위한 작은 파티라고 생각하자. 물론 끝나고 명품떡볶이 가서 그동안의 우리들 모두의 노고를 위해 종파티 하는 것도 잊지 않을게!”

정말로 끝난 게 끝난 게 아니었다. 선생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처럼 어찌겠는가! 피할 수 없다면 즐길 수밖에.

4. 좋은 중학교 만들기 축제 5번째 무대의 주인공

2015년 12월 8일 저녁 강동아트센터. ‘독립군끼리’배우들과 스텝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 비록 그 ‘결전’의 날은 아니지만 모두들 보통 연습과는 사뭇 다른, 진지한 모습이였다. 이날은 ‘독립군끼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기 중 하나이다. 바로 내일, 강동 좋은 중학교 만들기 축제에 대한 리허설인 것이다. 이날의 리허설

은 내일의 결전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다. ‘독립군끼리’팀이 이 리허설을 통해서 실력과 원하는 것 등을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알려줘야 내일 이 ‘독립군끼리’의 공연의 질이 결정된다는 말이다.

이날, ‘독립군끼리’ 팀은 처음으로 우리학교 무대가 아닌, 매우 큰 공식적인 무대로 들어갔다. 무대의 웅장함이 ‘독립군끼리’팀을 위협적으로 에워쌌다. 무대는 생각했던 것보다 컸으며, 그만큼 긴장감도 커졌다. 관중석은 텅 비어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괜히 떨리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런 무대는 ‘독립군끼리’모두에게 처음이었지만, 연습하던 대로 차분하게,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비어있지만 불과 15시간 후 자리에 있을 관중들을 웃기자는 의지를 통해 2번을 한 후 ‘독립군끼리’는 성공적인 리허설을 할 수 있었다.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강동아트센터에서 오후 1시쯤에 다시 ‘독립군끼리’가 결합하였다. 결전의 날이었다. 모두 어제보다 한층 더 긴장되고 진지해진 모습이었다. ‘독립군끼리’ 중 ‘I’m so sexy’ 춤을 추는 배우들은 거의 전문 댄서 수준으로 자신들의 차례 직전까지 연습하였다. 그 부분이 사실상 이 마당극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차례는 3시쯤이었는데, 1시부터 그때까지 관중들에게 보이는 몇 분을 위해, 하지만 그들에게겐 한없이 소중한 의미 있는 그 시간을 위해 정말 열심히 연습했다.

드디어 ‘독립군끼리’의 Stage1 - 공연마당의 천호중학교 마당극 동아리가 하는 5번째 차례가 왔다. 천호중학교의 유일한 프로그램이었다. Stage1의 사회를 맡은 천호중학교의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다른 순서들보다 더욱 격한 소개와 더불어 관중들에게 ‘배꼽을 붙들

고 있어 주세요.’ 라는 대사를 통해 천호중학교 학생을 포함한 모든 관중들의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는 도박이기도 하였는데, 이 마당극이 관중들에게 ‘배꼽이 빠질 듯 한 상황’을 연출하지 못한다면 모두 허풍인 멘트가 되는 것이었다. 다행이도, 아니, 놀랍게도, 반응은 마그마처럼 뜨거웠다.

시작은 ‘독립군끼리’의 시나리오 작가인 김지민의 나레이션이었다. 웃음은 지도교사이자 경찰 역을 맡은 임홍수 선생님께서 파격적인 의상으로 출연하였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누가 봐도 ‘웃찾사’의 ‘역사 속 그날’을 연상시키게 하였다. 하정우 역을 맡은 김준영의 뛰어난 하정우의 말투는 거의 진짜와 같아 웃음을 자아내게 하였다. 또, 역시나 MBC [무한도전]의 유재석, JYP의 댄싱계놈 ‘I’m so sexy’ 음악이 나오자 열광은 극에 달했던 것 같다. 공연시간을 줄이기 위해 1부를 생략하게 되면서 춤추는 역을 갑자기 맡게 된 4명의 배우들의 활약은 그들의 연습시간만큼 대단했다. 병철, 종훈, 지훈, 진표는 전 마당극의 소품이었던 악어, 토끼, 2개의 호랑이 잠옷을 입고 훌륭한 솜씨를 뽐냈다. 이들과 같이 춤을 춘 임홍수 선생님과 김준영도 관중의 환호성을 같이 받게 되었다. 끝나는 음악이 나오고, 모든 배우들이 손잡고 인사를 할 때 관중들은 아낌없이 ‘독립군끼리’ 팀에게 환호성과 함께 박수를 보냈다. 비록 겨우 10분이 못 되는 무대였으나, ‘독립군끼리’의 배우들과 스텝들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

천호마당극 [독립군끼리]와 모든 축제가 끝나고, 선생님은 우리에게 강동구 좋은 중학교 동아리 발표회 지원금으로 명품떡볶이집에서 떡볶이를 거하게 사주셨다. 그 떡볶이집에서 올해 나는 샘이

당신의 주머니를 털어 사주셨던 떡볶이를 아주 많이 먹어봤지만, 이번만은 뭔가 특별했다. 내게 가장 의미 있고, 미각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가장 맛있었던 명품, 떡볶이 같았다.

5. 1학년 천호예술제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나온 무대

‘독립군끼리’는 2015년 12월 16일 천호중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1학년 천호예술제에서 8번째 무대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무대는 모든 다른 무대보다 관중들을 가장 많이 웃기고 놀라게 한 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무대는 ‘독립군끼리’가 12월 9일에 강동아트센터에서 공연한 내용과는 차별화를 두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첨가하려고 노력한 무대였다. 1부를 처음으로 공연하였고, 또한 2부도 달라졌다. 1부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학생들에게는 웃찾사의 ‘남자끼리’를 패러디한 신에 큰 웃음을 터뜨리게 하였다. 2부를 이미 본 1학년들을 위해 동물 1, 2, 3, 4가 하정우, 일본형사1, 2를 감금하고 무대에 오른다는 설정을 통해 김준영, 임흥수 쌤, 이채린이 더빙을 하면서 마당극 ‘독립군끼리’에 대한 1학년들의 집중력은 배가 되었다. 게다가, 대사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과 선생님들의 이름이 나온 것도 학생들의 웃음을 자아내는데 도움을 주었다. 압권은 전은영 선생님이 전지현(본명 임흥숙) 역의 문수연의 더빙에 맞추어 등장하는 부분이었다. 1학년 학생들은 열광하였고, 전은영 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매료되어 합성의 도가니를 이루었다.

아울러 가장 중요했던 변화는 바로 ‘I’m so sexy’ 춤을 모든 1학년 선생님들이 춘다는 것이었다. 관중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선생님들의 출연에 환호와 박수, 그리고 웃음으로 화답하였다. ‘독립군

끼리'지도교사인 임흥수 선생님이 '독립군끼리'에 절대 이 춤을 선생님들이 모두 나와서 춘다는 스포일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장면답게 반응은 정말 뜨거웠다. 선생님들이 학생자치법정에서 입었던 법복을 성가대처럼 착용하고, 사제동행으로 만드는 유일한 무대였다. 또, 출연자수가 가장 많았던 무대였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일한 연극이었다. 사회를 맡은 전교 회장이 강동아트센터에서의 공연이 생각난다는 말을 하였다. 덧붙여, 학생들과 선생님이 서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싶다.

이제, '독립군끼리'에 남은 무대는 2학년 천호예술제이다. 아마도 이들의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다. 이때도 과연 2학년들의 반응이 뜨거울지, 아니면 겨울 날씨와 같이 차가울지는 그때를 가늠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6. 마당극 '독립군끼리'의 마지막 무대

2015년 12월 23일, '독립군끼리'는 2학년 천호예술제에서 그들의 마지막 무대를 화려하게 빛냈다. '독립군끼리'는 4번째 무대를 맡았다. 이 무대는 '독립군끼리'가 그 많은 연습을 통하여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무대였다. 맨 처음 영문도 모르고 모인 멤버들은 채 5명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회의와 작가의 노력을 통해 대본이 만들어지자, 각 배역에 꼭 맞는 배우들과 음향을 포함한 스텝들을 1학년 전체에서 캐스팅하면서 마당극 동아리 '독립군끼리'는 점점 큰 모임이 되었다.

인원이 많아짐에 따라 더욱 풍부한 의견이 나왔으며, 이에 따라 대본이 수시로 바뀌었다. 가끔씩 지도교사 임흥수 선생님의 따끔한

혼계도 들으면서, 그렇게 ‘독립군끼리’는 발전해 나갔다. 토요일과 약속한 날의 점심시간에, 천호중학교 전체 학년들의 배려의 상징-식사우선권이라는 특권으로 급식을 먼저 먹고 1시까지 모여서 연습을 하며 서로 더욱 가까워졌다. 토요일에 연습이 끝나고 먹는 떡볶이는 ‘독립군끼리’의 원동력 중 하나가 되었다.

‘독립군끼리’의 마지막 무대는 2학년이 관중이었다. 이 무대의 특별했던 점은, ‘독립군끼리’가 초심으로 돌아갔던 무대라는 것이다. 대부분은 맨 처음 강동아트센터 공연을 위해 준비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했다. 그리고 장면도 그때의 것과 같게 하였다. ‘독립군끼리’는 침착하게 평소 하던 것처럼 마당극을 하였다. 또, 2학년 예술제인 만큼 이 무대에는 2학년 여학생댄스동아리가 ‘I’m so sexy’ 춤을 출 때 함께 공연해 주었다. 하지만, 역시 관중이 모두 2학년이어서 호응은 아주 많지도 않고 아주 적지도 않았다.

‘독립군끼리’가 마지막 인사를 하였고, 이렇게 2015년의 마당극 동아리의 과제의 끝과 함께 동아리도 끝이 났다. 이전의 마당극 동아리들, ‘드림하이(Dream High)’와 ‘황해(黃海)’도 모두 이런 끝을 모두 맺었을 것이고, 이는 ‘독립군끼리’에게도 이날 찾아온 것이다.

‘독립군끼리’ 중에서는 마당극 동아리가 끝났다고 무척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매우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지금까지 ‘독립군끼리’는 매우 많은 소중한 경험을 쌓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독립군끼리’는 모두의 웃음을 찾게 도와주었다.

독립군끼리

2015.12.16.

연 출 : 김재희(1-3)

조 연 출 : 이채린(1-6)

시나리오 : 김지민(1-3)

연출	김재희(1-3)	직원(독립군)4	김종훈(1-3)
조연출 2부 일본경찰2	이채린(1-6)	음악감독	김윤기(1-3)
시나리오 나레이션	김지민(1-3)	음악조감독	구태훈(1-3)
전지현(임홍숙)	문수연(1-3)	음악조감독	엄혜빈(1-6)
1부 하정우	이예린(1-4)	기록(기사)	윤세영(1-3)
2부 하정우	김준영(1-4)	기록(사진)	강나경(1-3)
분장감독 1부 일본경찰1	허유진(1-3)	소품 및 분장	차연우(1-1)
1부 일본경찰2	손진표(1-3)	소품 및 분장	이연재(1-1)
직원(독립군)2	김병철(1-3)	<i>꿈 만들어</i>	<i>이아호(1-0)</i>
직원(독립군)3	김지훈(1-3)	2부 일본경찰1	임홍수(교사)

천호중학교 마당극 동아리

1. 1부 독립군끼리

(Akkadian Empire OST)

내레이션 : 1933년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차지 카페! 독립군 저격수 전지현(임홍숙)이 오랫동안 바라던 카페에서의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전지현 : (애써 태연한 척 하면서) 저기요, 커피 한 잔 주세요.

하정우 : 네. (잠시 후 커피를 가져온다. 일본깡패로 보이는 남자들이 들어온다.)

일본경찰 : (문을 벌컥 열어서 들어오며 말한다.) 신분증 검사 좀 하겠습니다.

전지현 : (조금 당황하며 주머니 속의 칼을 슬그머니 꺼낸다.)

하정우 : 동지끼리 돕고 삽시다. (전지현에게 다가와서 구두를 닦으며 말한다.)

전지현 : 어디서 수작이야! (팔을 돌려서 꺾으려 한다. 하지만 민첩하게 피하면서 옆자리에 앉는다.)

하정우 : 우리 부부처럼 보여야 삽니다! (전지현에게 어깨동무를 한다.)

일본경찰1 : 둘이 부부입니까? (전지현에게 묻는다.)

전지현 : Sure.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하정우 : (강하게 웃으면서) 그런데 깡패들이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나요?

일본경찰1 : (약간 당황하며) 안 되죠. 큼큼.....

전지현 : 가..... 감사합니다.

하정우 : 괜찮아요. 독립군끼리 돕고 살아야죠. 요즘 세상에서 약자는 대한민국 독립군이니깐요.

일본경찰1 : 뭐지, 이 기분은. 우리 둘만 소외된 듯한.

내레이션 : 전지현이 걸쳐놓은 멜빵 사이로 ‘임홍숙’이라는 이름이 조명 사이로 살짝 보인다.

일본경찰1 : 잠깐만 임홍숙? 저건 여자암살자 이름이잖아! (총에 새긴 이름을 보며 가리킨다.)

일본경찰2 :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총을 들어서 이름을 보면서)

하정우 : 아니요, 제 이름입니다.

일본경찰 : 남자 이름 중에 이런 여자이름이 어딴어?

직원(독립군)2 : 여보세요? 청소담당 김영숙 군이죠! 청소를 할 거면 똑바로 해라, 김영숙!

직원(독립군)3 : 그럼, 니가 하던가! 주세정!

직원(독립군)4 : (전화벨소리) 네, 제니퍼 로페즈입니다. (BGM이 나오면서 독립군끼리 어깨동무를 하고 춤을 춘다.)

일본경찰1 : 뭐지 왜 나만 딴 세상인 것 같지.

일본경찰2 : 이제 그만하시고 커피나 먹고 가시죠.

일본경찰1 : 그러지 뭐.

일본경찰2 : 여기 커피 달달하게 두 잔 줘.

하정우 : 네. (바로 아래서 커피를 꺼내서 가져온다.)

일본경찰1 : 와, 정말 빠르다! 쓰읍, 왜 이렇게 써!

일본경찰2 : 달달하게 주라고 했잖아!

하정우 : 아! 죄송해요, 까먹었어요.

일본경찰1 : 어떻게 이런 걸 까먹어?!

직원(독립군)2 : 여보세요? 아, 부모님에게서 독립운동 하는 걸 까
먹었네.

직원(독립군)3 : 여보세요? 어, 자기야! 왜 이렇게 안와? 뭐? 우리
헤어졌다고! 아, 헤어진 걸 까먹었네.

직원(독립군)4 : 으억커어억 (목을 잡고 쓰러진다.)

직원(독립군)2 : 왜, 그러세요?

직원(독립군)3 : 괜찮으세요?

직원(독립군)4 : 아, 숨 쉬는 걸 까먹었네. (BGM이 나오며 짝을 지
어 팔짱을 끼고 돈다.)

일본경찰1과 2는 창피한 듯 달려 나간다. 하정우, 전지현에게 붉
은색 스카프를 목에 걸어주면서 말한다.

하정우 : 이것도 인연인데 나중에 만나면 프로포즈해도 되겠죠!

전지현 : 도와줘서 고마운데요…… 어디서 이런!

하정우 :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아름다워서…… 쓸 데 없는 말을 했
네요. Sorry! (손을 흔들며 밖으로 나간다.)

전지현 : 뭐, 저런 게 다 있어! (스카프를 벗으려다가 다시 목에 두
른다.)

(영화 [가문의 영광] 중 김정은, 나 항상 그대를 ost) 음악 흐르면
뒤를 돌아보면서 천천히 퇴장한다!

2부 역사 속 그날

(레미제라블 OST)

내레이션 : 1933년 윤봉길 의사의 중국 홍구 공원 도시락 폭탄 폭발 사건으로 일본군은 우리 독립군을 검거하기 시작하는데, 역사 속 바로 그날! 일본경찰의 지하 취조실. 하정우 포승줄에 묶인 채 깊이 잠들어 있다. 왼쪽에 또 다른 한 사람도 포승줄에 묶여 있다.

하정우 : 어우! 여기가 어디예요. 누가 날 여기까지 잡아왔어요. (당황하면서 말한다.)

일본경찰1 : (영화 [쫄스] ost)어이, 하정우! 이제야 정신이 드는구만. (경찰2와 같이 등장하며 하정우에게 다가가며 말한다.)

하정우 : 아저씨들 여기가 어디예요. 나를 왜 잡아온 거예요. (두리번거리며 다급한 목소리로)

일본경찰1 : 니가 여기 왜 잡혀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니가 여기 무…… (하정우에게 밀착해서 말한다.)

하정우 : (일본경찰1의 말을 끊으며 말한다.) 아저씨, 조금만 떨어져서 얘기해줘요! 아저씨 입에서 발냄새가 나요. 양말을 씹어 먹었어요?

일본경찰1 : …… (주머니에서 양말을 꺼내 집어 던지면서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본다.)

하정우 : 아무거나 먹으니까 이렇게 살이 찌죠. 배 좀 집어넣어요. 엄마가 뭐라 안 해요? (일본경찰1의 배를 흔들며 말한다.)

일본경찰2 : 야, 하정우! 너 지금 상황파악이 안되나 본데. 니가 가

와구치 마모루 총독님 암살사건에 가담했다는 얘기가 있어.

하정우 : 저는 가담한 적이 없어요.

일본경찰2 : 거짓말 하지 마. 너를 본 사람도 있어!

하정우 : 잘못 본 거예요. 그 근처까지만 갔다가 왔다고요. 엄마가
밥 다 됐으니 먹으라고 해서 갔더니 밥상만 놓여 있었어요.

일본경찰2 : 똑바로 말해. 말하라고! (몽둥이로 때리며 말한다.)

하정우 : 아, 때리지 마세요!

일본경찰2 : …… (멈춘다.)

하정우 : 봐봐요. 이렇게 내 말을 잘 들어요. 너무 좋아요. (웃으며
신난 말투로)

일본경찰1 : 하정우! 헛소리 하지 말고 가와구치 마모루 총독님 암
살사건 주동자가 누군지 말해!

일본경찰2 : 전지현이 주동한 거 아니야?!

하정우 : 전지현은 당신들이 죽였잖아요.

일본경찰1 : 아니야! 전지현이 죽은 게 아니라 쌍둥이 언니 미츠키
가 대신 죽었다는 걸 감쪽같이 속였더군.

하정우 : 우와, 다행이에요. 너무 좋아요!

일본경찰2 : 아직 좋아하긴 일러, 하정우. 지금 네 옆에 잡혀와 있
다고!

하정우 : 어디요? 어디 있어요!

일본경찰2 : 저기 있잖아! 안 보여!?

하정우 : 뭐가 보여요. 조금 비켜 봐요!

전지현 : (드라마 [용팔이] ost ‘사랑하는 그대에게’를 전지현, 포승
줄에 묶인 채 노래를 부른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고백합니

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약속합니다/ 위태롭던 나를 구해준
사람/ 그댈 위해 살아갑니다/

내레이션 : ([복면가왕] 동영상) ‘코스모스’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놀라고 당황한 어조로) 코스모스의 정체는 대
한독립군 저격수 출신의 전지현이었습니다.

하정우 : (일본경찰1이 조금 뒤로 물러나자 놀라면서) 전지현! 살아
있었구나. 고맙다. 고마워.

전지현 : (목에 빨간색 스카프를 두르고 있다) 하정우 씨! 사실 내
이름은 임홍숙이에요. 촌스럽죠!

하정우 : 촌스럽긴. 당신은 가만히 있어도 아름다워요. 자체 발광이
죠. 너무 좋아요. 안경을 좀 올려줘요!

일본경찰1 : 아주 높고들 있군. 죽고 싶어서 환장들을 하고 있어! 다
음 모임장소가 어디야?

일본경찰2 : 천호 커피샵 아니야?!

일본경찰1 : 거기서 뭐 할 거야!

일본경찰2 : 다음 암살 작전 짜는 거 아니야!

일본경찰1 : 왜 대답이 없어?!

하정우 : (일본경찰2를 가리키며) 이 아저씨가 다 알고 있네요.

일본경찰1 : 이거 완전 제 정신 아니야! 너 같은 놈을 일본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하정우 : 뭐라 그러는데요?

일본경찰1 : 도라이라 그래, 도라이!

하정우 : (피식 비웃으며) 아저씨같은 사람을 대한민국 천호중학교
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일본경찰1 : 뭐라 그러는데?

하정우 : 천호중학교 성적표라 그래요. 성적표!

일본경찰1 : 강동구청과 함께 좋은 중학교를 만들어가는 천호중학교 성적표! 왜?

하정우 : 천호중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그걸 없애버리고 싶어해요. 없애버릴 거예요.

일본경찰1 : (손에 편지를 들고 있는 척하며 읽는다.) 하정우! 네가 가와구치 마모루 총독님 암살사건 주동자라는 사실이 담긴 김구의 편지가 여기에 있다.

하정우 : 어디요? 뭐가 있어요? 뭐가 보여야 읽지요.

일본경찰1 : 있다고 생각해! 있다고 생각하라고.

하정우 : 좋아요. 그럼 부탁이 있어요. 안경을 좀 올려줘요.

일본경찰1 : (안경을 올려준다.)

하정우 : 내 말을 참 잘 들어요. 너무 좋아요!

일본경찰1 : 아, 뭐 이런 게 다 있어. 빨리 편지를 읽으란 말야!

하정우 : 좋아요. 있다고 치고..... (해금 음악이 흐르면서) 하정우 동지! 지금 가와구치 마모루 총독을 죽이기 위해 동지들이 도시락 폭탄을 준비하고 있소. 부디 도시락 폭탄이 터지는 틈을 타서 가와구치 마모루 총독을 암살하기 바라오. 상하이 독도에서 이수형.

일본경찰2 : 야, 또 이수형은 누구야? 김구 아냐?

하정우 : 이수형은 천호중학교 교감 선생님 이름이에요. 연출이 한번은 말해야 한 대서, 그럼 웃길 거라고. 야, 김재희! (객석을 바라보며 땀을 들인 후) 하나도 안 웃는데! 이 분위기 어

떡할 거야?

일본경찰1 : 헐! 그건 그렇고 세상에 상하이 독도가 어디 있어?

하정우 : 왜요? 상하이 독도가 이상해요? 당신들도 참 이상해요.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거 엄연히 알면서 우기는 거잖아요.

일본경찰1 : 안 되겠다. 빨리 끌고 가!

하정우 : 아저씨 마지막소원이 있어요. 소원을 들어 주세요!

일본경찰1 : 좋다. 소원이 뭐야?

하정우 : 제 친구들이랑 아저씨랑 댄스 배틀을 해서 아저씨가 지면 저와 임홍숙을 풀어주세요.

일본경찰1 : 그래, 좋아! 내가 몸매는 이래도 댄스 머신이라고, 하하!

하정우 : 친구들아, 나와! (하정우의 친구가 나오자마자 노래가 시작하며 댄스 배틀이 시작된다.)

MBC [무한도전] 댄싱게놈(유재석, JYP)의 'I'm so sexy' 음악에 맞춰서 댄스 배틀을 진행한다.

일본경찰1 : 와, 힘들어 죽겠다. 어휴, 왜 이렇게 오늘은 힘들지?

하정우 : 그래요. 이렇게 운동을 해요. 아~ 배가 문제예요. 아~ 배가 문제라고요. (쓰러진 일본경찰1의 뱃살을 잡아 흔들며 말한다.)

일본경찰1 : 내가 졌다, 졌어.

하정우 : 그래요, 일본은 결국 지게 되어 있었어요.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 땅이고요. 왜, 이런 노래 있잖아요. 지증왕 십삼 년

섬나라 우산국, 세종실록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하와이는
미국 땅, 대마도는 몰라도 독도는 우리 땅(독도는 우리 땅
ost), 우리 땅!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 만세!

(송소희, 아름다운 나라 ost) 배우와 스태프 모두 나와서 인사하고
다시 무대 양 옆으로 사라진다.

Ω. Epilogue

가람새알



2014 전국학생제 인문체쓰기 우수동아리 교육부장관상 수상

◎ 천호중학교 스토리텔링 동아리 장편소설 가람새-알

Epilogue 1 : 북위 41도 전선에서 온 남편의 편지

남편에게서 편지가 왔다.

소인은 2019년 9월 28일이었다. 대한민국과 북한, 두 공동체 약자인 대한조선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2009년 남북한의 이명박 정권과 당시 북한 정권은 12월 29일 특별 성명을 통해 2010년 1월 1일부로 대한조선이라는 국호로 남북연합을 출범시킨다는 믿기지 않는 발표를 개성특구에서 급작스럽게 하였다. 이어서 2010년 1월 1일 0시에 두 정상은 대한조선의 쌍두마차로서 공동대통령직에 취임하였다. 국호는 가나다순으로 정하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역사적으로도 한(韓)이 조선(朝鮮)보다 앞선다는 남북한 학계의 의견이 수렴되었다고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반대 열기가 대단하였다. 그렇다고 야당 역시 쌍수를 들고 옹호할 수는 없는 분위기였다. 일본은 대놓고 난색을 표하였다. 중국은 환영을 하였으나 미국은 일본의 눈치를 보는 듯 미온의 태도로 남북한 통합에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는 놀라는 듯했지만 애써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가 사라짐으로 해서 마르크시즘, 소비에트식 사회주의가 종말을 맞았다는 짤막한 논평을 내보냈다.

가장 큰 반응을 보여준 것은 독일이었다. 독일 특파원들은 대서특필로 한반도의 통일을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 비유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휴전선 155마일의 생태적 가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뢰 제거 기술을 언론 중 광고하는 등 경제적 접근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내 사랑하는 아내, 다예!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대한조선 축구 국가대표팀을 경호하기 위해 리우데자네이루에 갔다가 당신을 만났던 것은 아마도 운명이었나 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만 되면, 조금씩의 불편을 이겨내는 10년 내지 20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대한조선이 한 후, 고조선, 고구려의 전통을 잇는 동북아의 맹주로서, 자주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다는 포부도 잠시, 2019년 3월 1일을 기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도발은 악몽이 아닌 현실이었소. 북한측 공동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서거로 구심점을 잃은, 과거 북한 내 소수 군벌이 중국군벌과 야합하여 북위 40도선 이북을 넘기고 중국에 망명한 이 끔찍한 현실.

소령으로 승진한 당신과 우리 대한이와 조선이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으로 시작한 2019년은 내게 대한조선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리라 믿었던 것은 아마도 허황된 꿈이었나 봅니다. 지금 이곳은 폭풍전야의 고요가 도사리고 있소. 이 정적을 이겨내지

못하면 중국인민군이 내 목숨을 가져갈 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있소. 벌써 6개월간의 국지전 속에서 우리는 야금야금 41도선을
넘어 42도선을 향해 진격하고 있소. 하지만 이 전쟁은 끝을 짐작
할 수가 없소. 사랑하는 당신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소.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소. 우리 아이들, 대한이와 조선이에게
대한조선의 강인함을 꼭 보여주겠소. 후방에서 내게 힘이 되어주
는 당신이 있어, 행복하오. 여전히 당신에게 존대를 하는 내 말투
도 조금씩 자연스럽게 될 날이 오리라 믿는답니다..;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고 당신에게 돌아가서 당신과 함께 대한,
조선이에게 동생 하나 낳아주었으면 좋겠는데 당신 생각은 어떻
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번 전쟁에서 느낀 일이지만 중국 인민
해방군은 정말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오. 우리 아이들에게
힘세고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주고 싶구려.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
가 중립을 선언했지만 일본이 가장 골칫거리입니다. 대한조선이
더 넓은 땅과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기술력으로 자신들을 따라잡
을까봐 노심초사하던 그들이 아니었습니까? 공공연하게 일본이
중국에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대오.

다행히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을 듯해서 생각보다 피해가 적기
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인명과 재산피해는 엄청나리라는 것을 서
로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절대 놓칠 수 없
는 이번 전쟁을 위해 피의 대가를 치러야하는 현실이 우울할 뿐이
요. 사랑하오. 대한, 조선이를 부탁하오. 이제 이곳은 겨울이 시
작될 거요. 온난화의 영향 탓이겠지만 통일을 이루던 10년 전보다
봄과 가을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긴 여름은 더욱 덥고, 역시 긴

겨울은 더욱 춥기만 해서 전장의 병사들에게 총알과 포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번덕스러운 날씨라오. 당신도 대한, 조선이와 번덕스러운 날씨에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라면서 편지를 마칠까 하오.

아마도 압록강을 9월이 가기 전에 돌파할 수 있을 것같소. 당신과 온 한민족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듯하오. 2020년 설은 집에서 보내리라 믿으면서 대한조선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리다. 그럼, 이만 줄이겠소.

2019년 9월 19일

북위 41도 부근 진지에서 당신의 남편 대한조선군 108사단 대령
김춘추.

군사우편이란 스탬프가 선명한 남편의 편지를 이제 네 살과 세 살인 두 아이, 대한, 조선에게 읽어주는 내 목소리가 떨린다. 이 녀석들은 아빠란 말에 그저 눈 병긱 뜨고 바라만 본다. 대한조선이 무엇이고, 왜 중국과 국경을 사이에 두고 싸우는 지도 모른 채, 다만 아빠란 단어에만 집착하는 듯하다. 제발, 아무 탈 없이 전쟁을 마무리 짓고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이다. 셋째 아이에 대한 생각까지 하는 것을 보면 남편은 참 국가관이, 아니 민족관이 앞서서 사람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해주고 있다. 그는 우리의 결혼을 남녀북남의 절묘한 조화라고 했다. 남북한이 대한조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부부같은 조합이 많이 나타나야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좀 더 온전한 통일국가 대한조선을 이룰 수

있다고 했던 그였다.

중국을 지금 길림성 등 동북 3성을 사수하기 위한 소모적 전쟁을 하고 있다. 한반도를 통째 삼킬 수 없음을 몹시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 대한조선의 정치적 통일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 대한조선 연합체제의 온전한 통합을 좌시할 수 없었던 것이다. 대한조선이 이대로 통합되었을 때의 파급은 중국 체제 수호에 악영향을 보일 것은 당연지사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중국에 대한 우호적 지원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튼 우리 대한조선의 통일은 미국과 러시아, 영국과 프랑스에게는 동북아 삼국지를 즐길 수 있는 극적인 게임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내 사랑 김춘추에게 제발 2019년이 가기 전에 100년 전 3.1운동의 만세소리처럼 자랑스럽게, 만세 부르며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돌아오라 기도드린다. 오늘 밤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북위 41도 전장 앞으로 사랑의 편지를 보내야겠다. 어머니의 정화수처럼 정성과 사랑을 가득 담아! 대한조선군 대령 김춘추, 영원하라!

나, 사다예가 민주평통 사무처가 주관한 글짓기 공모에서 대상을 받았다. 하지만 자꾸만 내가 쓴 글이 낮이 설다. 글씨체는 분명히 내 글씨체인데 그 속의 내용은 내 것이 아닌 것 같다. 나는 백일장에 나가거나 공모전에 낼 작품을 쓸 때 선생님이 권유한 주제로 글을 쓴다. 글을 쓰고 나면 선생님께 메일을 보낸다. 메일은 온 라인을 거쳐서 선생님의 손을 거쳐 다시 온라인으로 내게 돌아온다. 그러면 내 작품은 어느새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선생님의 마음 씀씀이, 선생님은 이제 내

게 부담이 된다. 왜일까? 두렵다. 부회장 백사라의 말이 자꾸만 걸린다.

‘네가 쓴 거야?’

백사라가 눈치를 챈 것은 아닐까? 선생님은 입이 무거우니까,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마음 한 구석이 이상하다. 선생님은 계속 내게 상을 받을만한 백일장과 공모전에 작품을 내게 했다. 나를 위해 담배까지 끊은 분이지만 이제는 부담이 간다. ‘북위 41도 전선에서 온 남편의 편지’는 선생님 냄새가 나지 않는 내 글이지만 여전히 나는 선생님께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선생님 모르게 낸 내 글인데도 마치 선생님의 향기가 나는 것만같아 불안하다. 대통령상을 받았는데도 엄마는 반응이 없다. 아빠만이 나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하면서 선생님께 인사를 해야겠다고 말씀하신다. 아마도 엄마는 이번에도 선생님의 공이겠거니 생각하는 모양이다. 계절은 이제 무덥고 끈적끈적한 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을 넘어 겨울로 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봄이 오고 나는 3학년에 진급할 것이었다. 나는 점점 일등급이라는 달콤한 현실에 빠져 들고 있었다. 이제 백사라의 말보다는 화려한 수상 실적에 몰입되어 갔고 내 독서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작문 실력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 내 눈으로도 보였다. 신기했다. 선생님의 말이 예언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선생님은 그런 내가 더욱 좋아지는 모양이었다. 선생님은 여전히 먼 발치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선생님은 나, 사다예의 변화를 즐기고 있었다.

(중략)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문화방송, 경향신문, 삼성전자, 두산중공

업이 후원하는 제61회 1억 원 고료 편지쓰기 공모 금상 당선정보산
업고등학교 2학년 1반 사다예!

대상 상금이 1,000만 원, 금상도 상금 500만원이나 되는 권위 있는 대회에서 나, 사다예가 또 다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번 공모는 담임선생님도 모르게 나 혼자서 써냈는데 일을 내고 말았다. 이제 선생님께서부터 독립할 때가 되었다기보다는 백사라와의 오해부터 풀고 싶었다. 어찌 되었든 이제 내 실력을 내 스스로 인정받고 싶었다면 오만일까? 긍정의 심리학은 이렇게 고래도 춤추게 하는 기적 아닌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나 보다.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게 어려워 보였지만 결국 내가 그렇게 되다니? 선생님도 무척 좋아하셨다. 아빠와 다함어도 무척 좋아했다. 하지만 엄마는 아직도 마음이 풀리지 않은 듯했다. 어찌겠는가, 아빠 말대로 시간이 필요한 것을.

항상 죄송하고 감사한 부모님께!

지난 해 여름은 정말 힘들었어요. 모두에게 바람이 불어도 저에게 시원함보단 짜증을 전해주는 그런 여름바람이었어요. 아마 바람도 짜증이 났나 봐요. 바람도 여름이랑 싸웠나 봐요. 저랑 엄마, 아빠처럼요. 육상을 그만두고 중학교 겨우 턱걸이로 졸업하고 턱걸이로 인문계 진학하고 적응 못하겠다며 전문계로 진학을 하겠다면서 신경질 부리던 그때 생각하면 부끄럽기만 해요.

우리 학교, 당선정보산업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불안하기만 했어요. 우연히 담임선생님과 상담하고 선생님의 책을 읽고 나서

180도 달라졌죠. 담임선생님은 저를 위해 담배도 끊었고요, 저사다예는 지각을 끊었죠. 참가하는 글짓기대회마다 입상을 하면서 작문에 대한 흥미를 느꼈어요. 성적도 1등급을 유지하게 되었고요. 연세대학교 스토리텔링학과에 대해 꿈을 꿀 수 있었죠. 육상 그만둘 때만 하더라도 불가능한 꿈이었죠. 하지만 꿈은 현실이 될 것 같았어요.

이상한 일도 있었죠. 제가 전혀 모르는 외증조할아버지와 담임선생님 할아버지의 악연이 인연으로 승화되는 상황은 한 편의 영화처럼 아름답기만 했어요. 아마도 담임선생님은 이 이야기로 소설을 써보겠다고 하실 거예요. 우익과 좌익의 팽팽한 이데올로기 전쟁 속에서 우정보다 가족을 찾았던 두 사나이의 애증의 이야기 말이죠. 그런데 저는 외증조할아버지가 영화 속의 영웅들처럼 보였어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온몸으로 이데올로기의 전쟁 속에서 곳곳하게 살아남아 역사를 증명했던 외증조할아버지는 의인이었어요. 마지막 무덤으로 가시면서 담임선생님의 할아버지의 편지를 가져가셨죠. 소지(燒紙)함으로 해서 경건한 의식 속에서 신에게 용서를 비는 모습은 숭고함 자체였죠. 시대를 원망하기보다는 시대를 온몸으로 품어 안았던 외증조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물론 담임선생님의 할아버지도 좀 밉기는 했지만 한 시대의 아픔을 가슴으로 담아내셨고, 자신의 과오를 감추기보다 질책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은 무척이나 아름다웠어요.

이 이야기가 내 일이 아니라 소설이었다면 나는 담임선생님의 할아버지, 임동준이란 인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외

증조할아버지의 편지를 무덤까지 가져갔다는 이야기에선 감동을 받았죠. 아무튼 두 분의 우정처럼 저도 선생님과 망년지우(忘年之友)의 길을 가볼까 합니다. 아닙니다. 이제부터 혼자 힘으로 성실한 모교의 버팀목이 될까 합니다. 선생님을 놓아드리고 싶습니다. 후배들에게 말입니다. 저와 백사라가 누렸던 호사를 후배들도 누려야 하잖아요. 기회를 양보하는 마음, 참 어렵습니다만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선생님은 또 다시 속을 끓일 겁니다. 아마도 술을 끊을 지도 모르죠. 마, 선생님만의 향기로 후배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겁니다. 아참, 선생님이 술을 끊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의 귀염둥이 막내아들, 재원이의 ‘아빠, 술 먹어’를 들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에요.

엇그제, 짜증 가득 부린 제 모습이 떠올라 죄송하기만 합니다. 저 때문에 지친 여름 더 지치셨죠? 죄송해요.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죄송하단 말이,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말보다 더 가득 편지를 채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작년 여름보다는 흐뭇해하시는 일이 많아져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멋진 사다예로 다시 태어날게요.

제가 첫째여서 그런지 항상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웁니다. 철들어야지, 철들어야지, 하면서도 아직 철이 반밖에 안 든 것 같아요. 육상을 그만두었을 때도, 전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도 저를 믿어주신 나의 부모님. 동생을 챙겨야지, 챙겨야지, 하면서도 많이 못 챙긴 것 같아 많이 아쉽고 후회가 됩니다. 누군가 후회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고……. 지금부터라도 후회하지 않을 일만 하는 딸 사다예가 되어야겠네요. 요새 들어 동생 다

함과 대화를 나누는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시야가 약간 흐려진 것인가요? 최근 싸운 일로 인해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지 저도, 다함도, 말을 건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나인 제가 먼저 다가가 볼까 해요. 그게 바로 효도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동생과 사이 좋게, 의 좋게 지내는 것…….

이제 1년 반 후면 저도 어엿한 스무 살, 법적 성인이 되네요. 편지에 효도하겠다는 말 꼭 지키고 보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바람이 말합니다. 우리 사다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왜내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강한 바람처럼 힘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님이 아니라, 해님처럼 온화하고, 아름다운 말씀과 칭찬으로 자녀를 가르치시는 살가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라네요 ^.^ 그래서 저 사다예는 맘의 소중함으로 알고 언젠가는 부모님의 따뜻함을 닮은 사다예가 될 거랍니다. 맘은 언제나 거짓을 모른다네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2009년 8월 29일

아버지, 어머니의 딸 사다예 올림.

사다예의 감동적인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순간, 1년 전에 왔던 윤영주 선생님의 이메일이 오버랩 되었다.

일본 여행기 잘 봤습니다.

재원이가 나중에 이 글을 읽고 이해할 썸이 되면, 아마 무수히 더 많은 글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무척이나 든든하고 기쁘겠어요.

제 동생이 전에 공지영 씨의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라는 책을 읽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나에게 이런 말들을 해주고 싶었는데 좀 더 낫게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러 이런 글을 써서 전해주지 못한 것이 아닐까?”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하며 그 점에서 그런 말을 때때로 작품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위령이 부러웠습니다.

아마도 재원이는 아버지의 이런 글을 읽고 마음이 아주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연수 방식은 제시하신대로 30초 이내로 발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각자 2분씩은 다른 사람들이 좀 지루하겠지요. 다음 주까지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에 국지성 호우가 계속 내릴 거라고 하는데 인제 내린천은 괜찮을지 걱정이 되네요.

이번 여름 방학은 올림픽 경기 보느라 일손이 잡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정말 대단해요. 이 좁은 나라에서 정말 못 하는 경기 없죠?

오늘 있을 중국과의 야구 경기도 기대해보면서 이만 ^.^

p.s 아직도 더위가 가시지 않았네요. 재원이네 가족 모두 건강 조심요!

아마도 사다예의 엄마도, 내 아버지도 좀 더 멋지게 외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삶에 대해 좀 더 나은 표현을 찾아서 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다. 말은 글보다 훨씬 주워 담기가 어렵다. 한 번 뺏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아니, 설령 주워 담는다 해도 잃는 게 더 많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글은 어떤가? 퇴고하고 재고하고 하다보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렇다고 글이 위험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활자로 인쇄되어 여러 사람의 손에 쥐어지면 후에 오탈자가 발견되어도 고치기가 더 어렵다. 그래서 더 많은 노고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래야 실수가 적어진다. 누가 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진일보 했는가가 중요하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이 아닌 인간의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답습이 아니라 청출어람(靑出於藍)의 낮습이 바로 창작의 시작이다.

나는 또 다른 사다예를 기다린다.

사다예가 떠났다.

- 임흥수 장편소설 [아빠 술 먹어] 부분 인용.

연주 : 샘! 혹시 또 다른 사다예, 우리 1학년 중에도 있어요?

준희 : 있겠지! 수연이나 지은이 아닐까? 육상부니까!

재희 : 그러면 육상하다가 그만 둔 거니까, 수연이겠네.

흥수 샘 : 있긴 하지만 꼭 한 명이라고는 안 했는데. 그리고 그건 소설이잖아. 있을 법한, 개연성(蓋然性) 있는 허구, 몰라! 그리고 절대 연주 너는 아닐 걸!

연주 : 누가 저라고 했어요. 정말 나만 미워행!

준희 : 쌤은 항상 반어법으로 얘기한다. 고로 연주일 확률은 엄청 높다고 봐!

준영 : 아냐. 나랑 병철이라고!

진표 : 웃기지만. 나라고!

홍수 쌤 : 애들은 소설이랑 현실을 너무 구분 못 한다. 종훈이랑 민수처럼 덩치만 산만해야지. 왜 이렇게 덩치는 작은 녀석들이 산만하냐!

준희 : 정말! 쌤, 보자보자하니까 보자기로 보이죠!

재희 : 가만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니로 보일 걸!

홍수 쌤 : 그래서 준희는 보이고, 재희는 걸인건감!

연주 : 쩌. 나도 사다예처럼 문학 특기생으로 연세대학교 가고 싶다. 꿈일까?

홍수 쌤 : 꿈을 꾸고, 그것을 생각이 아닌 기술(記述)하기 시작하면 성취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야.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생들 파이팅!

준영 : 짹짹 짹짹 대~한민국! 애들아, 명품떡볶이 예약시간 됐다. 빨리 가자! 병철아, 우리 토핑 치킨으로 할 거지! ㅎㅎㅎ

병철 : 당연하지. 쌤 몰래 기술적으로 사이다 2명 더 먹자. 와, 저기 예린이랑 채린이, 쌍둥이 간다.

예린 : 김병철, 그냥 예린이 따로, 채린이 따로 불러!

채린 : 그래! 병철아, 우리가 너 보고 7남매 중 다섯째, 키 작은 애라고 구체적으로 말해 봐?

준영 : 병철아! 어서 빌어! 애들한테 못 당해.

병철 : 와, 알았어. 짜리! 완전히 병신(丙申)년에 병신 됐다.

연주 : (혼잣말로) 제2의 사다예, 한 번 해봐!

준희 : 사이다? 그건 또 뭐얌! 그건 그렇고 김진명 장편소설 [글자 전쟁] 다 읽었어? 재미뿐만 아니라 역사전쟁같아서 정말 무섭기까지 했어. 사마천의 [사기(史記)]라는 역사책 속에 그런 음모가 있다고 논리를 펼치는 작가의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

연주 : 그러게. 우리가 먹는 죽(粥)이 한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 김진명의 장편소설 [글자 전쟁] 식으로 하면 죽(粥)은 중국식으로 미음(米飮)이어야 하잖아. 우리 식 한자 죽(粥)은 쌀(米)을 두 개의 큰 활(弓)을 이용해서, 쌀뿐만 아니라 곡식을 뺏아서 묽게 만들어, 초근목피(草根木皮)를 넣어 기근(饑饉)을 극복해왔던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美風良俗)을 많이도 닮았더라고. 어원(語源)을 알면 알수록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재미가 쏠쏠해지는 게 신기해.

준희 : 그래서 쌤이 스토리텔링 동아리 첫 시간에 얘기한 ‘활(活)’은 최종병기 활(弓)이자 현악기 활(絃)이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활기찬 삶의 다른 이름이라는 말씀에 동의하게 돼. 신기하지! 그저 날마다 30분씩 독서를 한 것뿐인데, 내가 이렇게 호기심 천국처럼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서 살고 있다니, 정말 믿겨지지 않아!

연주 : 독서박사가 되기 위한 십계명 생각나?

연재 : 1. 스마트폰은 버려라!

연우 : 2. 동화책을 읽어라!

민수 : 3. 음식처럼 독서도 편식은 금물이다!

신영 : 4. 베스트셀러는 독서를 망친다!

지민 : 5. 쪽잠처럼 쪽독서가 정답이다.

승재 : 6. 전반은 독후감으로, 후반은 명상으로 대신하라!

대훈 : 7. 콩나물시루에서 배워라!

경도 : 8. 영화, 드라마와 접목하라!

준석 : 9. 고전은 중학교 때 마스터하라.

세영 : 10. 읽고 후회하라, 후회하면서 읽어라!

준희 : 와, 대단하다. 그걸 다 외웠어? 작심삼일(作心三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예린 :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세영 :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었다.

연주 : 밤 새겠다. 그만 먹고 집에 가야지!

준희 : 밤에 밤을 먹고 화장실에 가서 힘을 주노니, 밤똥인가 밤:똥
인가?

연주 : 으이그, 또 저 놈의 말장난! 준희, 너는 대한마사회에서 특채
할 게 틀림없어! 축하해.

준희 : 고마워! 그럼 진짜 안녕. 잘들 가라.

Epilogue 2 : Frontier

이야호는 떠났다.

서설이 내리던 그날 수연이가 카톡방에 올린 글을 보았다. 대수롭지 않았지만 연주가 제기했던 그 문제에 대해 수연이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홍수 쌤의 블로그에서 발견한 아주 작은 단서들을 수연이는 백일장 금상의 탄탄한 구성력과 유려한 문체로 단문으로 이어가고 있었다.

수연 : 철(Fe)질량계수라는 것. 아직은 단정할 수 없지만 있는 것 같아.

준희 : 뭐얌?

수연 : 3월 2일자 천호일보 기사 속의 사진들부터 일명 투명인간 블랭크를 찾아봤어. 근데 이게 상당히 상대적인 거야!

연주 : 그래. 나도 그렇게 봤어. 절대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실체가 분명하지 않아서. 우리들 각자가 본 것 다르다는 거지.

수연 : 입학식 때는 거의 중앙에 투명인간 블랭크가 있어.

준희 : 다음에 서울랜드 세계시민교육관 단체사진에는 나경이랑 태훈이, 그리고 동현이 사이에 있는 것 같더라고.

연주 : 근데 1학년 육상대회 때는 수연이, 정민이, 유진이, 그리고 준원이 사이에 있었어.

준희 : 1학기 학생자치법정 사진에는 준원이, 지민이, 지훈이, 예원이 사이에 있었지!

승재 : 근데 그게 정말 투명인간 블랭크일까?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 아냐.

경도 : 나도 한 번 천호일보 봐야겠다. 그게 일정한 공식이 있다면 그 실체를 밝힐 수도 있는 거니까.

준희 :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앞에서 열렸던 백일장과 사생대회 사진이야. 동건이랑 나, 수민이랑 은성이, 대훈이랑 민혁이, 그리고 준영이랑 윤서, 준원이 사이에 보이는 이 공간은 정말 뚜렷한 투명인간 블랭크처럼 보여. 그치!

수연 : 여름방학식 사진에는 우리 반 여자애들이 다 같이 왼쪽에 있는데 여기 반대쪽에 남자애들, 진표랑 은성이, 세영이가 서 있는 두 번째 줄과 민수랑 병철이, 수민이가 있는 세 번째 줄 사이에 보이지, 투명인간 블랭크!

연주 : 더 재미있는 건 경기도 화성 하내테마파크에서 있었던 1학기 임원학생수련회 사진을 봐. 여기 우리 1학년 임원들 사이에 분명하게 보이는 투명인간 블랭크 말야. 1학년에 포커스를 맞추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수연 : 강동 선사문화 마라톤대회랑 강동 선사문화축제 거리퍼레이드는 지난번에 연주가 얘기했었지.

연주 : 남산과학관 사진이야. 재희랑 나경이, 신영이랑 윤기, 태훈 이랑 종훈이 사이를 봐!

수연 : 나랑 윤기, 신영이랑 병철이, 예원이랑 동현, 지훈, 준원이 사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두 군데나 보여.

재희 : 고구려대장간 마을 사진에서는 세 군데나 보이는 것 같다. 동건, 태훈, 윤기, 민혁, 지원이 사이에 하나, 은성, 수민, 정민, 진표 사이에 또 하나, 준원, 동건, 정민, 유진, 예원 사이에 하나가 보이는 것 같아!

수연 : 1학년 8반 사진에도 투명인간 블랭크가 보이잖아. 감을 못 잡겠다.

연주 : 그래서, 네 말처럼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거야. 연상연하커플처럼. 언니보다 더 성숙한 여동생. 형보다 의젓한 남동생, 누나보다 어른스러운 남동생, 오빠보다 사려 깊은 여동생. [응답하라 1988]의 선우 같이 정말 일찍 철이 들어버린 학생 말이야.

준희 : 하긴 초등학교 저학년들 중에는 철이 정말 일찍 들어서 애 어른이라고 불리는 애들도 있잖아. 반대로 노인이 되어서도 철 없이 행동하는 분들도 있고.

수연 : 쌤이 그랬잖아. 시인(詩人)은 철들지 않은 어른이라고.

재희 : 재미있다. 우리 내년에는 심리학 자율동아리 한 번 만들어보자. ‘이아호를 찾아서!’라는 이름 어때?

연주 : 괜찮다. 근데 나는 정말 이아호를 만났던 것 같아. 이아호를 만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아마도 철(Fe)질량계수기준 이상의 게이지를 넘어서서 더 이상 이아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떠났기 때문이라고 봐!

수연 : 김 작가님! 내년에는 마당극동아리 연출이나 작가 한 번 하겠다고 홍수 쌤에게 선전포고 한 번 하시지!

재희 : 그럼, 나는 은퇴해야겠네. 아님 연기 한 번 해봐!

준희 : 윤기랑 태훈이가 연기욕심 내던데. 나도 한 번 연기해 보고 싶다.

수연 : 내가 볼 때는 나경이랑 세영이가 주인공을 욕심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겨울방학 때 스토리텔링4기 텔링반 들었잖아. 진짜 볼만 하겠다.

연주 : 근데 그거 알아? 민수, 병철이, 준원이, 대훈이, 진표, 승재, 민혁이가 같이 모여 있는 사진에는 어김없이 투명인간 블랭크가 보인다는 거!

수연 : 정말이야?

준희 : 그럼 한 번 확인해 볼까?

재희 : 카톡방 따로 만들어서 애들 7명 다 같이 명품떡볶이로 오라고 해보자.

수연 : 그리고 몰카 한 번 찍어!

연주 : 근데 그 사이에 혹시 철(Fe)질량계수가 딱딱 올라간 애가 있으면 곤란한데!

준희 : 그럼, 시작하자.

연주 : 투명인간 블랭크가 정말 나올까?

수연 : 아무튼 이아호가 그리울 거야!

재희 : 그러게! [어린왕자]라도 읽어봐야겠다.

준희 : [인사이드아웃]도 괜찮아!

예린 : 아무렴! 그런데 [미니언즈] 보다가 울 것같아. 이아호 생각
나서.

채린 : 혈중 철(Fe)질량계수가 높은 나는 결국 이아호를 못 본 거
야? 아쉽다. 철 좀 늦게 들걸!

예린 : 꼭 그렇지도 않은가봐. 수연이 한 말 기억하지.

채린, 준영, 병철, 수연 : 쌤이 그랬잖아. 시인(詩人)은 철들지 않은
어른이라고. 그거!

예린 : 그러니까 시인처럼 순수함을 간직하고 살면 언젠가는 이아
호를 다시 만날 수도 있다. 이거잖아. 그치, 연주야!

연주 : 맞아! 이아호, 많이 그리울 거야! 아이처럼 계속 살 수 없는
거니까!

1960년 출생의 재일교포 음악가, 대한민국 제주도 출신의 아버지와 북한 신의주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재일교포로, 그는 프론티어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경계, 주변이란 의미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다. 일본에서 한국인과 조선인으로 살아야하는 것, 아니 살아남아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한다. 거기에 대한민국과 북한이 첨예하게, 민단과 조총련으로 대립하던 시절 성장한 그에게, 아니 그의 부모에게 귀화는 선택이 아닐 생존의 문제였다. 그에게 고난은 그를 더욱 성숙하게 했으며 굳게 단련시켰다. 의대를 나오고, 1년간의 의사생활을 하다가 그는 인생의 대전환의 길, 음악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사람을 고치는 의사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음악은 상당 부분 닮았다고 말했다. 한때는 ROCK음악에 빠지기도 했고 서양음악은 물론 국악에 심취했다. 남북과 일본이 어우

러지고,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접경지대. 주변인이고 경계인이었던 그의 고난은 그를 개척자(Frontier)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것이다.

아버지의 고향 제주에서 시작한 그의 음악과 대한민국의 늦은 인연은 부산아시아게임으로 꽃을 피웠다. ‘프론티어’는 2002부산아시아게임 공식음악으로 선정되어 우리들의 가슴을 아리게 했다. 곧 이어 2013년 2월 25일 거행된 박근혜 18대 대통령 취임식 음악, 2014년 2월 24일에 거행된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식 음악 감독 등을 역임하면서 그의 음악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세계인의 뉴에이지 음악가로 알려졌다. 그의 음악은 대한민국의 문화의 전령으로 거대한 스마트 한류의 뇌관이 되었다. KBS 특별기획 ‘차마고도(茶馬高度)’의 메인 테마곡(Main Theme)의 잔잔한 선율 속에서 음악을 찾아 무작정 가출을 했던 양방언의 진로 모색의 과정이 한 편의 성장 소설처럼 느껴졌던 건 아마도 국어시간의 생생한 동영상 시청과 선생님의 설명 덕이었다. 아름다운 영상기법과 대한민국 아버지의 대명사였던 국민배우 최불암 씨의 내레이션도 ‘차마고도’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었다.

‘Frontier’의 신비한 선율에 빠져서 알람을 끄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물과 태평소,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끝나고 나서야 제타(Zetta, 2의 70제곱)스마트폰의 알람을 확인했다.

- 천호중학교 스토리텔링반 장편소설 [타임캡슐 2044] 부분 인용.

연주는 이아호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게 되었다. 수많은 아이들이 그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고, 저만치 정재량 재홍, 상운이가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다. 그 뒤로 지은이와 민서가 재

잘재잘 걸어가고 있는 게 멀리 보인다. 방과후학교 스토리텔링반에 가는 중일 것이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곁에서 함께 꿈을 찾아 동고동락(同苦同樂)하는 또 다른 자신이 바로 이야호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질량계수, 엔겔계수처럼 아이들에게 철(Fe)질량계수가 증가하고 어른스러워질 때가 되면 이야호는 아이들의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것이 [인사이드 아웃]의 감정일 수도 있다. 스머프일 수도 있다. 엄지공주일 수도 있다. [드래곤 길들이기]의 드래곤일 수도, [아바타]의 아바타일 수도 있다. 다만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이야호를 망각하는 것일 뿐이다. 수많은 천호일보의 기사와 사진 속에서 이야호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대한민국의 소년과 소녀들은 이야호를 믿지 않았다. 다만 아직 철(Fe)질량계수가 부족한, 어른들과 선생님들이 산만하다고 말하는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곁에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개입한다는 생각에 이르자, 연주는 자신이 철이 많이 들어서 이야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준희 역시 어렵풋하게 연주와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저만치 재희랑 주리, 현태랑 백중이가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다. 방과후학교 스토리텔링반에 조금 늦게 가는 중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발걸음이 좀 빠르다. 생 떡쥐 베리 원작의 [어린왕자(Le Petit Prince)] 역시 이야호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여 새로 개봉한 애니메이션 [어린왕자(마크 오스본 감독)]를 다섯 번이나 보러가기까지 했을 정도다. 물론 [인사이드 아웃]도 세 번이나 봐야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는 준희의 호기심은 이미 이야호를 자신의 친구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미니

언즈]는 또 어떤가?

가장 중립적이었던 이야호! 그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 주변인, 질풍노도의 시기, 종이병보다 더욱 어울리는 단어 하나.

Frontier다.

2014 전국책축제 인문책쓰기 우수동아리 교육부장관상 수상

천호중학교 스토리텔링 동아리 장편소설

가람새-할

초판 1쇄 발행 / 2016년 1월 11일 인쇄·발행

지 은 이 / 천호중학교 스토리텔링 동아리(지도교사 임홍수 외)

연 은 이 / 임홍수(mds9233@sen.go.kr)

박 준 이 / 이지현

고 친 이 / 임도원(광신고등학교 1학년)

표 지그림 / 이연재

펴 낸 이 / 도서출판 수민

발 행 인 / 김지영

등 록 / 제327-3270000251002004000007호

전 화 / 02-470-7074~5(천호중학교)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암로 153(천호동)

인쇄·편집 / 후 디자인(중구 충무로3가 56-21, 전화 02-2269-5134)

©천호중학교 스토리텔링 동아리(지도교사 임홍수 외) 2016

ISBN : 979-11-5711-160-2 03810

- *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지은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책값은 뒤표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